



12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12호

(루게 422)



◆◆◆◆◆◆◆◆◆◆

## 차 례

◆◆◆◆◆◆◆◆◆◆

백두산천지의 폭포소리 .....	4
<b>김정일</b> 그이께 영광을 .....	5
<b>김정일</b> 각하께 드립니다 .....	5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강령적문헌 .....	6
상봉 .....	10
가을 .....	21
오산덕의 추녀낫은 초가집이여! .....	31
위대한 어머니의 자옥 .....	32
어머니의 하루를 두고 .....	33
영광 빛나는 그 자리에 .....	35
별 .....	35
어머니 그리며 .....	36
조국을 부르는 첫 기슭 .....	37

영원한 웃음 .....	38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빛나는 예술적화폭 .....	39
백암니탄 .....	42
회령의 진달래 붉게 피었네 .....	51
떠나는 길에서 .....	52
소조원이 걷는 길.....	62
검덕의 목소리 .....	63
가을밤의 들길 .....	64
영예의 《6 월 4 일문학상》 첫 수상자들.....	65
공지 .....	65
곽령감 .....	66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 부르쵸아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 .....	72
어머니를 고향땅에 모시려 .....	79
눈은 묻어주었네 .....	80

# 백두산천지의 폭포소리

신운호

장쾌하다

백두산천지의 푸른 물 푸른 물결이

층암절벽사이로 쏟아져

끝없이 흘러내리나니

내 층암절벽에 올라

순간도 지침없이 되성치며

우주를 짝 채우는

천지의 폭포소리 듣노라니

이 나라 인민의 환호소리듯

어찌 들으면 그 폭포소리

창조와 건설의 거센 불바람 안고

이 땅에 넘치는 거창한 기계소리듯,

어찌 들으면 그 폭포소리

꽃피는 락원의 강산에 넘치는

환희와 행복의 웃음소리듯...

만고의 령장 우리 수령님

삼천리 강산에 새날을 밝히시려

제국주의운명에 끝장을 내시려

온 세상에 높이 올리신

항일대전의 총소리 들려와라

아!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용솟는

천지의 맑고 푸른 물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기상

혁명의 냇을 안겨주는

끝없는 사랑의 생명수 되어

천만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소리!

혈전만리 고난의 준령을 넘어

불타는 성시와 포대를 부시며

노도처럼 내달은

대오에 터져오르던 만세소리...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위업

만대에 길이 전하며

지구의 먼 한끝까지

자주의 새봄을 꽃피우는

광복의 새세상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

감격에 울고 웃던

영원한 생명의 젖줄기 되어 흐르라,

백두의 폭포여!

# 김정일 그이께 영광을

꾸누쵸 쏘싸

당의 앞길 밝히는 빛나는 별  
젊으신 그이는 위대한 향도성  
불멸의 주체사상 체현하신분  
영원한 주체의 화신  
그이께서 천리마에 속도전의 박차를 가하시니  
날개돋친 말  
영광의 하늘높이 그이의 존함 떨치며 날으네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성과 자랑하며

**김정일** 그이는 찬란한 별  
향도의 빛발 공장과 전야에 비쳐가고

인민을 승리로 이끌어주네  
그들을 더 높은 위훈으로, 아름다운 미래으로  
이끌어주네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인류의 해탈이신 그이께 영광을  
태양의 아들 그이께 영광을  
혁명의 영웅 그이께 영광을  
**김정일** 그이를 내 영원히 따르리

(필자 또고 과학연구소 소장임)

# 김정일각하께 드립니다

알베르토 느게마 온도 오브노

**김정일**각하  
당신은 조선인민을 향도하시기 위해  
탄생하시고 성장하신분  
위대하신 당신의 품모와 성품은  
꽃피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김정일**각하  
당신은 천재적령도력을 지니신 창조의 영재  
겸손성과 소박성을 지니신 인민의 구감  
주체사상의 열매를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지도자  
이십니다

당신은  
휘황한 조선의 미래이시며  
세계의 수령이신 주석의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십  
니다  
당신께서 소원하시는 인민의 복리를 위해  
공장마다 기계의 동음소리 높이 울리고  
논밭엔 오폭백과 무르익고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은 승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락원의 주인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필자 적도기네 《몬폴로아》극장 총장임)

##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강령적문헌

장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지난 11월 중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가 진행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 당중앙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지금 한없는 감격과 긍지에 휩싸여있으며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차넘쳐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서한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광범한 군중에게 의거하며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예술창작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왔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중등의무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생산현장에 많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더욱 널리 벌려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의 예술적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통일적인 창작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해마다 중앙과 도들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창작강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소조를 광범히 조직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문학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군중문학창작을 장려하기 위하

여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한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인 표창을 하게 하고 우수한 작품을 영화로 실현하거나 신문, 방송, 잡지들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6월 4일문학상》을 제정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한 근로자들을 표창하도록 한것은 군중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작열의를 높여주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우리 당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최근 10여년동안 이 땅우에는 군중문학의 일대 전성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당중앙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전문작가들의 일상적인 방조를 받게 된 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작열의가 비상이 높아져 해마다 수만편을 헤아리는 군중문학작품들이 창작되고있다. 그중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영화문학 《더 높은곳으로》를 비롯한 수십편의 영화문학이 화면으로 옮겨지고 장편소설 《해솔는 바다》, 력사소설 《임오풍운》, 중편소설 《첫교원》, 《젊은 기사》 등 천수백여편의 소설, 시, 희곡들이 출판발표되었다.

이 군중문학예술작품들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참신한 형상적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다.

문학창작활동을 전군중적으로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문학통신원대렬도 급속히 늘어나고 그들속에서 전도유망한 작가들이 많이 자라났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작가대렬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중견작가들과 함께 패기있고 재능있는 세대대의 작가들로 부단히 보충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서한에서 사회주의건설장

들과 조국보위초소들에서 맡은바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는 문학통신원들의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이 서한에서 밝힌바와 같이 오늘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우리 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문학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보급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 잘 키울수 있으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자면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중문학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대중적인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고 가르치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그들의 지혜가 발동되어야만 문학예술이 빨리 발전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은 생동하게 반영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될수 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일관한 방침이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일관한 방침으로 되는것은 이 방침이 우리 시

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물질적부의 생산자일뿐아니라 문학예술을 포함한 정신문화적부의 창조자이다. 인류문학예술발전이 최고단계를 이루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결코 몇몇 전문 작가, 예술인들의 제한된 힘만 가지고서는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것을 적극 조직동원할 때에만 옳게 발전시킬수 있다.

이로부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군중문학예술을 발전시켜 온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당중앙이 서한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나라의 예술화는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의 높은 목표이다.

온 나라를 예술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누구나 다 글을 짓고 그림도 그리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도 다루고 춤도 출줄 알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나라의 예술화가 실현되면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될뿐아니라 참다운 창조자로 될것이며 문학예술은 그야말로 전체 인민의 참가밑에 더욱 활짝 꽃피나게 될것이다.

온 나라가 예술화되면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문화적소양과 예술적자질을 소유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촉진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들이 바로 문학통신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들이라는 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문학통신원들은 당의 이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며 온 나라를 예술화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이 자기들앞에 나선 이 숭고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서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데서 나서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학통신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모습을 생동하게 그린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살며 매일매 시간 벽찬 생활을 직접 보면서도 문제성있는 작품을 써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리해가 깊지 못한것과 많이 관련된다.

문학은 인간학만큼 우리 시대 인간과 그 생활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할 수 없다.

창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과 그 생활을 깊이 리해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과 함께 숨쉬고 그들의 사상감정으로 생활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적성격과 사상감정을 깊이 체험하여야만 그들의 고상한 품모와 아름다운 생활을 옹바로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다.

창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간과 생활을 바로보고 그것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는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의 반영이며 작가는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생활을 형상한다. 작품에 형상된 모든것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작가의 사상에 의하여 분석되고 평가된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이 자기가 잘 아는 현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생활가운데서 그 본질적합법칙성이 반영된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창작가들이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현실을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계급적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사변들로 가득찬 우리의 현실과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바쳐싸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옹바로 파악하고 훌륭하게 그려낼수 있다.

문학통신원들은 옹바른 정치적식견과 함께 높은 예술적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문학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인것만큼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내지 못한다면 참다운 문학으로 될수 없다.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상성 이것은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간성격을 개성적으로 잘 그리는것이다.

인간을 현실생활에서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구체적인 존재로 그리며 서로 다른 생활감정과 성격적특성을 가진 개성적인 존재로 그려야 그 작품은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묘사하여야 한다.

생활을 현실에서 보는것과 같은 생동한 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리자면 세부묘사를 잘하여야 하며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보여주고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중앙이 서한에서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형상의 예술적가치는 백을 가지고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백을 보여주는데 있다. 창작가는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아야 하며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형상의 세부들을 섬세하게 그릴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세부들을 골라잡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세부라도 흘시하면 형상전반의 진실성을 깨뜨릴수 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성적특성, 이것은 작품의 얼굴이며 그 작품으로 하여금 바로 그 작품으로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이며 따라서 한 작품과 다른 작품을 뚜렷이



구별짓는 비반복적인 특징이다. 얼굴이 없는 사람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은 자기의 얼굴, 즉 남과 구별되는 자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가져야 예술로서의 생명을 빛내일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통신원들은 남의것을 모방하는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자기 식으로 창작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주장, 개성적인 문제와 독특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은 완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의 열매이다. 꾸준하고 완강한 노력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창작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통신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였던것처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높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완강한 의지로 창작적열정을 쏟아붓는다면 본신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써낼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서한에서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이 작품창작활동에 적극 참가하는것과 함께 이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오늘 근로자들의 창작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있으며 문학통신원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통신원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몇몇 일군들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작가동맹적인 사업으로, 전체 작가들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서한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군중문학창작을 지도하여 작가후비를 키우는 사업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작가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롭고도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에 나가 군중들에게서 배울뿐아니라 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도와주며 그들속에서 새싹을 찾아내고 그들을 재능있는 작가로 키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문학통신원들을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빨리 높여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문학통신원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한다고 하여 그들의 작품을 대신 써줄것이 아니라 그들이 쓴 작품을 보고 구체적인 의견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작품을 제힘으로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도들에서 해마다 조직하는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창작강습을 잘 준비하여 실속있게 운영하며 문학통신원들이 창작활동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도록 창작조건을 사회적으로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학통신원들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이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문학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력사적인 서한은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이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예강령이며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제시한 귀중한 문헌이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문학작품창작에 대중적으로 참가할수록 우리 작가들앞에는 그들을 옹계 이끌어주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더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펼쳐나섬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 참신하고 깊이있는 군중문학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상봉

김수범

## 1

단풍이 들었던 황금빛 이파리들은 땅에 다 내려앉았다.

밀영의 오솔길들과 림간지들, 병실주변의 공지들과 분비, 가문비나무밑에도 화려한 락엽의 주단이 한벌 쪽 깔리었다.

숲속은 밤에도 전혀 캄캄하지 않았으며 낮에는 원시림의 무성한 지붕밑이 신비로운 꿈속처럼 한결 흰하게 느껴졌다.

사령부로부터 얼마쯤 떨어져있는 통신처의 지붕에도 락엽은 푸짐하게 내려쌓였다. 얼핏 보면 농가의 지붕에 잘 익은 낱알과 고추를 널어말리우는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투박한 초막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었다. 어깨에 기병총을 멘 너대원이 나왔다. 금실이였다.

키가 훨씬 크고 몸매 또한 보기 좋게 균형이 잡혀 퍼그나 수더분한 인상을 주었다.

초막안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는 《사향가》였다.

이제 곧 퇴골령의 후방밀영으로 떠난 금실이로서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노래였다. 마음속으로 그 노래를 따라부르는것 같던 금실은 두눈을 습벅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꿈결에도 그리운 어머니의 품으로, 고향으로, 조국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도 어데 가나 잘 싸우라 타일러주시는듯한 그 노래에 금실의 두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왜 이럴가...)

금실은 애써 헝클어진 자기 마음을 정리하듯 두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더니 초막안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정숙언니! 아직 멀었어요. 배낭도 오래 꾸리네. 제발 인젠 그만하고 나와 저걸 좀 보세요. 밖에서는 돌개바람이 굉장하게 불고있어요.》

안에서는 《사향가》대신에 맑고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핑장해두 돌개바람이겠지...》

《아이참! 이 순간만 지나가면 다시 볼수 없는...》

먹은 나이를 다 잊은듯한 금실의 목소리에는 일종의 교태가 어려있었다. 밖에 술한 피꼴새무

리가 날아왔다고 했다.

안에서는 또 김정숙동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철새들이 백두밀영을 강남으로 안 모양이지요.》

두번째로 열린 초막문으로는 손에다 금실의 배낭을 드신 김정숙동지께서 나오시였다.

웃음으로 환히 밝으신 얼굴, 타는듯한 눈길, 군모밑의 중발은 랑만의 상징처럼 훗날리고 탄력이 느껴지는 군복차림에서는 그 어떤 광대한 환희가 나래치시는듯하였다. 탐스러운 애솔들과 정가로운 흰옷차림의 봇나무들도 갑자기 소문을 듣고 초막주위에 모여든것 같았다 푸른 하늘에 피어나는 흰 구름도 희망에 실려 똥똥 떠있는게나 아닐가.

금실이 그 피꼴새무리라고 말한, 돌개바람에 휘말려올랐던 락엽들은 가볍게 굼니면서 오래도 내려온다.

《무슨 배낭이 그렇게 불러요?》

《넣은것없이 부른게 배낭이에요. <너장군>이 요만한 짐이야 못질라구...》

배낭을 넘겨받으려는 금실을 손으로 막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식대를 향해 통신처의 언덕을 내리시였다. 락엽은 발목을 묻는다.

《저를 또 그렇게 부르세요?》

금실은 《너장군》이라는 말에 얼굴을 붉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순박한 그 마음씨가 리해되시여 조용히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껏 식칼을 들고 와 기어이 유격대에 입대시켜 달라던 금실을 기억하고계셨으며 북만에서 있었던 어느 전투때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계시였다.

...적아가 서로 탄알이 떨어지자 전투는 더 치열해졌다. 총창을 비껴든 《토벌대》한놈이 소대장의 뒤로 접근하였다. 금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금실은 마구 손에 잡히는대로 가독나무를 와락 뿌리채 뽑아들더니 번개처럼 원쑤의 뒀잔등을 후렷던것이다...

금실은 김정숙동지를 따라 락엽을 밟으며 그때 일을 설명하였다.

《사실 그 가독나무뿌리는 겉씨 붙여있었던것 같애요.》

금실은 언젠가 혼자서 그보다 훨씬 작은 가독나무를 뽑아보다 말았다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실눈을 지으시며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금실이라도 웃었다.

작별의 시각에 금실이 웃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적개심이 불타면 무서운 힘이 생기는 법이예요.》

《누구나 그런 일은 한두번씩 다 있었답니다. 유독 나한테만 그런 별호가...》

《나는 우리 대오에 금실동무같은 <너장군>이 더 많았으면 해요.》

《?!...》 금실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두눈에는 갑자기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지고있었다. 그 눈은 진실을 말하는것 같았다.

《좋아요. 제가 <너장군>이에요. 그럼 저에게 맨 먼저 총쏘는 법을 배워주고 행군이 힘들어할 때에는 배낭을 메여주고 전투에 처음 참가하여 어쩔줄을 몰라할 때에는 곁에 와서 저의 답을 키워준 언니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불러야 해요?》

금실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목메임에 도간도간 끊어지는 소리로 그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무슨 칭호나 훈장 같은것을 수여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남들이 보라고 가슴에 다는것만 훈장인줄 아세요. 우리의 군복과 무장이 훈장이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라는 그 말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칭호인데...난 여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금실은 이내 얼굴을 붉히었다.

듣고보니 옳았다. 창피하였다.

마침 누군가 소리나게 락엽을 밟으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눈만 살아남은듯이 수척한 얼굴, 람루한 군복차림, 다 판이 난 지하족...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놀라우신 표정으로 몇 발자국 마주 걸어나가시었다.

《아니 저를 모르시겠소?》

사나이는 인사를 올리었다.

그를 알아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금 크게 놀라시며 두손을 마주 잡아주시었다. 몇달전 삼포밀영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2련대와 3련대를 찾아 교하쪽으로 떠났던 통신원이었다.

2차 북만원정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도회의를 여시고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끄시기 위한 로선을 제시하시었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드시고 지난 5월 동강으로 나오신 그이께서 모든 애국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하기 위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시 부대를 조국땅이 지척인 압록강연안으로 이끄시여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는 한편 교하쪽에서 고생하는 련대들을 급히 데려오시기 위하여 떠나보낸 이 통신원을 매일 기다리곤 하셨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사정을 두루 아셨기때문에 잡아온 통신원의 손목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의 얼굴과 옷차림에서 모든것을 력력히 읽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2련대와 3련대의 소식을 물으시었다.

《이리로 오고있소. 늦어도 아마 하루이틀 사이에는 도착할거요.》

통신원은 내도산에서 자기가 먼저 왔다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기뻐하시었다.

《기어이 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기려는 희망이 있어 모두 죽지 않고 살아오고있소.》

김정숙동지께서는 통신원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시었다. 더군다나 통신원이 신은 신발에서 그 대오의 행군상태를 그대로 가늠하고계셨으며 몰라보게 수척한 그 얼굴에서 그들모두가 기아의 사선을 넘어오고있다는것을 죄다 짐작하고계시었다.

어데선가는 씩씩한 하모니카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 신병훈련이 한참인듯한 구령소리, 격발기를 제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발길을 옮기시면서도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장백으로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셨으며 교하에서 오는 그 대오에 반드시 있어주시기를 바라시는 한 사나이의 이름도 상기하시었다.

그 사나이는 그이께서 만나본적도 없으시고 얼굴도 전혀 모르시는 사람이었다.

금실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강운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었으며 기골이 장대한 그 사나이가 도끼 하나로도 하루에 집을 한채씩 지어내는 유명한 《도끼목수》이고 재봉기로 옷을 만드는 솜씨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라라는것을 아시고계셨을뿐이였다.

금실이 열렬히 사랑하여 약혼도 하고 혼주도 쓰고 결혼할 날까지도 다 받았다가 놈들의 《간도토벌》때 서로 헤어진후 소식을 모른다는 강운삼은 이미 김정숙동지의 상상속에 하나의 실재처럼 살아움직이고있었다.

달빛아래 밀영의 오솔길을 같이 거니시거나 동녘이 밝아올 때까지 함께 일하신 밤이며 불없이 캄캄한 초막에 나란히 누워 들으신 금실의 이야기는 어느것이든 다 김정숙동지께 가슴이 아프시었다. 더군다나 강운삼이 동만 어디에선가 유격

대에 입대하여 잘 싸운다는 소식을 흐리마리한 꿈결에서처럼 얻어들은지 얼마 안되어 금실은 또 그가 《민생단》이라는 실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었다. 금실이 그 애인이었던 까닭에 《너도 민생단》이라는 루명을 쓴 그 기막힌 사연만은 김정숙동지로서 하여금 들으시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하시었다.

죽어도 뛰다가 죽을 결심을 품고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와 혁명가의 생명인 그이의 고귀한 믿음을 다시 받아안았을 때에는 같이 붙잡고 울어주신 분이 바로 김정숙동지이시었다. 금실이로 하여금 그전날의 자기를 되찾게 해주신분도, 함께 나눈 이야기와 눈물과 노래로 마음의 위축이라는 상처를 가시게 해주신분도 김정숙동지이시었다.

금실은 이러한 은인의 결을 떠나는것이다. 물론 아주 가는것도, 먼곳도 아니라는것을 금실은 자신에게 납득시키는듯하였으나 마음은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붓나무가지를 휘여잡으시더니 걸음을 멈추시었다. 통신원을 돌아보시었다. 눈치빠른 금실은 저만큼 걸어간다.

《그 교하에서 오는 대오에 혹시 강운삼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통신원은 영문을 몰라했다.

《나는 그저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병약자들과만 내내 같이 오다니니》

(그러니 강운삼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헤메고 있단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실의 뒤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사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여러 차례나 금실이 몰래 강운삼의 행처를 알아보시느라 사방에서 활동하는 별동대들에 은근히 알아보군하시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그를 찾고계신다는것만은 모르고계신 김정숙동지이시었다.

《그럼, 난 먼저 가보겠소. 군수관한테 가서 군복부터 갈아입어야겠소.》

통신원은 갔다.

작식대앞에서는 벌써 후방밀영으로 떠날 녀대원들이 금실을 기다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실을 보기가 민망하시었다.

《금실동무!-》

이렇게 불러세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금실의 결으로 다가가시었다. 금실의 군모와 기병총의 비탈린 부혁을 애정어린 손길로 바로잡아주신 그이께서는 쓰린 눈을 습벅이시었다. 그러시더니 배낭끈을 량쪽으로 벌리시여 금실의 잔등에 지워주시었다.

금실이 얼른 배낭을 질머지자 그이께서는 잠간만 기다리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엇을 떨구신듯 통신처의 언덕으로 다시 오르시었다.

금실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숨이 차게 다시 돌아오시었다. 그러시더니 그이께서는 금실의 가슴에 무엇인가 꽃보자기에 싸것을 안겨주시었다.

금실의 두눈은 의혹으로 빛났다. 영문을 몰라했다.

《아니, 이건 뭐예요? 예?! 제가 무슨 몇천리밖으로 아주 가는가요.》

금실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별게 안예요, 사실은 이답에 주자고 마련한건데... 그저 내 마음뿐이니 가지고 떠나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실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더니 다시금 손목을 잡아주시었다.

그이께서 금실에게 주신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동지에 대한 믿음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믿어주신 금실의 애인을 김정숙동지께서도 믿고싶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따라 혁명에 한생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의 사랑은 이성적인것이기에 앞서 신념의 공통성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기때문이었다.

숨을 죽인채 고개를 돌리던 금실은 그만 《내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하는 《사향가》의 첫 구절이 불현듯 생각나서 와락 김정숙동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흐느껴울었다.

《언니가 이러시지 않으면... 제가 언니의 마음을 모를것 같았어요.》

《됐어요. 됐다니까. 저기서 모두 기다리는데...》

《정숙언니! 전, 전 가겠어요. 언니의 결을 떠나가겠어요... 부디 안녕히!...》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실의 모습이 시야에서 아주 사라질 때까지 그냥 서서 바래여주시었다.

## 2

교하에서 온다던 련대들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식량을 한집씩 골박아 짊어지고 그들을 마중간 사람들도 감감 돌아오지 않았다.

밀영은 그들을 맞이할 순간만을 초조히 기다렸다.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제밤도 표박 지새우시었다.

군수관과 교하에 갔던 통신원의 발기대로 그이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술한 세면주머니를 꾸리시었다. 매 사람에게 세수수건과 비누, 치약, 치솔, 지어는 쇠통에 넣은 담배까지 다섯갑씩 넣어주시느라 군수관과 함께 후방창고를 털다싶이한 그이께서는 또다시 아침부터 작식대에 나가시었다.

다.

《정숙동무! 반찬은 어떻게 할가?》

작식대책임자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맛있게만 하면 된다고 하며 소탈하게 웃으시었다. 작식습씨가 유별나신 그이께서는 구수한 토장국에다 보리밥을 말아 얼얼히 먹을수 있게 하자고 하시더니 작식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작식대원들은 모두 활기를 띠었다. 듣기만 해도 얼얼해서 땀이 나고 그런 음식을 먹으며 자라던 고향집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토장국에 넣을 산나물과 잘 익은 햇고추를 썰기 시작하신 김정숙동지의 유명한 칼장단소리며 녀대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까지 울리자 작식대의 흰 풍막천은 그래서 바람 없이도 펄럭이는것 같았다.

《앙이, 저게 뉘기요? 장백에 갔던 <기계다리>가 앙이요?》

누군가의 말에 일손을 멈추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언덕아래를 내려다보시었다.

틀림없었다. 소문난 익살꾼인데다가 걸음이 빨라서 《기계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령부의 전달장은 군모를 벗어 신문호외처럼 흔들며 환성을 울리고 대원들은 사방에서 그리로 달려갔다.

《사령관동지께서 일제를 크게 족치셨다는 소식이 아닐가?》

작식대책임자의 말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계시었다.

작식대책임자는 끝내 달려내려갔다.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작식대책임자를 훨씬 앞서 달리고있었으나 그이의 다감하신 칼장단소리만은 잦은가락으로 울리었다.

밥지를 차비를 하던 녀대원 하나가 곁으로 다가왔다.

《저는 보리밥을 짓기가 제일 힘들어요. 잘못하면 죽밥이 되고 그렇지 않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말에 웃음으로 공감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벌써 여러개의 밥가마들을 돌아보시며 물을 맞추시었다. 많은 밥을 짓기란 까다로운 법이다. 원래 보리밥을 잘 짓는 머느리가 되자면 백번은 울어야 한가지 않는가.

《불을 지금 지펴서 일 없을까요?》

《지펴야 해요. 그래야 더운밥을...》

김정숙동지께서는 2련대와 3련대가 지금쯤 어디까지 왔을가를 가늠하시면서 보리밥이 잦는 시간과 맞추고계시었다.

교하에 갔던 통신원을 통하여 련대들의 행군속도를 짐작하신 그이께서는 여기서 내도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신것이다. 결국 그 대오는 사흘전

부터 김정숙동지의 상상을 따라 흘러오는셈이었다.

《정숙동무! 군수관아바이가 찾아왔소.》

밖에서 장작을 안고 들어온 녀대원이 김정숙동지께 전하는 말이었다.

그이께서 급히 밖으로 나오시자 늘 눈이 먼저 웃는 농민형의 구수한 군수관이 편지를 전하었다.

《되풀령에서 첫 겨울군복이 운반돼왔소. 금실이 그 인편에 편지를 보내더라는군.》

군수관은 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처 젖은 손을 흠치실 사이없이 편지봉투부터 뜯으시었다.

얼마나 반가우신지 모르시었다. 눈에 익은 글씨들에서는 조용한 금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것 같으시었다.

그리운 언니에게!

철없이 속태워드린 생각을 하면 이제야 후회로 가슴이 아파요. 헤어지던 날도 저는 언니가 주신 그 보자기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밀영에 와서야 그것이 남자군복이라는것을 알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글썽 소식조차 모르는 강운삼동무를 위해, 이 금실이를 위해 째뼉이 그 군복을 지으셨을 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어요... 재봉대원들도 다 울었어요. 울면서 밤새워 재봉기를 돌렸어요.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 새 군복을 입은 남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던 저의 마음속을 언니는 어쩌면 그렇게 다 들여다보셨어요... 언니가 주신 그 사랑은 저의 힘이 되어 지금은 노래를 부르면서 재봉기를 돌려요. 교하에서 온다던 련대들은 왔는지?... 이제부터 되풀령에서 나가는 군복은 이 금실이고 언니와 동지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1936년 10월×일. 금실올림.

편지는 끝났다. 이제는 노래를 부르면서 재봉기를 돌린다는 대목을 다시 읽고 또 읽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결 마음이 놓이시는듯 편지를 봉투에 넣으시었다. 손수건으로 얼른 눈자위를 훔치시었다.

책임자가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려올라왔던것이였다. 그는 숨이 차서 겨우 말을 번지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장백현 대덕수전투를 크게 이기셨다오. 지금 온 장백땅이 부글부글 끓고 국내의 인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른다는구만...》

몸이 좋은 작식대책임자는 기쁨에 숨이 차서 평당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실로 기쁘시었다. 금실이가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좋아하랴.  
 그런데 갑자기 또 환성이 터지었다.  
 술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도방향의 언덕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온다! 교하패들이 온다아!-》  
 《에그, 이거 어찌갱...》  
 작식대책임자가 용수철튀듯 일어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그러시더니 교하에서 오는 련대들을 마중하시려고 서두르시었다.  
 그날저녁, 하늘에는 노을이 비끼었다.  
 그 노을아래 수림은 믿음직한 위병들처럼 총총히 서있고 사방이 흰하게 느껴지는 나무밑둥사이로는 새 군복을 갈아입은 2련대와 3련대 동무들이 구수한 담배들을 피우면서 이제나저제나 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시기만 기다렸다.  
 단번에 큰 식술을 맞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웅근 한나절을 바치시어 그들을 다 돌아보시었다.  
 은근히 상상속에 낯익은 사람을 찾고계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종내 《도끼목수》라고 짐작되는 사람을 찾아내지를 못하시었다.  
 이제는 저녁식사준비에 바쁠 작식대의 일을 돌보셔야 했다.  
 벌써 작식대에서는 여러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의 체취같은 밥짓는 냄새가 풍겨온다.  
 작식대앞에서 틀지게 생긴 웬 사나이가 장작을 패고있었다. 시퍼런 도끼날이 수양에 번쩍인 다음에는 웅이투성이의 통나무도 수박처럼 빠개지고 도끼밥이 바람개비소리를 내면서 포물선을 그었다.  
 그는 작식대 내대원들을 살피곤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호기심에 손목을 잡히신듯 그리로 발길을 옮기시었다.  
 옷차림으로 보아 교하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쉬셔야 해요.》  
 그이께서는 사나이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으시었다.  
 노을빛을 받아 붉어진 사나이의 얼굴에는 어떤 고민비슷한 표정이 착잡하게 어려있었다.  
 《그런데 군복은 받지 못했는가요?》  
 《받았습니다.》  
 《그럼 왜 갈아입지 않으셨어요?》  
 《.....》 사나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천천히 갈아입지요.》  
 자기의 밀간도끼를 꿈무늬에 차던 사나이는 딱한 질문과 어색한 자리를 피하듯 자기 발자국을 세는 사람처럼 언덕을 터벅터벅 맥없이 내려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뒤모습을 한참이나 유

심히 지켜보시었다.  
 이튿날이었다.  
 대원들의 저녁식사는 보름달이 솟아오를무렵까지도 계속되였다. 달마저 배부른 농군의 흐뭇한 얼굴같았다.  
 숲속의 여기저기에서는 유쾌한 톱담갈기도 하고 끝없는 회포갈기도 한 모닥불들이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작식대에서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쪽 분비나무밑에 유독 외파로 지퍼놓은 모닥불을 바라보시었다. 두사람만이 마주 앉아있는 그 모닥불가에는 웬일인지 침묵이 흘렀다.  
 어찌보면 무엇을 두드리는것 같기도 하고 짙는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보면 그 모닥불가에도 제나름의 생활이 있었다.  
 그렇다. 이 숲속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살고있지 않았더라면 백두밀림이 얼마나 공허하였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시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따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누구한테 앞을 막히우신듯 걸음을 멈추시었다.  
 모닥불가에 마주앉아 서로 조용조용 주고받는 두사람의 이야기가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들리셨기때문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었다.  
 《대관절 자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영? 늘 우울해서...》  
 《본래는 나두 명랑한 사람이었소다. 마음의 날개가 부러지구 보니 자연 이렇게 되더라말이오다... 글썽 하필이면 액죄한 나한테 <민생단>헛걸을... 내가 만문했든지, 무서웠든지, 애명하다는거야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니 버선목이라구 번져보일수두 없구 후우!》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이 어리시었다. 들으시고보니 자신께서도 여간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시었다.  
 한사람은 작식대에서 나무를 패던 사나이고 다른 하나는 2련대와 3련대에 강운삼이 없던 통신원이었다.  
 (저 사나이는 그래서 장작을 팸 때에도 얼굴에 수심을 끼고있었는가?...)  
 두사람을 번갈아보시며 기대와 실망의 공간을 마음속으로 거니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떤 의혹이라도 느끼신듯 실눈을 지으시었다.  
 분명 깊은 생각에 잠긴듯한 그 사나이는 지금 밀간도끼로 자기의 잡념을 깎듯이 술한 저가락과 밥주걱을 만들고있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닥불가로 다가가시었다.  
 (식술이 늘어난 작식대에 저가락과 밥주걱이 모자라는줄을 저 사나이가 어떻게 알았을가.)

《누구요?!...》 통신원이 머리를 들었다.  
 《숨씨가 놀라워서 지나가다 들렸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닥불에 자신을 비쳐보이시며 무릅없이 웃으시었다.  
 《아. 난 누구라구...》  
 통신원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나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다.  
 《체격은 대짜지만 여간 찬찬하지 않다오. 그래서 모두 <강목수>, <도끼목수> 하는데.》  
 통신원은 활기를 띠고 설명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시었다.  
 《아니, 뭐 ...<강목수>라구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껏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누갓히시었다. 그이께서는 모닥불가에 조용히 앉으시었다.  
 영문을 모르는 통신원만이 이렇게 뒤말을 덧붙였다.  
 《모두 그렇게들 통하더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답이 없으시었다.  
 《도끼목수》가 꺾아놓은 밥주걱들을 매만지고계셨을뿐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중하시었다.  
 《한가지 물겠어요. 혹시 금실이이라구 모르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하신 어조로 물으시었다.  
 순간, 《도끼목수》는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혀를 잃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였다. 입가에 가벼운 경련만이 일뿐이였다.  
 《금실이이라구요?!》  
 사나이는 자기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듯이 겨우 한마디 했다.  
 그러나 그 말의 참뜻만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럼, 강운삼이라고도 모르세요?》  
 《예?!...》 사나이는 그만 넋이 없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았다. 그러더니 그는 깊은 땅속에서라도 울려나오는듯한 그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을 올리였다.  
 《제가, 제가 바로 강운삼입니다... 어떻게 저의 ... 숨겨온 이름까지 예!》  
 두눈을 습벅이는 사나이결에서 통신원은 어쩔줄을 몰라했다.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정숙동지의 눈빛은 확확 타오르는 모닥불에 유난히도 빛나였다.  
 이미 목이 메어버린 강운삼은 막혔던 말문을 조심조심 열었다.  
 《금실동문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저 때문에...》  
 진실을 말쑤해달라는 강운삼의 그 울부짖음은 너무도 침통하게 울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간고한

것이 조선혁명이라고 생각하시었다.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애인의 무덤을 안고 눈물로 사선을 헤쳐왔을 강운삼이 아닌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차마 강운삼의 얼굴을 가슴이 아프시여 쳐다보실수 없으시었다. 자꾸만 눈곱이 찌릿해오시었다. 측은하면서도 기가 막히시었다.  
 혁명투쟁에서 술한 혈육과 동지들을 잃어보신 그이시지만 서로 이렇게 찾아헤매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면 늘 가슴이 아프시었다. (이 일을 금실이 가 안다면, 강운삼의 형제들과 자심한 그의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쓰릴것인가...)  
 《금실이 가 우리 금실이 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기나 하세요?... 혁명을 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만, 혁명의 총소리가 높은곳에서만 찾아야 해요. 소문을 따라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서는 찾지를 못해요.》  
 이 한마디를 남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강운삼을 보시자 금실이 생각이 더 나시여 그만 모닥불가를 떠나시었다. 만약 이 순간, 금실이 가 곁에 있으면 와락 그러안고 불을 비비고싶으신 그이시였다.  
 강운삼은 그이를 따랐다.  
 통신원도 달려갔다. 모두 따라갔다.  
 임자없는 모닥불만이 집어던진 강운삼의 도끼를 비쳐주었다.

### 3

두개 련대는 사령부의 언덕아래에 정렬되어있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지여서 정렬된 련대들의 대오속에는 몇그루의 이깔분비들이 교하에서 같이 온것처럼 드문드문 섞여있었다. 잠시후, 그들은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영접하게 된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모진 추위와 굶주림과 가렬처절한 결사전의 언덕을 피로써 넘어온 련대들이였다. 굶어서, 얼어서, 적탄에 쓰러져 함께 오지 못한 대원들의 유언과 념원을 안고 기어이 살아온 련대들이였다.  
 그들의 가슴은 바람을 안은 장풍처럼 한껏 부풀어있었다. 결핍하면 궁지와 감격에 겨워 울수 있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경건한 마음이 되여 사령부의 출입문을 지켜보고있다. 그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어제밤, 밀영으로 돌아오신줄을 전혀 몰랐다.  
 준엄한 싸움을 이기신 그이께서 주무심도, 위심도없이 단잠에 든 자기들의 잠자리를 친히 돌아보신줄을 꿈에도 몰랐었다. 벌써 장백에서 자세한 소식을 듣고 오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밀영에 도착하시자마자 교하에서 온 동무들중에 앓는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알아보시였다. 것처럼 뜨거

운 그이의 손길이 자기들의 모포자락을 여며주고 베개를 바로 베워주신줄을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안 그들이었다. 자기의 잠과 지휘관을 원망하며 왜 깨우지 않았는가를 목메어 묻는 그들에게 보조병도 두눈을 습벅였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이었다고 대답했던것이다.

백두밀영의 《토착주민》 격인 사령관동지의 친솔부대성원들은 2련대와 3련대의 영접보고를 구경하려고 주위에 거의다 모여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렬된 대오속에서 아까부터 강운삼을 찾고계시었다.

보이지 않았다. 방금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강운삼의 대답만은 들을수 없으시었다.

(어데 갔을가. 이제 곧 장군님께서 나오실텐데... 연락을 못받았을가?)

무척 애타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을 조이시다못해 강운삼을 찾아 떠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밥주걱과 저가락을 깎아준 사람을 못봤느냐고 물으시었다. 아직은 서로 이름을 몰라도 강운삼은 자기의 성실한 로동으로써 이미 모든 사람들과 친숙해졌었다.

《아니, 그를 찾으세요? 또 어데 가서 무슨 일손을 잡았겠지요.》

《그렇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시간이 촉박할수록 속이 무척 상하시었다.

《방금 사령부쪽으로 모두 갔으니 거기에 있겠지.》

《없어서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짧은 시간에도 있음직한곳은 다 돌아보시었다. 아무데도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도로 사령부쪽으로 급히 가시었다.

마침 작식대책임자가 마주 다가왔다.

《벌써 나한테 물어보지비...정렬된 대오에는 없고 조금 뒤쪽으로 들어가 개박달나무들이 서있는 곳에서 혼자 사령부를 바라보고있습데.》

초조하신 시선으로 다시 사령부쪽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에 짊이는것이 있으시여 작식대책임자가 알려준 그리로 달려가시었다.

사실이였다. 강운삼은 정렬된 련대들의 기본대오로부터 조금 뒤에 떨어진 개박달나무숲속에서 혼자 사령부를 우러러보고있었다.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다가가는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만 깊이 빠져있는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소리쳐 부르셨을 때에야 비로소 강운삼은 반가움에 겨워 얼마쯤 다가오더니 그만 나무밑등을 그려안으며 고개를 돌리었다. 마치 혼자서 참아오던 슬픔이 고귀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이 순간에 견줄수 없이 북받쳐오른것 같았다. 강운삼은 터슬터슬한 나무밑등에 이마를 비비더니 이상한 소리를 터뜨렸다. 그는

마구 몸부림을 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바람은 락엽의 이랑을 밀어다 그이의 발목을 묻고 이파리 없는 가지들은 부절히 설레었다.

그이의 얼굴에는 준엄한 싸움터에서나 무수한 처창츠의 나날들에서마져 사라지실줄 모르시던 웃음이 전혀 어려있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강운삼의 곁으로 다가가시었다.

《자기를 덮어놓고 어루만지는 사람이 어데 어요. 한번 금실의 눈으로 자기를 좀 굽어보세요...》

련대들은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 영접보고를 올리려고 모였는데 이게 글썽 뭐예요.》

부드러우시면서도 어텐가모르게 준절하신 그이의 말씀에 나무를 그려안았던 강운삼의 팔각지는 든든히 매지 못한 타리개처럼 스르르 풀리었다. 그는 돌아서지 못하였다. 그저 어텐가 먼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울부짖었을뿐이였다.

《저를... 저를 리해하여 주십시오. 술한 고생을 하면서 따라온 2련대와 3련대에도 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대오에 들어서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긴 그 대오에는 저를 보증할만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강운삼의 그 말까지 듣고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를 찾지 못해 몸부림치는 이 인간이 못내 가공하시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듯이 그이께서는 도리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만 어성을 높이시었다.

《도대체 무슨 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자신에 대한 보증은 자기 량심이 서야 하고 자기 생활이 서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민생단>도 악랄한 주구나 밀정도 그처럼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그것도 몇달씩 산발을 타고 교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오지 못해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혁명적인 신념으로써만 울수 있는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이였어요... 그런데 과연 무슨 보증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열화처럼 울리시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그이의 가슴은 지금 미여지는것 같으시었다.

《예?! ...》 가슴이 몽클해진 강운삼의 두눈에는 급기야 눈물이 가득 피여 올랐다.

사령부쪽에서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아니 폭발하였다. 갑작스레 폭발한 그 만세소리에 고요를 숨결처럼 지켜오던 밀림이 설레이고 바위들이 입을 열었다.

어마어마한 메아리는 끊임없이 련발하며 산재들을 공중으로 까맣게 날려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동지들이 생각나시여 연신 두눈을 습벅이시었다.

련대들의 만세소리에 흐느껴들던 강운삼도 자



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령부의 초막을 나서시자 마구 그 자리뼉을 하며 머리에 쳐든 두손을 무슨 기발처럼 흔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렬한 대오를 향해 활달하신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시었다. 온 숲속이 밝아지도록 만족한 웃음을 지으신 그이의 자주빛 싸창목갑은 가락맞게 흔들리고 언덕위에 높이 서신 그이의 배경으로는 흰구름이 피어나는 하늘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세의 환호를 제지하시자 설레이던 숲도 고요해지고 공중에 날아올랐던 새들도 하나 둘 보금자리에 깃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었다.

《동무들! 나는 사령부의 명령대로 교하에서 여기 백두산밀영에까지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무사히 도착한 동무들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손을 높이 들어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련대들은 다시 환호를 올리었다.

《만세!》

《만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교하에서 오신 심정으로 열렬히 만세를 부르시며 《도끼목수》인 강운삼을 찾아내시던 생각,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금실이 생각을 하고계시었다.

밤에 밝은것이 달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무색하였다.

넓다란 공지에 잔뜩 지퍼놓은 모닥불들은 노을빛으로 온 숲속을 물들여놓았다.

2련대와 3련대를 축하하는 연예공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조되었다.

온 공간에 차고넘친것은 오직 감격과 환희뿐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노래와 춤을 즐기시는 김정숙동지이시지만 그이께서는 지금 전혀다른곳인 사령부의 언덕아래에 혼자 서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끝없이 초조하신 마음으로 한참씩 사령부의 초막을 올려다보시다가는 다감한 자신을 달래시듯 서서히 공지를 거닐곤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억울하게 루명을 썼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중에서도 강운삼을 더 기다리고계시었다. 몇시간전에는 어려움고 황송함을 금치 못하면서도 삼가 위대한 장군님께 강운삼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올리신 그이께서 지금은 그가 이제나저제나 나올것을 기다리시며 마음을 조이시고계시었다.

과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마침내 사령부의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뒤이어 문전보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이시었다.

《알았습시다. 어서 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하신대로 하십시오.》

그러더니 누군가 급히 언덕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달빛의 도움을 받으시며 시력을 모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시었다.

강운삼이었다.

(사령부에 들어가자마자 왜 도로 나오고있을가?!...)

《아니, 웬일이세요?!》

천만뜻밖인것은 강운삼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여기까지 나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 같았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왜 군복을, 군복을 갈아입지 않았느냐고... 군복을 갈아입고 와야...》

강운삼은 말끝을 흐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가슴이 뭉클해지시는 걱정때문에 더 묻지 못하시었다.

강운삼만이 밝은 달빛이 있어도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무그루를 건너차며 비틀거리며 군복을 건사한 병실쪽으로 달려갈뿐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전보초의 예리한 총창끝에 등근달이 장명등처럼 쏘여있는 사령부의 초막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시었다.

얼마후, 군복을 갈아입은 강운삼은 다시 사령부로 들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빛과 락엽을 밝으시다가도 또 사령부의 초막을 올려다보시곤하시었다.

시계추의 단조로운 흔들림소리처럼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이 순간에도 후방밀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금실이의 채봉기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있을것이다. (어서 그들이 기쁘게 만났으면, 감격적으로 금실을 만날수 있는 강운삼으로 되여주었으면...)

김정숙동지의 욕심은 끝이 없으시었다.

강운삼은 상기도 나오지 않는다.

통신처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감이 그이를 기다리고있었으나 강운삼을 만나보시기전에는 차마 자리를 뜨실수 없으시었다.

사령부의 초막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불밝은 사령부의 퇴창가에는 방안을 거니시는듯한 위대한 장군님의 건장하신 모습이 그림자로 비끼곤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웃음소리가 또다시 들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급기야 가슴이 탁 트이는데 같으셨는데 사령부의 퇴창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듯한 강운삼의 그림자가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로소 안도의 긴 숨을 내쉬

시였다.

기다리고기다리시던 사령부의 초막문이 열리었다. 장명등갈기도 하고 나이를 한살 더 먹는 설날밤의 초롱불갈기도 한 달빛의 애무를 받으며 마침내 강운삼이 나오고있었다.

본능적으로 몇발자국 마주 달려가시던 김정숙 동지께서는 강렬한 충격에 걸음을 멈추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프락으로 나오시지 않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웃기를 여미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손으로 밑둥이 실한 홍송을 쓰다듬으시었다. 그러시더니 명상에 잠기시듯 한참이나 달을 쳐다보시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고계시었다.

(거룩한 모습, 위대한 모습!...)

장군님의 그 은은한 노래소리는 그리운 조국의 방방곡곡과 사랑하는 겨레들의 가슴과 가보고싶으신 초가집들, 시내물들과 귀중한 그 모든것을 부드러운 달빛처럼 끌고루 어루만지는것 같았다.

광막한 백두밀림의 밤에  
유난히도 밝은 달을 바라보니  
조국산천이 그림구나  
아, 혁명을 위해 이 한몸 바쳐  
기어이 조국을 찾으리라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가슴이 몽클해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잃을번했던 사람을 되찾으시거나 믿음으로써 사람을 하나 도로 얻었을 때마다 저 노래를 부르시곤했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자위를 훔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냥 조용히 그 노래를 부르시며 2련대와 3련대가 있는 모닥불가로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어느새 강운삼이 김정숙동지의 곁으로 다가왔다.

《정숙동무! 기뻐해주십시오. 덕분에 이 강운삼은 사령관동지의 친솔부대성원으로 되였습니다. 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였습니다.》

겨우 이 말을 외운 강운삼은 연방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한손으로 심장을 그러쥐듯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모든것을 죄다 알고계셨습니다. 글썽 작식대에 가서 나무를 팬것도, 저가락과 밥주걱을 깎은것도, 못나게 통곡을 한것도 죄다 아시였습니다.》

《그래요?!》

김정숙동지의 음성도 급기야 갈리시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합니까... 좋은 일에는 모두 보증을 서주어도 미타한 일에

는 모두 개입하지 않더군요. 사내가 운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싶어 우는겁니다.》

강운삼의 이야기는 흐느낌때문에 동강이 나군하였다.

어린시절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러 간 날, 어머니가 이처럼 운동장에서 자기를 기다려주었다는것이다.

《입학시험을 치는건 이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 인것 같습니다. 보자기에 썬 언감자떡을 가슴에 품고 그냥 아들이 나올 때까지 철봉대앞에 앉아있었습니다.》

강운삼은 그 시절의 아이로 되어버린듯 마구 소리를 내어 흐느껴울었다.

《이 세상에 나를 이처럼 기다려주실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또 한사람을 새로 얻어보신 기쁨이 하도 크시여 손수건을 꺼내시곤하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줄곧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저더러 밀단도끼가 잘 드는가, 재봉기로 옷을 짓는 솜씨를 한번 보시고싶다면서 아침에 다시 만나 새로운 임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운삼은 울면서 웃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이제는 만시름을 놓으시었다.

《정말 좋은 밤이예요. 기막히게 좋은 밤이군요.》

《저는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과하군요.》

김정숙동지께서 웃으시자 강운삼도 웃고 둥근 달도 구름을 헤치며 따라 웃었다.

## 4

름름한 체격에 새 군복을 갈아입은 강운삼은 방금 몇몇 대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축복속에서 위대한 사령관동지로부터 무장을 수여받았다.

장백현 대덕수전투에서 로획한 일제놈들의 최신식 보병총이었다.

강운삼은 날개가 돋혔는지 탄사람처럼 활기를 띠었다.

《아, 총! 총이요. 총... 몇방 쏘보지 못한 완전히 새총이요. 이것 보오. 기름이 그대로 발려있지 않소.》

손바닥으로 총가목의 기름을 쓱 문대보던 강운삼은 공중에다 대고 조성 조문을 맞춰보는데 부러움을 느낀 2련대와 3련대의 대원들이 무슨 신형대포라도 구경하는것처럼 모여들어 한번씩 다 만져보았다.

《그저 만져보시오, 격발기를 제끼지 말고… 안 전장치를 다치리다, 탄알이 있소다, 탄알이 있어요.》

강운삼은 연방 아부재기를 쳤다.

《여보게, <강목수>! 그게 탄알인줄 아나? 일본 애들이지.》

《일본애들이 아니라 그놈들을 천당까지 데려다 주는 사도들이지.》

《천당은 무슨 말라죽은 천당이구, 사도는 무슨 썩어문드러진 사도야? 황천으로 가는 차표지.》

《옳거니!》

사람들은 떠들썩 웃어댔다.

강운삼은 부랴부랴 사람들을 헤치며 자기 총을 찾으려고 키돋음을 했다. 괜히 가만 내버려두었다가는 술한 손탁에 밀천을 잃을것 같았던 모양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뒤에서 그 광경을 다 굽어보시며 만족하게 웃으셨었다.

그이의 곁에는 세발 사진기를 든 《기계다리》가 서있었다. 본직업이 전달장이라면 사진업은 부업적인 《기계다리》다.

《자, 제격 자리를 좀 내주시우. 사진을 하는 사람한테는 광선이 제일 귀하답니다. 구름장이 가리우기전에 자!》

다부진 몸집에 너부죽한 철색의 얼굴을 가진 《기계다리》가 시물시물 웃으며 어깨와 사진기로 사람들을 밀치자 모두는 뻥해졌다.

《먼저 강운삼동무의 독사진을 찍겠소다.》

《예? 나요…》

잠시 어리둥절해있던 강운삼은 김정숙동지와 전달장을 번갈아보더니 비로소 부랴부랴 어깨에 멘 보병총의 부력을 거머쥐며 감정을 잡고있었다.

벌써 《기계다리》의 머리는 사진기의 검정보자기속에 가리웠다. 그는 사진기에 달려 건들거리는 빨간 고무공을 손더듬으로 잡아쥐더니 눈을 감으면 심봉사가 된다고 업살을 부렸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번에는 교하에서 온 동무들이 다같이 찍겠습니다.》

《아, 가만!…》

강운삼이 문득 무슨 인권이라도 비는것처럼 머리에 손을 쳐들었다.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한장 찍게 해달라고 했다.

《기계다리》는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것처럼 들은듯만듯 그냥 제 고집만을 세웠다.

《나는 돈을 못받는 사진쟁이가 돼서 심술이 바르질 않소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것만큼, 있으면 있는것만큼 찍으니 그리 아시우.》

《기계다리》는 벌써 손에다 고무공을 쥐었다. 그러자 자기 런대에 몇사람이 빠졌다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느니 벅적 고아대던 패들이 자리를 잡느라 서둘러댔다. 잠잠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유쾌하게 웃으시고 《기계다리》는 어느새 사진기를 돌려매었다.

《아, 아니. 여보시오! 한장만, 한장만 찍읍시다.》

강운삼은 바쁜소리를 치면서 《기계다리》앞에 두팔을 벌리고 막아섰으나 사정에 꼬물만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필림이 다 나갔다는것이다.

《예?! …》 강운삼은 허무하였으나 《기계다리》는 벌써 저만큼 가버렸다.

《사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찍을수 있어요. 이제 금실동무랑 마음껏 찍자요. 그리구 지금은 사령부로 가야 해요. 장군님께서 강운삼동무를 찾고 계세요.》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귀땀을 하시였다.

《그렇습니까?!…》

두눈이 휘둥그레진 강운삼은 얼굴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일이 폐롭게 된다는 뜻이었다. 필림이 없는줄 알았더라면 아예 독사진을 찍지 않을걸 그랬다는것이다.

《그런게 아니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었다. 그이께서는 잊지 못할 백두밀영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혁명가로 다시 안긴 강운삼을 영원히 기념해주고 싶으셨었다. 그 사진을 후방밀영에 있는 금실이라도 함께 보도록 해주고싶으셨었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려움과 황송함을 무릅쓰시며 거듭거듭 생각하던끝에 금실이와 강운삼의 관계를 조심히 말씀올리셨던것이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어서 사령부로 가보세요.》

《알았습니다.》

강운삼은 갔다.

얼마쯤 지난 뒤 《기계다리》와 강운삼이 찾아왔다. 《기계다리》의 손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사진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벌써 뽑았군요. 사진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쁘신 얼굴로 강운삼의 독사진을 넘겨받으셨었다. 사진이 잘되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런데 약물을 충분히 빼지 못해놔서 한 20년 지나면 약간 누래질수 있습니다.》

강운삼한테는 그 말이 처음일수 있어도 김정숙동지로서는 매번 들으시는 이야기여서 웃음을 참으셨었다.

《그래, 떠날 준비는 다 되였는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두사람을 번갈아보시였다.

강운삼은 좀 침울한 기분이다.

《저는 후방밀영으로 떠납니다. 한바탕 원썬을 죽칠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실줄만 알았는데 재봉

대에 가서 글썄 마신질을...》

강운삼의 얼굴에는 점직스러운 표정이 어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웃으시었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재봉대에서는 부대의 겨울군복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진이 다 마르자 강운삼에게 넘겨주시며 잘 건사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동무를 왜 그리로 보내는지 알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건잡을수 없이 다감해지시는 눈길로 강운삼의 얼굴을 다시금 쳐다보시었다.

아니, 그 얼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을 찾고 계시었다.

그러나 금실이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기를 소망한 김정숙동지의 이야기에 의견을 달리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리어 강운삼을 후방밀영으로 보내야 마음놓고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나눌수 있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해주시었다.

그러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급기야 갈리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무가 가는 그곳에 금실이가, 우리 금실이가 있어요.》

《예?!...》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잊지 말자요.》

강운삼은 갑자기 머리가 무거워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얼굴에 무어라 이루어형언할수 없이 착잡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해주시었다.

《장군님께서 이 전달장동무한테 되풀령까지 길안내를 해주라고 명령하셨습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헛기침을 하시었다. 그러시더니 그이께서는 금실이가 간 되풀령쪽을 바라보시며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속삭이시었다.

《이제 금실인 울거예요. 마음껏 울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도 그만 뒤말을 잊지 못하시었다

숨을 죽이며 애써 참아온듯한 강운삼의 흐느낌 소리가 알릴락말락하니 가슴속에서부터 어떤 경련처럼 마구 뿔어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어깨에 멘 그의 보병총이 들먹이는 어깨우에서 해빛을 발산한다.

전달장도 고개를 돌리었다.

어려서부터 온갖 불행과 고통을 참아오시면서도 자기자신보다 늘 남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김정숙동지의 그 고귀하신 사랑의 력사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해발처럼 파사로운 그이의 손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어엿한

혁명전사로 자라났던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무슨 생각엔가 잠기시여 아무 말씀도 안하시었다.

(과연 언제면 뿔뿔이 헤어진 온 겨레가 이들처럼 다 만나게 될것인가...)

이윽고 그이께서는 다감하신 긴 숨을 내쉬시면서 두 사나이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어쩌면 그이께서도 금실이가 있는 되풀령으로 마음이 쏠리시었다. 그 마음때문에 그이께서는 두 사람을 바래여주시는것이였다.

《인젠 그만 들어가보십시오.》

강운삼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없이 웃으시었다.

《그것 보세요. 혁명을 하다가 잃어버렸던 금실동무를 결국은 혁명임무가 중요하게 수행되는 재봉대에서 만나게 되지 않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고계시였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함께 하시었다. 믿음이 있는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이 있는곳에 인간의 아름다움과 불타는 충성이 있는것 같았다.

그렇다, 하늘의 태양은 물질로써 열과 빛을 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쳐주는 해빛은 믿음이였다.

그 믿음이라는, 호상 신뢰의 룰리와 의리라는 따뜻한 해빛만이 무수한 인간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실이와 헤어지던 그 언덕에서 오늘은 다시 강운삼을 바래이시지만 이 리별이 하냥 기쁘시었다.

점점 멀어지면서도 그냥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보내는 강운삼의 모습이 점으로 작아졌다.

이제는 아주 숲속에 사라졌다.

금실이와 강운삼의 상봉을 눈앞에 그려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꿈속에서처럼 자기 사람을 만나게 될 금실이를 더 생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무도 없는 이 숲속에서 몰래 눈자위를 훑치시었다. 가슴속 깊은곳에 생겼던 그들의 상처가 가셔지고 보람찬 투쟁이 벌어질 일이 자신의 기쁨처럼, 행복처럼 느껴지시었다.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속에서는 도리어 노래를 부르시고 크나큰 상실의 슬픔앞에서는 굴하심없이 용감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적을 쓸어눕히시던 그이께서 동지들의 값비싼 행복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는 조용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계시었다.

고귀한 동지애를 지니신 그이의 마음처럼 오늘 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해빛은 눈부시게 찬란하였다.

## 가을

백철수

무거운 콩단짐을 지고 트랙에 들어선 오영삼은 가까스로 고개를 젖혀들고 두리번거리었다. 벌려놓은 콩마당은 텅 비어있었다.

《어디로 쏘다니는지 젠장!》

오영삼은 어깨를 짓누르는 지게짐을 쿵! 내치듯 벗어던지었다. 그 소리를 들은듯 방문이 열리더니 노끈으로 머리를 동인 마누라가 문턱을 짚으며 내다본다.

《여보, 태호가 돌아왔어요.》

《뭐? 태호가?!》

오영삼은 병색이 짙은 마누라의 얼굴에서 놀란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인사하러 왔더군요. 방금전까지 여기 앉아 당신을 기다렸는데, 글썽 제 동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데리고갔어요.》

《그래 길순이도 거기 물어갔소?》

《내가 보냈어요. 태호가 들어서는데 보고 뒤고 방에 뛰어들어가 눈곱을 훔치고있더라니...》

오영삼은 들을만하고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가슴 뭉클해지는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태호가 징용에 끌려나가기전에 벌써 머리를 없애주려고 했지만 험난한 세월에 하도 살림이 각박하여 성례를 치러주지 못한 딸이었다. 한때 한해가 넘도록 소식을 몰랐던 사람이 훌쩍 나타났으니 길순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그 애 오래비도 명이 붙어있으면 태호처럼 돌아오련만...》

(또 그 소리군.)

마누라의 푸념에 혼 혼해지던 오영삼의 가슴은 잔칫집 당하듯 쿵 쭈시었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주어들고 돌아서고말았다.

《사둔집엔 가보지 않으려우?》

《길순이가 갔으면 됐지 어 이딸이 경매들겠소? 돌아오면 콩마당질이나 빨리 하라구 이르요. 같이 않은 일감을 가지고 해구멍을 막겠소.》

오영삼은 지게를 한쪽어깨에 걸친채 뒤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토스레바지가랭이에 황이 든 설가랑잎이 말라버린 소리로 설그렁거린다. 잡관목을 헤치고 소나무숲가에 이르자 서덜밭이 나타났다.

오영삼은 밭기슭에 남은 콩단들을 지게에 처시고 앉아서 씨레기담배를 피워물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너머로 동해가 시원하게 띄여보인다. 가없이 푸른 바다...수평선위에 구름송이 하나가 추억의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 떠온다.

...지주놈의 등쌀에 쫓기위 황해도 나무리벌을 등지고 살기 좋다는 간도땅을 찾아가다가 여기 북관땅에 주저앉아버린지도 어언 20년, 거칠은 말투며 류다른 풍습에는 이미 익숙되어있으나 소작살이의 고달픔만은 지을길 없었던 원한의 세월이었다. 벌방지주보다 더 악착스러운 산골지주의 글쟁이질에 마당질때엔 늘 비자루만 들고 돌아서던 일, 행여나 그 쓰라린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지난해에는 아들 종근이를 데리고 여기 산속에서 부대기를 일구었는데 그것이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줄줄이야 ...황지주가 소작준 땅을 잘 다를 녀은 앓고 허가없는 땅을 일군다고 경찰에 고발하여 영삼은 못매질을 당했고 아들은 《죄인》으로 형을 지고서 고주와원철로공장에 끌려가 살인적인 노예로동에 시달리던 끝에 명을 지어버렸던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마누라는 울화병이 골수에 스며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며 태호를 사지판에 떠나보내고 가뜩이나 시름겨웠던 길순이는 얼굴이 까맣게 시로죽었었다.

그렇듯 숨막히던 세상이 뒤집혀졌다. 8.15해방!

**김일성**장군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일본놈들이 도망쳐가고 징병과 징용, 《보국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련속 돌아와 기쁨에 싸이게 하더니 이틀전에는 나라를 해방시킨 조선인민혁명군이 먼소재지까지 왔더라는 소문이 돌아 마음을 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또 1년째 소식이 없던 태호가 꿈처럼 나타난것이다.

해방의 나날은 이렇듯 새라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더해주건만 영삼, 자기에게만은 앞이 트일 날이 있어본것 같지 않다. 당장 량식이 떨어져 콩마당질이라도 해야 할 처지이니 사위감이 돌아왔어도 딸의 성례를 이루어줄 가망은 없다. 그저 제땅을 못가진 농민의 가슴에선 피멍이 풀릴길 없는것이 아닌가.

《아버지-》

느닷없이 울러오는 쟁쟁한 목소리에 오영삼은 내려다보았다. 길순이가 잡관목을 마구 헤치며 날듯이 달려오고있었다.

(신랑쟁이 왔대구 제정신이 아니군. 허지만 울 가을에도 틀렸어.)

들떠다니는 딸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하게 안겨와서 오영삼은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아버지!》

불러도 대답없는 아버지 모습이 안타까운듯 앞에 와 발을 멈춘 길순이는 입술을 감쌀며 지켜보

다가 소리쳤다.

《아버지두 참, 지금 집에 우리 군대가 와있어요. 빨리 가지자요.》

《?!》

생동같은 소리에 오영삼은 덩뎅히 땀을 쳐다보았다. 길순이는 안타까움에 겨워 금시 울상이 되더니

《우리 군대가 와서 콩마당질을 도와주고있는데 앉아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콩단을 쳐실은 지게에 제사 어깨를 들이밀고 언뜻 일어섰다.

《애 길순아.》

오영삼이 무슨 영문인지 알려고 허둥지둥 뒤따르며 불렀으나 길순이는 굴듯이 산기슭을 내리달릴뿐이다. 큰 콩단집이 저혼자 잠판목을 헤치며 떠가는듯싶었다.

(이들전에 우리 혁명군이 면에 왔다고들 하더니만, 그분들이 우리 집까지 오다니…)

가슴이 후둑후둑 뛰여 오영삼은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알수 없었다.

집앞의 개울가에 이르러 그는 벌써 자기 집 트랙에 벌어진 범상치 않은 광경을 띄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인 둘이 비자루를 들고 흠어진 콩마당을 쓸고있다. 문턱을 짚고 내다보는것이 고작이던 마누라도 토방에까지 나앉아있었다. 군복을 입은 녀성이 그곁에 다가앉아 무슨 이야기인지 주고받다가 콩단집을 지고 들어서는 길순이를 보자 얼른 다가와서 지게짐을 부축해주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길순이가 지게짐을 벗어놓고 아뢰자 그 녀성은 이번에는 오영삼에게로 마주 걸어나오며

《아버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방금 어머님한테서 살아오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아니, 무얼 이렇게 … 찾아주신 일만해도… 정말…》

오영삼은 인사가 거꾸로 된듯싶어 두서없이 뇌이면서 민망스레 쳐다보았다. 아직 30전의 젊은 나이로서 인정미 넘치는 얼굴은 피어린 싸움의 열화에 그을린듯 가무스레 탔는데 사람의 마음속을 밝게 비쳐울것만 같은 정기찬 눈빛과 어울려 그 모습은 저절로 이분은 보통분이 아나구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었다. 오영삼은 마누라를 돌아보며 슬쩍 눈총을 쏘았다.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뜻으로, 그러자 마누라는 당황히 손짓하며 서둘러쳤다.

《에그 내 정신 보랑이, 군대새기 집안에 좀 들어가 앉자구.》

《루추하지만 허물하지 마시구 어서 들어가시오다.》

오영삼도 곁들고나섰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마당질구경도 하게 되었는데…》

군복입은 녀성은 상냥스레 웃으며 다감한 눈길로 콩마당을 돌아보더니 처마기슭에 세워놓은 도리깨를 잡으시였다. 호기심으로 그러는줄로만 알고 웃음지은 얼굴로 지켜보던 오영삼은 그만 놀라운 빛으로 굳어져버렸다. 군복입은 녀성이 도리깨장부를 잡고 그 무게를 가늠해보다가 선뜻 콩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도리깨질을 시작한것이다. 허공에 뜬 도리깨아들이 뿜뿜 공기를 썰면서 내려지는데 그럴적마다 콩알들이 총알처럼 튕겨났다.

오영삼이 놀란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돌아보니 비자루를 잡은 두 군인은 즐거움에 뜬 얼굴로 지켜보기만 할뿐이다. 어리둥절해지는속에서도 미안한 생각이 앞서 오영삼은 군복 입은 녀성의 곁으로 황급히 다가나섰다.

《놓으시오다. 아무려한들 마당질까지야…》

《하고싶어서 잡아보는 일입니다. 저도 농사군의 딸이랍니다.》

《………》

오영삼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주뭉거리다가 자기도 도리깨를 잡고말았다. 말려내지 못할바엔 차라리 함께 일손을 잡는것이 상책일것 같았다.

오영삼은 마주서서 한참 쌍도리깨를 치다가 주위의 웅성임을 알아보았다. 군대가 와서 콩마당질을 한다는 나래돋친 소문을 듣고 달려온 남정들과 로인들, 부엌문가에 비켜선 젊은 녀인들, 어느사이 두 군인의 팔에 안겨 궁둥방아를 찢고있는 코흘리개며…군복 입은 녀성의 일숨씨를 지켜선 그 군상을 보자 오영삼은 스스로 자랑스러워졌다.

지난날 두만강을 바람타고 넘어온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에 대한 소문들, 왜놈군대를 무리로 쓸어눕혔다는 가슴뛰는 이야기며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보살펴주더라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어왔는데 오늘 직접 당하고보니 과연 그 큰데가 없지 않는가.

가슴 부푼 생각에 싸여 도리깨를 치고있는데 투탁! 하고 또 다른 도리깨 하나가 쌍도리깨사이에 끼여들었다. 얼핏 바라보니 목에 수건을 걸친 태호였다. 강제적인 징용살이에 꺼질해지긴 했지만 드뚱은 판골이며 짹 버그러진 어깨팍이며 드레진 대장부로 번진것이 여간만 미더워보이지 않았다.

도리깨질을 맞춘 태호도 이쪽에 얼핏 눈길을 던지는데 민망한 빛이 어린 그 거뭇한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듯 싶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

오영삼은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동무들한테 끌

려가버린 사위에 대해 은근히 품었던 불만을 씻은듯이 풀어버리고 <잘 왔네. 이분들이 이렇게 마당질을 해주고있는데...어서 치게!>하는 뜻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우쭐 힘이 나서 도리깨를 휘둘러쳤다.

이때 군복입은 녀성은 짧은 눈길로 새로 끼여든 짧은이와 오영삼을 갈마보시더니 돌이 주고받는 눈빛에서 기쁜 사연을 읽은듯 얼굴에 담백 웃음을 담으며 한켠으로 두어걸음 비켜서시었다.

오영삼은 이끌리듯 발을 옮기다가 꿈쩍 놀라며 그대로 서버렸다. 군복 입은 녀성이 스스로 선도리깨를 맡아나선것이다.

머리위에 뜬 도리깨아들이 엇비듬히 사선으로 기울며 내려와선 콩짚을 옆으로 척척 세워준다. 그렇게 섬겨주는 콩짚무대기를 오영삼과 태호의 도리깨가 번갈아가며 조져댔다. 가락맞은 삼도리깨질에 콩짚이 태치듯 뒤번져지면서 보는사이에 하얀 콩각지가 나뭇이 깔려나갔다.

《보기드문 선도리깨질이요.》

《실루... 어찌면!》

주위에서 경탄의 목소리가 일었다. 오영삼은 그 소리를 귀결에 들으며 후더운 마음으로 군복입은 녀성을 자주 쳐다보았다. 정말 하고싶던 일손은 잡은듯 머리에 두세개의 콩각지를 이고 정찬 눈길로 콩마당을 굽어보며 선도리깨를 잡은 군복입은 녀성의 얼굴에는 시종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어떻게든 마음속에 친근하게 싸이는지 오영삼은 도리깨질을 마치자 가쁜숨을 치쉬면서도 즐거움에 뜬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다.

《정말 놀랍소다. 어떻게 도리깨질을 다 배웠소다?》

《어릴 때 부모님의 농사일손을 도운것밖에 없어요.》

군복입은 녀성은 머리에 붙은 콩각지를 털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상농사군도 당하지 못할 숨씨인데 정말 대단하우다.》

오영삼은 자기 눈은 속일수 없다는듯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바람에 와그르 웃음이 뚫어올랐다.

《에그 속은 살아서 승벽을 겨루었는가보지.》

토방에 나앉은 마누라도 이렇게 시까슬르며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

군복입은 녀성은 이 레사로운 광경에서도 마당질터에 피어난 새생활의 밝은 정서를 느끼시는듯 조용히 웃음짓고 바라보다가 콩마당에 눈길을 돌리시었다. 태호가 두 군인과 함께 싸리비자루를 들고 들어서서 콩각지를 활활 쓸어내는데 누런 콩데미가 탐스럽게 드러나고있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군복입은 녀성의 얼굴에 생각깊은 표정이

어리었다. 하도 신중한 기색이어서 오영삼은 뭔가 잘못되는게 있어서 그러시는게 아닐까 하고 불안스레 두리번거리다가 말을 건네었다.

《콩마당뒤겨두매가 혹시 잘못되는게 있으면 고쳐주시오다.》

《아니,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곡식남가리들을 남겨두고 왜 추운때 하면 좋은 콩마당질을 먼저 합니까?》

《랑식이 떨어져가는데 황지주가 아직 남가리를 허물지 못하게 해서 그러시오다.》

하고 오영삼은 마당질때마다 나와 지켜서서 북데기까지 모조리 털어가군하던 황지주가 올해에는 소작료를 3.7제로 한다는것을 알자 탄 암산을 하면서 탈곡을 늦잡고있는데 대해 이야기했다.

군복입은 녀성의 얼굴에 준엄한 빛이 엇갈리었다.

《지주가 그런다고...농사야 아버님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두 땅임자가 그러는데야...》

오영삼은 말을 잊지 못하고 한숨을 훌 내쉬었다.

군복입은 녀성은 그의 고지식한 성미를 짚어보듯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토스레웃을 걸친 굵은 등허리며 세월에 탄 주름살이 밟고랑처럼 지나간 얼굴이며 그의 모습에서 나라 없이 살아온 농민의 쓰라림을 헤아리듯 한참 아무 말 씀도 못하시었다. 그러시더니 오영삼앞에 다가서시여 그의 왕마디진 손을 꼭 잡고 쓸어만지다가 차오르는 격정을 누르듯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땅을 다루어오시느라 아버님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땅의 주인은 아버님같은 농민들이 되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험한 손을 보이게 되여 난감해있던 오영삼은 처음 듣는 너무도 희한한 소리에 자기 귀를 의심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마음속까지 밝게 비쳐보는것만 같은 정기찬 눈길이 친근하게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아버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제 그런 좋은 세상을 마련해주십니다.》

(장군님께서 우리의 평생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니... 세상에 이런 꿈같은 일도 있는가!)

오영삼은 금시 오열이 터져오를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땅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고들 하면서 법석하는데... 그런 일이 언제쯤이면 이뤄질수 있습니까?》

콩각지를 말쑥하게 쓸어낸 태호가 비자루를 던져버리며 다가섰다. 그러자 군복입은 녀성도 스스로 격동되는듯 얼굴에 흥조가 피여오르며 저으기 흥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농민들자신에게 달렸다고 할수 있어요. 갓춥새가 든든한 일에 드립이 없다고 땅의 주인이 될 농민들의 마음차비가 잘 되어야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것을 헤아리시고 농민들이 소작료 3.7제투쟁부터 벌리도록 하신것입니다.》

오영삼은 가슴이 울렁울렁 뛰었다. 듣고보니 소작료 3.7제에 얼마나 큰 뜻이 담겨져있는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한가닥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황지주놈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을 작정으로 마당질도 못하게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군복입은 녀성이 근심스러운 그의 기색을 알아보고 조용히 물으시었다.

《지주놈들이 과연 수그러들겠는지 해서...》

오영삼이 이렇게 심증을 내비치자 군복입은 녀성은 얼굴에 진중한 빛을 띠우시었다.

《아버님, 걱정을 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입니다. 악바리같은 일본놈들을 내쫓은 장군님께서 그래 지주놈들이 제마음대로 날치게 가만두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오영삼은 얼굴에 대답해놓긴 하였지만 너무 꿈같은 일이라서 자꾸 아름차기만 했다. 그럴 때 얼굴이 벌거우리 상혈된 태호가 앞에 나섰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왜놈들이 쫓겨가자 황지주는 집안에 들어박히여 생이 앓는 소리만한다는데 이제 3.7제의 된바람을 일으켜서 더 짝 눌러 놓겠습니다.》

군복입은 녀성은 그 기개가 대견한듯 웃음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서면 두려울게 없지요. 마당질도 아버님이 주관해서 하면서 지주를 불러다가 세뭇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림밀천을 꼭 갖추십시오. 이렇게 미더운 사위감도 돌아왔는데 올가을에 잔치를 하여 신랑신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면 좀 기쁘겠습니까.》

하고 정겨운 눈길로 태호와 길순이를 바라보시었다.

태호는 목에 걸쳤던 수건으로 공연히 목덜미를 닦으며 병글거리고 길순이는 얼굴이 고추빛이 되어 돌아서버리는데 살췍이 내리튼 까만 눈에서는 감출길없는 기쁨이 남실거리고있었다.

군복입은 녀성은 그런 한쌍의 청춘을 보게 된 것이 그지없이 기쁘신듯 밝게 웃으시다가 말씀하시었다.

《길순동무, 물 한그릇 떠주어요.》

길순이는 구원이라도 당한듯 부엌문을 열어젖히고 뛰어들어가더니 빈 동이를 들고나와 샘터로 총총히 내달리었다. 새물을 길어다드리고싶었던 모양이다.

얼마후 동이가에 넘쳐나게 샘물을 길어오자 군

복입은 녀성은 사발에 정히 떠서 먼저 오영삼에게 가져오시었다.

《아버님, 어서 드십시오.》

《이런 원...》

살뜰히 두손으로 받쳐주는 물사발을 받아들고 한모금으로 꼭 마시고나니 오늘따라 차고 시원한 물맛도 별미롭게 온 내장을 적셔주는듯싶었다.

군복입은 녀성도 물맛이 류다르듯 실눈을 지으시었다.

《얼마나 차고 시원한지... 고향집 박우물맛을 보는것만 같군요.》

《군대새기 고향은 어디오다?》

문턱을 짚고 앉아 취한듯이 함께 실눈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불쑥 물었다.

《제 고향은 회령이에요. 고향집 박우물맛도 이렇게 좋았답니다.》

하고 군복입은 녀성은 감회에 젖어 말씀을 이으시었다.

《여기처럼 바다를 끼진 않았어도 정말 살기 좋은곳이에요. 뽕산 오산덕엔 봄이면 백살구꽃이 하얗게 피군한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 꽃처럼 아름답고...》

(고향생각이 얼마나 그리우시면...)

멀리 등지고 떠난 나무리벌을 지금도 꿈결에 그려보게 되는 자기인데 하물며 녀성의 몸으로 고향을 뒤에 두고 험난한 싸움길에 섰던 이분의 마음이야 오죽할가싶어서 말을 건넸다.

《회령이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지요. 저 앞길에서 바른편으로 가면 회령에 가당게 되오다.》

《그렇군요.》

군복입은 녀성은 산굽이를 끼고 밋밋하게 휘여 돌아간 바른쪽 큰길에 눈길을 겨누시고 옹길줄 모르고있었다. 그 하염없는 모습이 마음에 겨워 오영삼은 진심을 담아 간절히 권고하였다.

《꼭 찾아가보시오. 고향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와하겠습니까.》

《아버님, 고맙습니다.》

군복입은 녀성은 진정이 어린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콩마당질하는 아버님을 만나뵈니 저는 부모님을 뵈온것처럼 기쁩니다.》

하고 웃음지으시더니 떠나실 차비로 옷매무시를 더듬으시었다.

《에그- 집안에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면 서운해서 우린 어쩐다요.》

마누라가 문턱을 짚으며 굴듯이 기여나오려고 하자 군복입은 녀성은 마누라의 두손을 꼭 잡으며 굳이 만류하시었다.

《마당질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인사가 안됐소다.》

오영삼도 송구스러워서 한마디 했다.



《아니예요. 큰 불행을 안고도 주저앉지 않고 살아가시는 아버님 가족을 보니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땅의 주인으로 되는 날은 멀지 않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군복입은 녀성은 처음 만날 때처럼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떠나가시었다.

이날 저녁무렵,

오영삼은 콩까뽕질을 하면서도 높이 쳐든 삼태기에서 콩을 떨구는것을 자주 잊어버리곤했다. 군복입은 녀성이 친근하게 일깨워주던 목소리가 귀가에서 떠나지 않아서였다. 평생 불행속에 부대끼여온 자기에게도 희망찬 앞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자꾸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오영삼이가 땅을 타고갔게 되리라니… 으흠!》

저도모르게 혼자말을 중얼거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았다. 군복입은 녀성을 따라갔던 태호가 곁에 다가서고있었다. 한데 목에 걸렸던 수건을 손에 들고 주무럭거리기만 하지 않는가.

《자네 왜 그러나?》

하고 다그쳐 물어서야 말을 쏜다.

《아까 콩마당질을 도와주신분이… 글썄 그분이 **김일성** 장군님을 가장 몸가까이 모시고 싸워온 김정숙어머님이시랍니다.》

《뭐, 뭐라구?!》

오영삼은 손에 들었던 삼태기를 떨구어버렸다. 태호가 계속하는 말소리가 먼데서 흘러오는 소리처럼 들리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에 돌아오시여서 우리 농민들의 살림형편을 보살피시었는데… 지금 뒤마을 명섭형네 집에 머물고계신답니다.》

오영삼은 김정숙어머님께서 뒤마을에 계신다는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집안에 대고 부산스럽게 소리쳤다.

《애 길순아, 큰그릇 가지고 이리 나오너라.》

부엌에서 저녁차비를 서둘던 길순이가 웅배기를 들고나왔다.

《원, 시집갈 가시내가 저렇게도 눈치코치가 없다구야… 자네가 저걸 데려다가 속을 썩이겠네.》

《?!》

덮어놓고 해대는 지청구에 태호와 길순이는 서로 눈길을 마주칠뿐이다.

《얼른 들어가 콩을 담글 함지를 내오지 못할가. 귀한분에게 점심 한끼 지어드리지 못하고 찬물 한사발만 떠드리구두…그게 어디 인사가 됐느냐?》

《예, 그래서 두부를 맛아서…》,

태호가 알만하다는듯이 슬며시 눈짓을 하자 길순이는 기쁨에 싸여 활짝 붉어진 얼굴로 다시 뛰어 들어가 서말들이 큰 함지를 들고나왔다.

콩을 불구어 땅에 갈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밤

이 깊었었다. 태호와 길순이가 마주앉아 즐거운 눈길을 주고받으며 땅을 빙빙 돌리고 마누라는 길순의 레장감으로 갖춰두었던 베필에서 두부주머니감을 잘라내어 기우면서 혼자말처럼 외우고 있었다.

《어쩌면 그분은 그리도 허물없었을가. 일에 들어선 막힌데 없구 또 인사성 밝구…글썄 내 이 손을 두번씩이나 잡아주지 않았겠나… 내사 너무 고맙고 정이 가서 입에 오르내대로 군대새기라고만 불렀으니… 내 불찰을 어쩔담.》

《오새없이 또 그 소리군. 워낙 큰어른일수록 백성의 맘과 그렇게 통하는 법이랴오.》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오영삼은 아는듯이 말하면서 자꾸 혼 혼한 심정에 싸여들었다. 늘 쓸쓸하고 침울했던 집안이 오늘처럼 화기가 돌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오영삼은 두부망질이 거의 끝나가자 초롱을 들고 바다가로 나갔다. 서슬로 바다물을 쓰면 두부말이 잘 서고 맛도 좋아진다.

오영삼은 달빛속에 희벗해보이는 모래불우에 짧은 그림자를 이끌며 도래굽이쪽으로 걸어갔다. 가장 정갈한 바다물을 뜨고싶었는데 도래굽이의 바다가 그중 맑고 깨끗했던것이다.

바위서덜에 이르자 문득 그의 머리에 바로 거기에서 배에 실려가는 아들을 가슴치며 바래왔던 일이 떠올랐다. 부대기를 일군 《죄》로 사지판에 끌려가 숨져버린 아들, 그토록 녀원하던 땅이 차례지리라는데…혼이라도 있다면 날아와서 기뻐하련만…

《종근아.》

피타는 마음을 누를길 없어 소리내어 부르자 불우에 어린 쟁반같은 달이 아들의 뱃이 되어 화답하듯 기울거리는것이였다.

이튿날 이른아침, 오영삼은 정성들여 앗은 두부임을 길순에게 이워가지고 김정숙어머님께서 드신 뒤마을로 갔다. 얼마전부터 농조를 못는다고 나서서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있는 리명섭이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난색을 지었다.

《참 딱하겐 되엿소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른 새벽에 떠나가셨으니…》

오영삼은 망연자실해서 한참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회령으로 가셨겠지?》

어제 회령쪽으로 뻗은 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여 고향을 그리는 어머님의 걸음을 지체시킬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말이었다. 그런데 명섭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평양으로 올라가셨다오다.》

《…………》

《어제 그 집콩마당질을 살피고 돌아오신 어머

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겪어온 일을 생각하면 장군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십니다. 밤에도 그 집 일을 여러번 외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니 빨리 가서 장군님의 사업을 도와야겠다구... 그래 날뵈기전에 떠나가셨다오다.》

(내가 늦었구나. 손수 하신 마당질 햇콩두부맛이라도 보시도록 하자고 했더니만.)

오영삼은 허전한 심정에 싸여 맥이 탁 풀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동안, 다음순간 그의 가슴속에선 이름 못할 걱정이 흥벽을 치며 세차게 끓어올랐다.

(마당질일손을 함께 잡으시며 이 마음속에 사는 보람을 심어주신 은혜만도 이룰데 없는... 우리 농민들의 일을 위해 그렇게 떠나시다니...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는 좋은 세상에서 가슴을 쭉 펴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영삼은 이렇게 속다짐하면서도 끓어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어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

한평생 불행에 짓눌려온 오영삼이 김정숙어머님의 한없는 사랑에 눈물지었지만 가르쳐주신 새생활의 보람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것인가에 대해선 그때엔 미처 이해할수도 짐작할수도 없었다.

2년후, 집앞에 난가리를 가려놓고 다시 마당질을 벌려놓았을 때에야 오영삼은 반아안은 행복이 아름답게 사무쳐와서 해방후 2년간의 생활을 그윽한 심경으로 더듬어보게 되었다. 보람과 기쁨속에 꿈같이 살아온 나날들... 봉이라는 새가 있었다고 옛말로 들었는데 오영삼 자기가 대봉을 타고 노을비낀 하늘로 훨훨 날아온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점심참에 밥상을 물리고 나았을 때였다. 열어놓은 문밖으로 헝기 시작한 밀난가리가 집채같은 큰 동가리를 이루고 서있는데 그옆으로 개꼬리같은 이삭들을 드리운 조발이 휘우뚝하게 구름을 이루며 바다가까지 누워나간것이 눈에 안겨든다. 집 한켠에 붙여지은 소우리에선 황소가 방울을 쨍렁거리면서 한가롭게 새김질하고있다. 땅을 분여받고 첫해농사를 짓고서 사뭇 나뭇잡이황소이다.

《어쩔 총기도 이리 좋은가. 어디 한번 더 해보지, 도리도리 쟁쟁...》

정지구들에선 마누라가 외손주 혜남이를 데리고 손곱질을 배워주느라 정신이 팔려버렸다.

3.7제투쟁을 통하여 살림밑천을 잡고 성례를 치른 길순이가 지난해 가을에 옥동자를 낳아서 온 집안이 모여앉아 좋은 이름자를 찾다가 김정숙어머님의 은혜로 태어난 복덩이라고 해서 결국

혜남이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보았었다. 그 혜남이가 벌써 자국을 떼기 시작하고 주먹쥐기 송곳질 온갖 재물을 다 부리는것이다.

점심참에 상을 물리고 한대 피우며 앉았는 사이에도 보는것 듣는것마다 기쁨을 더해주어 오영삼은 흐뭇한 행복감에 절로 가슴이 스프르 녹아 내리는것만 같았다.

이젠 정말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과 같이 번성해진 자기 집에 김정숙어머님을 다시 모시어서 행복한 생활을 보여드리었으면 하는 생각이였다. 하지만 어찌 그런 영광을 바랄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마음속에 실린 그 간절한 생각을 지울길없이 며칠전부터 이 궁리 저 궁리 고르던끝에 마당질을 하여 내 땅에서 내 손으로 지은 햇밀쌀을 가지고 장군님 댁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릴 작정을 했다. 무엄스러운 일로 되지 않을까싶은 위구심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땅의 주인으로 잘살도록 일깨워주시던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면서 기뻐해주시리라는 생각이 앞서기만 했다. 그래 그런 속심을 비추었더니 가족들은 물론 리농맹위원장인 리명섭도 《생각 잘했소다. 우리 농민들의 일이 걱정 되시여 고향방문도 미루고 떠나가신 어머니께서 아주바이네 애길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거외다.》 하고 적극 찬성해주었던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꿈을 꾸어도 대봉을 타고 평양으로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는 오영삼이였다.

《아베... 아베...》

마디 없는 목소리가 귀를 즐겁게 간지럽혀 돌아다보니 정지간으로 통하는 사이문앞에 혜남이가 서서 방금 배운 손곱질을 하며 해죽거린다.

(에미가 돌아오면 저너석을 사진 찍으러 보내야겠군. 어머니께 외손주를 보여드려야지.)

오영삼이 이런 생각을 하며 머리를 쓸어주려고 손을 내드는데 정지에 앉아있는 마누라가 시샘이라도 하듯이

《에그- 넘어질라.》

하고 기겁을 떨면서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혜남이는 위태롭게 아기작거리며 가버린다.

《아이 버릇은 할미가 굿힌다더니...》

귀여운 손주가 물러가버린것이 못내 서운하여 은근히 못마땅해하면서도 복덩이를 안고 만시름에서 놓여난 마누라의 얼굴이 금시 눈앞에 마주서는듯하여 오영삼은 허만 끝끝 차면서 일어섰다. 감이 많은 밀마당질을 빨리 끝내고 평양출발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마당에 나서자 밀냄새로 달아오른 한낮의 훈향이 감미롭게 폐부를 쿵 찌르는데 인기척에 놀라 날아난 참새떼가 다급한 지저귂소리로 귀전을 따갑게 울리면서 뒤산쪽으로 강풍에 휩쓸린 가랑

있들처럼 떠간다.

그럴 때 지계에 밀단을 골박아 진 사위와 딸이  
뜨락으로 들어섰다.

(저 애들이 부대기발의 밀을!)

콩을 심었던 뒤산의 부대기발에 올해 밀을 심  
었더니 거기서도 고랑이 메이게 잘되였었다.

《뭘 벌써 지여들이니? 허문 난가리의 밀만도  
마당에 넘쳐나는판인데…》

《참새가 너무 성화스럽게 달려들어서…》

태호의 대답은 심상스럽지만 이쪽을 얼핏 치퍼  
보는 길순의 얼굴은 어딘가 안타까움이 어린 난  
감한 빛이다.

(흠, 해방직후 부대기 콩밭에 앉아 종군이를 잃  
은 피로움에 젖어 부르는 소리도 알아듣지 못했  
더니만… 거기에 가면 또 그럴가싶어 제사 먼저  
남편을 끼고가서 설참에도 이 역사로구나.)

딸의 애바른 마음을 짚어보는 오영삼의 주름잡  
힌 얼굴에 흐뭇이 웃음이 어리였다.

《아버님.》

태호가 콩짐을 부리워놓고 돌아섰다.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 도를 현지도하시는데  
거기에 김정숙어머님도 와계신다오다.》

오영삼은 눈을 홑떴다. 그게 사실이라면 평양  
까지 가지 않고 도에만 올라가도 김정숙어머님을  
만나 뵈울수 있을게 아닌가. 그는 흥분한 어조로  
물었다.

《자네 어디서 그 얘길 들었나?》

《신문에서요. 아까 밀단 지러 가던길에 농맹사  
무실앞에 내붙인 신문을 읽어보니 장군님께서 도  
자기공장을 현지도하시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  
다.》

(그렇군. 한글학교에서 배우라고 할 때 꼭 참고  
앉아 배웠어야 하는걸…)

아침에 탈곡기를 가지러 그앞을 지나다니면서  
도 뜬소경노릇만 했다. 나먹은 까막눈이 언제 배  
워서 장원급제하겠는가고 슬슬 피하기만 했더니  
...

오영삼은 길순이를 돌아다보며 재촉했다.

《얼른 혜남이를 업고 면으로 가거라.》

《예?!》

《매일아침엔 도에 올라가야겠는데 혜남의 사진  
도 현장 가지고 가야지…》

《정말 그렇게 하면…》

길순의 얼굴이 기쁨으로 확 피여오르다가 금시  
락심한 빛으로 엇바뀐다.

《매일아침까지 사진이 되겠는지…》

듣고보니 그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길순의 결  
혼사진도 한번 헛걸음을 치고 나흘만에야 받아왔  
었다.

(그저 내 까막눈이 중한 일을 망치는군.)

오영삼은 흥분속에 좀처럼 마음을 가누지 못하

며 탈곡기앞에 다가서자 밭판을 공공 밟기 시작  
했다.

아롱 아롱… 바람을 차고 돌아가는 탈곡기날  
에 밀단을 가져다대듯마듯 밀알들이 썩썩 뿌려나  
가서 누런 황금데미에 덧쌓인다.

털어낸 밀짚단을 큰 단으로 묶어 한쪽에 가리  
고 있던 태호가 일손을 바꿔잡자고 자주 쳐다보  
았다. 허나 오영삼은 그런 기미를 알은체도 안했  
다. 도에 올라가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뵈 생각에  
가슴이 설레이며 우썩 기운이 솟기만 했다.

(남부러울것 없는 이 오영삼의 풍성해진 살림  
을 두손에 받들어 큰절을 올리리라.)

간절한 소원에 싸여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는  
데

《오아주바이.》

하고 누군가 불려내는 소리가 들리였다. 언뜻  
돌아다보니 리농맹위원장 리명섭이 뜨락으로 들  
어서고있었다.

《아니 위원장이 어떻게…》

오영삼이 탈곡기에서 물러서서 마주 걸어나가  
다 그뜻밖의 광경을 띄어보고 무춤 발을 멈추었  
다. 동구길로 사람들이 떼지어 들어오면서 웅성  
웅성 끓고있지 않는가.

오영삼은 영문을 알수 없어 문듯이 리명섭에게  
다시 눈길을 주어서야 그의 너부죽한 얼굴이 흥  
분한 빛으로 불그레 상기되어있는것을 알아보았  
다.

《어서 이리 나오시오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지  
금 아주바이 댁으로 오십니다.》

《아-니, 김정숙어머님께서!》

도에 올라가서라도 뵈오려고 했더니만… 어머  
님께서 몸소 내 집을 찾아주시다니…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오영삼은 귀속이 뒹 울리며 눈  
앞이 뿌얘졌다.

《아버지, 저기 오고계세요.》

팔을 잡고 붙어선 길순이가 기쁨에 떨리는 목  
소리로 속삭이였다.

얼른거려보이는 사람들, 그런속에서도 한가운  
데 서서 걸어오시는 소박하게 조선옷차림을 하신  
분, 해방직후의 군복차림이 아니여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활달한 모습에서 오영삼은 바  
로 그분이 김정숙어머님이심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는 허둥거리며 걸어나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도 그를 알아보신듯 빠른 걸  
음으로 오시여 앞에 이르시자 2년전 그때처럼 다  
소곳이 고개를 수그리시였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니까?》

《아-니, 이러시면… 이런 법이…》

방금전까지 큰절을 올릴 생각을 했건만 오히려  
어머님께서 하시는 인사를 먼저 받고말았으니…  
오영삼은 얼굴이 화끈해서 몸돌바를 모르고있는

데 태호와 길순이가 앞에 가지런히 나서며 어머니께 머리숙여 인사드리었다.

《태호동무와 길순동무가 아니예요? ...가정을 이뤘군요. 아버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태호부부를 대견스레 바라보시다가 오영삼을 돌아보시었다.

《가르쳐주신대로 3. 7제를 하고서 애들 잔치를 했지요. 그래 벌써 외손주까지 보았답니다.》

오영삼의 병글썩해진 입에서 미처 자랑이 끝나기도전에 뒤에서

《에그... 이게 누구시오?!》

하고 부르짖는 외마디소리가 울리었다.

마누라가 문턱을 짚고 굴듯이 달려나오는데 그 품에는 혜남이가 안겨있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달려가시여 두손을 잡아 토방에 앉도록 하시더니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외손주도 안아보시고...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기쁘다마다... 혜남의 재롱에 해 지는줄 모르고 살아가지요.》

《혜남이라구요? ...어디 우리 혜남이가 얼마나 잘났나 좀 보자.》

어머님께서는 마누라의 품에서 혜남이를 훌쩍 들어 머리위에 높이 띄워보시고나서 토실토실한 불에 얼굴을 꼭 대시었다. 혜남이는 공중 둥게질에 눈이 울롱해서 울듯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금시간지럼을 타고 몸을 바시대며 해죽해죽 웃었다.

《천상 다른 손에 가지 않던 애가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마누라는 너무도 자랑스러워 눈곱에 손을 올려가며 꺾꺾 찌었다.

《정말 귀엽군요. 길순동무, 혜남이를 나라의 기둥감으로 잘 키우세요.》

어머님께서는 행복에 겨워 눈물짓는 길순의 품에 혜남이를 안겨주시고 감회에 젖은 그윽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반나마 혈린 밀난가리며 외양간에 매인 황소며 벌려놓은 밀마당에 놓여있는 탈곡기며 기름진 살림정경이 무뎡 마음에 싸이시는듯 어머님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탈곡기앞의 밀쌀데미로 다가가시더니 두손으로 밀쌀을 듬뿍 움켜드시었다. 알알이 잘 영근 밀쌀을 살펴보시는 그이의 얼굴에 환히 피어난 기쁜빛을 찾아보자 오영삼은 그만 목메여지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밀소출을 얼마로 내다보십니까?》

어머님께서 웃음지은 얼굴로 물으시었다.

《다 털어봐야 알겠소다만 한정보에 800키로는 잘 걸릴것 같습니다. 이고장에선 700키로만 내도 괜찮다고들 하는데...》

오영삼은 자랑스럽게 대답을 올리다가 어머니의 얼굴에서 류다른 기색을 찾아보고 입을 다물었다. 것처럼 정기차던 어머니의 눈길에 한순간 안타까운 빛이 엇갈리는듯하더니 금시 무거운 기색으로 돌아가시지 않는가.

《800키로면 열여섯가마니군요.》

어머님께서는 혼자말처럼 뇌이시며 손에 움켜드셨던 밀쌀을 조용히 흘리시었다. 그 모습은 깊이 사무쳐드는 무거운 생각에 싸이시여 손에서 밀쌀이 흘러내리는것도 감각하지 못하시는것만 같았다.

(왜 저러실까? 혹시 잘못된 일이라도...)

오영삼이 송구한 마음으로 서있는데 어머님께서 돌아보시었다.

《아버님, 이고장엔 물을 끌어올데가 없습니까?》

《.....》

뜻밖의 물으심이어서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있자 어머님께서는 탈곡기옆에 가려져있는 밀짚무데기에서 서너단 들고 다가오시며 말씀하시었다.

《둘러앉아서 함께 토론해봅시다. 이걸 깔고 줍았으십시오.》

그러자 젊은 수행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밀짚단을 더 가져다놓는데 그에겐 어머님께서 늘 자기손으로 해치우시는것이 저지기 딱한 모양이었다.

밀짚단을 깔고 빙 둘러앉자 어머님께서는 우선 우선한 얼굴로 돌아보시며 말씀을 때시었다.

《지금 여러 지방들에서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이 밭을 논으로 푸는 일을 많이 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벌써 그렇게 하여 성과를 올린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남도의 한 농민은 한정보에서 밀 900키로밖에 내지 못했던 밭을 논으로 풀어 버 세튼을 냈답니다.》

《세튼이라니...》

《그럼 세배도 넘는 소출을 본 셈이군.》

《흰쌀을 그렇게 많이... 실루 기차기두 해라.》

경탄의 목소리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놀랍고도 부러운 눈길들이 서로 오고갔다. 벼농사와 밀농사의 현격한 대비는 땅과 더불어 숨쉬는 농민들의 가슴을 겨울잠에서 깬 해토무렵의 땅처럼 부풀어 오르게 한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몇배 더 낼수 있을게 아닌가. 더군다나 여기 산골에선 구경하기 어려운 흰 쌀밥을)

오영삼은 온몸이 굳어지는듯한 긴장을 느끼며 답알침을 꿀꺽 삼키었다.

이럴 때 농맹위원장 리명섭이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선잠 말을 뱉다.

《이고장에서도 논을 풀어보려고 시도해본적이 있었습니다. 황지주가 측량기를 멘 사람들을 데려다가 떡을 친다 답잡아 먹인다 하면서 측량을

하게 했는데 시오리밖에서부터 물질을 내야만 하였지요. 황지주님은 작인들을 그 물질공사에 내물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흐르도록 일감을 크게 축내지 못한데다가 농사까지 바로 되지 않아서 그만 집어던지고말았지요.»

《정말 그때는 망망하리만…그놈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가 빗만 데미로 지고 나왔었으니…»

《우리 집에선 빗값으로 황소까지 떼웠던걸요.》

그때의 쓰라린 체험들이 가슴을 저미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오영삼은 비탄에 젖은 그 목소리들이 귀에 거슬리며 마음이 언짢았다.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시어서 3. 7제의 불질을 우리고장에서 먼저 크게 올렸는데 뭘 저렇게 앞은뻥이 먼 산 쳐다보는 소리들만 하고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문득 그의 머리속에 2년전 바로 이 자리 콩마당터에서 있었던 한가지 부끄러운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며 떠올랐다. 어머님께서 불행으로 짓눌려온 이 마음속에 새생활의 빛을 안겨주시며 소작료 3. 7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일깨워주실 때 선뜻 나설 대신 저렇게 마음속으로 바재이지 않았던가.

오영삼은 그때의 자기자신에 대해서 반발하듯 사람들의 생각을 판데로 이끌어난 리명섭을 건너다보며 말을 뱉다.

《농맹위원장장두무, 그때는 지주님이 하는 놀음이니까 가슴에 못박에 남을게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일은 우리자신을 위해서 바루 내 땅에다가 물을 대는 일이 아니요. 한뼉 조밥상도 받기 어려웠던 우리가 흰쌀밥 먹게 되는 일인데… 하자고 선뜻 나서지 못할 망정 그 일을 지주님이 해보던 놀음에다 비출건 뭘요.》

몇순간 침묵이 흘렀다.

얼굴에 웃음을 담으시고 오가는 말을 듣기만 하시던 어머님께서 말씀을 떼시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때와는 모두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젠 땅을 잘 다스려서 쌀밥에 고기국을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시 마음이 훈훈해져서 즐겁게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흰쌀밥에 고기국 먹게 된다니… 정말 꿈같소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남조선으로 도망쳐간 황지주가 분통이 터져서 어쩐다!》

《에그, 그 못된 성미에 지레 죽고말지 않으리.》 토방가에 나앉은 마누라가 이런 소리를 하며 끼여들어 와그르 웃음이 났어올랐다.

예지로 빛나는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시던 어머님께서도 즐겁게 웃으시고나서 말씀하시었다.

《모두가 땅의 주인된 보람과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서기만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거예요. 여기서 벼농사를 하기 위해 물질공사를 하게 된다는것을 아시면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일들이 소개된 신문을 읽으신 날이면 밤낮이 난다고 하시면서 늘 기쁘신 얼굴로 진지상을 받으시군합니다.》

《장군님께서!》

오영삼은 감격에 젖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었다.

《우리 일도 꼭 보고해주시오다. 올가을에 물질공사를 끝내서 래년엔 어김없이 벼농사를 지을됩니다.》

어머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오영삼을 바라보시는데 그 정기찬 눈길에 한없는 신뢰의 빛이 불타올랐다.

《장군님께 꼭 보고올리겠습니다. 농맹위원장동무한테서 아버님이 밀쌀을 가지고 인사하러 오실 작정을 하시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성의도 감사합니다만 아버님이 밭을 논으로 푸는 일에서 앞장서겠다고 나선 일이 더 고맙고 기쁩니다.》

(다 가르쳐주신 우리자신의 일인데…)

오영삼이 황공해서 어쩔바를 모르고있는데 어머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꼭 벼농사를 짓도록 만들고 아버님이 다른 동네에 다니시면서 자랑도 하고 그 경험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어지간한데선 다 벼농사를 지으려고 나설것입니다. 그래서 산골농민들이 모두 더 잘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민들이 잘살게 되어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우리 농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살림을 두고도 나라일을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미련한 백성은 받아안은 오늘의 행복에 취해있기만 했으니…)

오영삼은 가슴아픈 자책속에 싸여졌다. 그럴수록 로동자 농민의 나라, 새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어머님의 높은 뜻이 숭고하게 안겨와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른 사람들속에서도 격정의 파동이 물결쳤다. 시오리 아니라 삼십리의 물질이라도 끌어오고야 말 결의로 넘쳐 흥성거리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보시는 어머님의 얼굴도 한없는 기쁨에 싸여 환히 빛나고있었다.

농민들의 행복을 진정 자기의것으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시는 어머님, 그 친근하고도 다정한 모습에 이끌리어 눈굽을 훔치고난 오영삼은 간절히 묻고싶었던 말을 스스로없이 터놓았다.

《우리의 일로 고향방문도 미루고 떠나가셨던 일이 늘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래 이번 길에는 회령에 들려오셨겠지요?》

어머님께서는 뜻밖인듯 잠시 오영삼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니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럼 또 내 집부터!)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오영삼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다.

《어째서 그러시오다? 고향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순직한 농민의 직바른 심정으로 단순한 고마운 인정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마음에 겨우신듯

《아버님.》

하고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저의 부모님들 대신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오영삼은 머리를 치는 한가지 계시에 가슴이 철렁했다.

《저의 부모님들은 일찌기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머님께서는 차오르는 비분을 주체하기 어려우신듯 말씀을 마무리지 못하시고 발길을 돌려 프락가로 걸어가시였다. 거기 프락가에 자리잡은 밀날가리옆에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회령쪽으로 뻗은 큰 길을 바라보시며 서계시였다.

오영삼이 어머님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젊은 수원이 안타까운 빛으로 다가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귀뜸하듯 말했다.

《어머님께 친가분들에 대해서 더는 묻지 마십시오. 부모님들뿐아니라 형제도 안계십니다.》

《예?!...》

《오빠는 지하공작원으로 광산에서 사업하다가 원수놈들에게 희생되고 단 한분 남았던 손아래 남동생도 유격대 아동단원으로 일본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것두 모르구, 이 우둔한 백성이!)

오영삼은 무덤하게도 어머님의 가슴속 상처를 헤집어놓았다는 자책으로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아무것도 가늠할수 없도록 몸과 마음이 굳어져버린속에 한가지 생각이 끝날처럼 머리속으로 비껴들었다.

(그토록 모지른 슬픔을 지니시고도 이 우둔한 백성의 불행을 가져주려고 도리개를 잡고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 산골에 버가 쏟아질 앞날까지 밝혀주신단말인가!)

오영삼은 가슴속깊이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었다.

그럴 때 어머님께서 발길을 돌려 다가오시였다.

피로우셨던 마음을 누르신듯 그이의 얼굴에는 온화하고도 다정한 기색이 자리잡고있었다. 마당에 둘러서있는 사람들을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지

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밀마당질을 지체시켰군요. 길순동무, 머리수건을 좀 주세요.》

길순이는 영문을 모르는속에 쥐고있던 머리수건을 내어드리였다.

어머님께서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우시며 탈곡기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오영삼은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어머님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두십시오. 콩마당질을 하시게 한 일을 두고 늘 한이 되곤하였는데... 또 이러시면... 저의 소원이올시다.》

어머님께서는 오영삼의 손을 꼭 잡으시였다.

《아버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딸자식같은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그래두... 그래두... 너무하십니다.》

오영삼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지며 떨어졌다.

어머님께서는 걱정으로 떨리는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전 조국에 돌아와서 콩마당질부터 하게 된 일을 늘 즐겁게 회상하군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땅에서 거둔 밀을 마당질하는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발길을 돌릴수 있겠습니까?》

《.....》

《오늘은 이렇게 밀마당질을 하지만 래년엔 꼭 벼마당질을 하도록 합시다. 그해에 또 오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오영삼은 격정에 싸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탈곡기앞으로 가서 발판을 밟으시였다. 탈곡기는 스르릉 돌아가면서 이내 아롱아롱 바람을 차기 시작했다.

머리에 수건을 가리운 어머님의 얼굴에 담백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오영삼의 뿌듯하게 흐려진 시야에 어머님의 그 소박하고도 친근한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졌다.

(이 세상 가장 큰 불행을 지니시고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어머님... 내 눈에 흠이 들 때까지, 아니, 나의 외손주까지 대를 이어 충성으로 저분을 받들어가리라.)

오영삼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다진 이 맹세에는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도 다 누르시고 장군님을 받들어 애오라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어머님의 고결한 마음속에서 자기 집의 행복, 해남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도, 땅도, 밀밭도 또 래일의 찬란한 꿈도 피어나고있다는 자각이 몸에 흐르는 피처럼 솟아있었다.

탈곡기는 바람을 차고 기세좋게 돌아간다. 황금같은 밀알들이 낱알냄새와 감격의 파동으로 달아 오른 프락에 휘뿌려지는데 그것은 마치 해방된 강산에 이뤄진 새생활의 기쁨을 축하하여 어머님께서 보내는 축복의 황금보라인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뜨겁게 사무쳐드는것이였다.

## 오산덕의 추녀낫은 초가집이여!

류희갑

구름처럼 피어난 백살구꽃은  
반겨맞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인가  
정답게 울려오는 두만강 여울소리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인가

오산덕의 추녀낫은 작은 초가집  
이끌리듯 정가로운 트랙에 서니  
정지문 여시고 어머니 마주나오실듯...  
살뜰히 손잡아 이끌어들이실듯...  
그리워 목메이는 이 마음속에  
승엄하게 안겨오는 어머니영상이여

열려진 사립문밖 그 어느 발머리로  
정다운 이들 들일을 나가신듯  
어머니도 떠나시고  
모진 세월 거친 풍랑속에  
일가분들 모두 가고  
집은 비어 조용하다

아,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우등불 타오르던 백두밀영의 그 밤에도  
《사향가》의 은은한 선률속에  
더듬어보시던 오산덕  
찬눈우에 쪽잠드신 꿈결에서도  
손때오른 문고리를 잡아보시던  
정든 고향집

떠나면 다시 오시는곳  
고향집 아니던가

해방의 봄빛 넘친 이 강산 이 언덕  
어머니 오실 날을 기다려  
망양나루 여울물도 노래를 고르고  
오산덕의 백살구나무도 꽃다발을 엮으며  
그리움의 년륜을 새기고 또 새기었던만  
떠나신 어머니 다시 안오시고...  
집은 비어 조용하다

안오시였구나  
한몸 그대로 성벽이 되시여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시던  
준엄한 혈전의 그 언덕들을 넘으시여  
백두의 산발을 내리신 그날에도  
여기 안오시였구나 우리 어머니

알수 없었구나 내 그날엔  
흩어져 외롭던 유자녀들을 찾으시여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고  
혁명학원으로 손잡아 이끄실 때  
만경대로 향하시던 그 길이  
회령의 고향길을 미루신 길인줄을

오실수 없으시였구나  
락원의 창가에  
인민을 모두 불러들인 그날에도  
우리 수령님  
백두의 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기에  
어머니  
경위대원의 영원한 전투위치를  
비우실수 없으셨기에...

인민의 간절한 마음속에  
세월의 언덕을 넘어 들려오는  
북행렬차의 기적소리 아쉽게 남겨두고  
오늘은 우리들을 여기로 보내시였구나

아,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태어나신 고향집은 비우시고  
정든 고향산천 다시 밟지 못했어도  
장군님을 받드신 충성의 한마음은  
영원히 비우지 않으시였나니...

오, 오산덕의 추녀낫은 초가집  
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 빛나는 집이여  
어머니의 빛나는 한생을 이어안고

온 나라의 마음들이 여기서 산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 위대한 어머니의 자옥

최정용

예가 바로

마음속

그리도 그리웁던 회령인가

청진, 경성, 선봉...

그리웁에 사무쳐

어머님의 발자취 따라왔건만

여기엔 단 한자국도 찍혀있지 않구나

해방된 기쁨의 나날에

어머님 옮기신 자옥은

오늘도 두만강 푸른 물결은

어머님 부르시던 《사향가》소리

담아실고 흐르는데

어머님 꿈결에도 안아보시며

못잊던 고향이건만

어이 단 한자국도 남기시지 않으셨는가

항일의 혈전만리

장군님 안녕을 지켜서시던

어머님의 불멸할 그 자옥자옥

백두의 눈덮인 준령들에 새겨져있고

그날의 그 걸음으로

들국화 피어나는 들길에

흰파도 부서지는 외진포구 백사장에

수령님 새 조국 건설 강령 받드시어

하많은 자옥 빛나게 남기셨어도

한번만이라도 고향에 다녀오시라

전우들은 차표까지 끊어올리셨건만

만경대의 원아들을 찾아

발걸음 돌리신 김정숙어머님

영광찬 혁명의 길우에서

그 언제나

자신의 의무는 크게 지니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단 한자국도

아니 옮기신 고결한 그 마음

삶의 보람도 기쁨도

위대한 수령님 받드시는

그 한길우에서

찾으시고 꽃피워오신 어머님이시여

어머님의 그 마음으로

내 숨쉬고 노래부를줄 모른다면

어머님 그 걸음으로

보람찬 충성의 한길을 걸지 못한다면

내 어이 가슴펴고 말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 받드는

혁명전사라고

아, 그리도 그리시던 고향땅에

어머님 찾으신 자옥은 없어도

회령이여!

위대한 수령님 받들어모신

어머님의 한생의 발자취

걸음마다 어려오는구나

세월의 눈비도 지울수 없는

숭고한 삶의 뜻 어린 그 자옥자옥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새겨주는구나

회령, 어머님의 고향땅이여!



## 어머님의 하루를 두고

김동호

사람의 한생에서 하루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를 무심히 흘러보내기 일쑤이다.

오십고개를 지척에 바라보는 나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종종 회고해보곤한다.

학창시절, 병사생활, 오늘은 작가의 길, 내가 걸어온 그 길을 하루로 쪼개놓으면 만수천여일에 이른다.

만수천여일에 이르는 그 하루하루를 나는 과연 어떻게 흘러보냈는가?!

답사단의 한 성원으로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청봉숙영지에 오른 나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인다.

우리는 40여년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정과 지형을 살피시기 위해 서계시였던 그 자리에 높이 세운 대기념비앞에 경건히 서있다.

당중앙의 보살핌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청봉의령마루에 태고의 원시림을 상징하는 원통형의 화강석 현시비를 높이 세웠다.

하늘을 치솟을듯이 높이 세운 대기념비우에 하늘의 별들을 글자로 모아 인민의 마음을 부었고 천지의 맑은 물로 청신하게 씻은듯싶어 그 위용이 더욱 숭엄해보인다.

그날을 못잊어서인가, 산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예고 울울창창한 밀림의 바다가 설레인다. 청봉의령마루에 서있는 우리의 마음은 항일의 혈전만리 조국광복의 자욱자욱이 아로새겨진 그날로 달려간다.

해발 1 900m 에 달하는 청봉산마루에 오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청봉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선들이 리명수, 5호물동, 소백산, 건창쪽으로 뻗어 있어 대부대가 사방으로 신속히 기동할수 있고 적을 막아내기에 매우 유리한 이곳에서 숙영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며 적정과 지형을 더 깊이 료해하시교 무산지구전투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더 무르익히시기 위하여 전술적으로 매우 유리한 이곳에서 하루밤 숙영할것을 명령하시교

친히 각 부대들의 숙영장소를 정해주시였다.

우리는 그날의 강대나무가 여기저기에 우뚝우뚝 서있는 천고의 밀림속 숙영지로 걸음을 옮기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사령부천막을 가운데 모시고 병실과 취사장을 꾸리시였다.

쟁기란 톱과 도끼뿐이였고 전투와 행군으로 밤과 낮을 이어온 어머니이시였지만 온몸의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원들의 일손을 도와 톱으로 아름답리 나무를 켜고 도끼로 매칠하게 다듬어 사령부천막을 훌륭히 지어놓으시였으며 병실도 아담하게 꾸려놓으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나무밥이 일지 않게 손수 통나무 칼도마를 만드시였고 밥지를 자리도 알뜰하게 꾸려놓으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샘터를 찾으시였고 우물을 정갈하게 손질해놓으신 다음 선참으로 맑은 물을 떠서 사령관동지께 드리시였다.

작식대원들을 데리시고 냉이, 무수해, 닭지씩, 취를 비롯한 갖나물을 캐다 김치를 담그시였으며 선참에 하늘높이 서있는 분비나무껍질을 벗기시고 친히 붓으로 조선청년들에게 항일전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구호를 쓰시였다.

숙영지의 밤에 대원들의 군복단추를 달며 어머님께서 부르신 《사향가》의 은은한 노래소리에 애기 별들도 잠을 털고 일어났고 밀림의 바다우에 은하수도 귀기울이며 줄지어 내리였다.

어머님께서 친히 밥을 지으신 자리며 우물자리, 대원들이 숙영하던 천막자리가 특별히 우리들의 이목을 끌었다.

천막가운데 정방형의 통나무들을 만들고 불을 피였다. 천막의 천정복판에 연기 빠지는 구멍을 뚫어놓았고 네가장자리를 긴 통나무로 지질러놓아 진디나, 깔따구, 등에같은 벌레들이 《침습》 못하게 하였으며 우등불을 피운 가운데로 발을 향하게 하고 통나무를 베개로도 사용했었다.

사령부의 식사를 보장하시려고 어머님께서 친히 지피신 밥짓던 자리와 우물자리, 통나무칼도

마만 보아도 얼마나 정연하고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는가를 우리들은 가슴에 새기었다.

일정한 길이로 통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한쪽을 땅에 박아세운 통나무칼도마는 아무리 세차게 칼장단을 쳐도 소리가 땅속으로 찾아들어 도마소리가 멀리 들리지 않는다.

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경각성 높고 규률있는 생활인가!

큰나무 밑 잔디밭가운데 돌을 쌓아 둥그랗고 아담하게 파놓은 우물, 그속에는 맑은 샘물이 고여 있다.

이 모든 생활은 하루를 위해서 바쳐진것이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대부대가 하루밤을 자고가는데 이렇듯 규모있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였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가 규률이 없이는 적과 싸워 이길수 없으며 유지될수도 없습니다. 오직 강철같은 규률을 가진 군대만이 강한 전투력을 가질수 있으며 백전백승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길은 곧 조선혁명을 보위하는 길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삼았던 어머니가 시였기에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 하루밤 자고갈 숙영지였지만 이토록 규모있고 질서정연하게 꾸려놓으셨던것이다.

조국을 빼앗기고 머슴살이 고역속에서 흘러간 어머니의 유년시절은 너무도 참혹하였다.

죽는것이 사는것보다 더 나은 세월이였던 그날의 하루가 어머니에게 가져다준것은 천대와 멸시뿐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유린당한 어머니의 하루는 몸서리 처졌고 10년보다 더 지루했었다.

백두산의 장군별을 우러러보며 그렇게도 마음속에 흠모하여 마지않던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하루가 천금보다 더 귀중한을 심장깊이 자각한 어머니가시였다.

장군님의 품속에서의 하루!

그것은 빼앗긴 조국을 찾는 길이였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였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길이었다.

하기에 어머니께서는 청봉에서의 하루를 이처럼 규모있고 짜인 생활로 보내시였으리라!

청봉숙영지의 하루!

그날엔 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승

리를 확고히 내다본 항일유격대원들이였기에 이렇게 짜이고 규모있는 생활을 할수 있었고 어머니의 손길이 곳곳에 미칠수 있었던것이다.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이미 청봉숙영지의 하루에서 확고히 담보되였다.

청봉숙영지의 하루!

그 하루가 하나같이 이어져 백만대군을 자랑하던 《무적의 황군》을 때려엎을수 있었고 그 하루가 50년대에 옮겨져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았던것이다.

그 하루가 오늘로 달려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빈터우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고 《주체의 조국》에 로동당시대의 대화원이 만발해가는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님께서 보내신 청봉의 하루가 그대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젖어있어 날에날마다 우후죽순처럼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숨은 영웅들의 대오가 늘어가고있다.

숙영지를 다 돌아본 우리는 다시 대기념비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현시비에 새겨진 저 글발은 청봉숙영지에 대한 너무도 소박한 해설문에 불과하다.

우리 인민은 대지우에 억만수로 수놓아 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해도 그날의 그 하루를 다 노래하지 못할것이다.

어머님의 하루!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적개념만이 아니다.

어머님의 하루!

그것은 투쟁으로 찾은 하루였으며 투쟁으로 빛내인 하루였다.

사람들이여!

하루를 값높게 빛나게 살자!

행복할수록 어머니께서 그날에 걸으신 그 하루를 잊지 말자!

청봉숙영지를 찾은 나의 심장은 이렇게 높뛰고 있다.

애석하게도 어머니께서는 너무도 일찌기 우리 곁을 떠나시였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계신다.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힘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며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며...

어머님께서 하루를 보내신 력사의 지점, 불멸의 자욱이 력력한 청봉숙영지는 우리들을 가르친

다.

하루를 살아도 어머님처럼, 한생을 살아도 어

머님처럼!

(청봉속영지에서)

## 영광 빛나는 그 자리에

-대사하치기전투그림앞에서-

강창영

대사하 푸른 언덕우에  
빛나는 어머님의 그 모습  
친위전사의 자세앞에  
내 조용히 다가서면

금시 준엄했던 격전의 그 시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듯  
뜨거움에 목메이는 생각  
아, 대사하  
잊지 못할 전투의 그날이어

얼마나 다급한 순간이었던가  
악착스런 원썬놈들이  
검은 숲에 겹겹이 포위선을 치고  
불의에 악을 쓰며 달려드는데

대사하 불언덕  
위급한 그 한순간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선 장군님곁에  
친위병의 위치를 정하시었나니

그 언제나 장군님 우러러  
충성의 한길을 걸어오시며  
어데서나 따르는 한마음  
뜨거움에 젖어 빛나던 그 눈빛

서슬푸른 눈길로  
원썬들을 쏘아눕히시며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빛발치는 총탄앞에  
한몸 내대신 위대한 어머님이시여

대사하격전의 그 시각  
어머님 지켜서신곳은  
조선혁명 사령부 전조선  
준엄한 그 한순간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선  
꽃피는 조국, 혁명의 미래를 수호하시었나니

아, 한몸 총탄을 막으시며  
원썬치던 격전의 그 한순간에  
어머님께선 정해주셨구나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내가 서고 우리 인민이 서야 할  
영광 빛나는 그 위치를...

가르쳐주시는구나  
영원불멸할 그 모습으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바치는  
전사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하여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혁명전사가 서야 할  
인간의의리의 가장 높은 절정에  
나를 불러 인민을 불러 세워주시며...

## 별

백일호

시내물소리 들릴듯말듯  
삼태성도 기울은  
밀영의 깊은 밤  
어머님 한뜸두뜸  
별을 수놓아가시네

백별의 군복

방금 끝내고  
이제 장군님품에 안길  
신입대원의 군모에  
사랑을 담아 축복을 담아  
어머님 수놓아가시는 오각별

바늘 옮기시면

소꿉도 함께 베이시던  
그 푸른 언덕이 삼삼하고  
바늘 또 옮기시면  
동생처럼 안아키우신 나날이  
어제런듯 어리어와

원쑤의 《토벌》에  
부모형제 빼앗긴 원한  
총탄에 채워주신 사연을 담아  
혁명군의 어엿한 미래로 꽃피워  
아버이장군님결으로 떠나보내시는  
그 기쁨도 담아 새기시는 별

전령병이 되면  
이 별  
끝없는 수림 눈속에서도  
사령부를 곧바로 찾아갈  
해불로 타고르리

신호수되면  
이 별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  
나팔소리 랑랑히 원쑤를 유인할

불사조의 기상으로 솟아오르리

별! 별!  
아버이장군님 세워주시는 그 어데  
시련의 벼랑끝에 나선다 해도  
한마음 태양만을 우러러 받들  
그 한빛으로 불타오르려니

얼마이시랴  
어머님 이렇게 새기고새기신  
별들은  
그 별  
머리우에 이고  
가슴에 새겨안고  
장군님품으로 달려간 충성의 대오는

아, 밀영의 밤하늘 저 멀리  
백두밀림의 설레임인듯  
흘러가는 대오  
김정숙어머님께서 안아키우신  
별의 대하가  
영원한 흐름이 되어  
미래에로 미래에로 굽이치고있었어라!

## 어머님 그리며

오영환

내 나서자란 옛 토성랑에  
락원의 불빛이 황홀할수록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뵈웁던  
김정숙어머님이 더욱 그리워져라

미역감으러 나온 토성랑아이들을  
파헤쳐진 흙더미우에 세워주시며  
어머니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시던  
그날의 그 목소리 귀에 선하구나

내 왜 그때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가  
무릎이 나간 람루한 옷 때문이었던가  
질병에 기를 못피고 자란때문이었던가

아마도 그래서 어머님께선  
더더욱 나의 노래를 듣고싶으셨으리  
해방된 땅에 희망의 나래피고  
가슴설레이는 노래를 듣고싶으셨으리  
하건만 내 끝내 노래를 못부르고

어머님께서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던가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라

아, 내 철들면서 얼마나 후회했던가  
일가친척 찾으시는것도 뒤로 미루시고  
내 사는 토성랑에 먼저 오신 어머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한것을

한이 되누나  
이 나라에 토성랑이 너무도 많아  
끝내 회령땅을 밟지 못하신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조차 올리지 못한것이

놀리고 짓밟혀 살아온 토성랑아이  
세상 향해 한번 소리쳐보라고  
어머님 손잡아 세워주셨던

그 흙무지가 아쉽구나

그것이 어떤 흙이었던가  
홍수에 터졌던 토성랑의 통곡소리  
영원히 영원히 지워버리시려고  
어머님께서 질통을 지고 달리시며  
쌓고 또 쌓으시던 흙이 아니었던가

아, 부암동에서 시작된 그 산길로부터  
천만 준령을 헤쳐오셨건만  
산을 내리시는 그 걸음으로  
또다시 감탕길을 달리시며  
인민의 피눈물을 가져내시던  
그 흙이 아니었던가

생각할수록 아쉽구나  
대학으로 떠나던 날에 심었던 나무들은  
길길이 자라서 여기 설레이고

승리한 병사로 다시 세운 집들은  
물우에 불빛 안고 넘실거리건만  
가슴에 맺혀있는것은 풀길이 없었구나

그 나날이 합치고 합쳐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내 더 많은 일을 하고싶어졌어라  
더 큰 기쁨을 드리고싶어졌어라

보아라 옛 토성랑을  
천리마거리에 이어진 창광거리  
인민문화궁전에 잇닿은 빙상관  
이 모든것을 어머님께선 그날에 내다보시었구나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옛 토성랑을  
어머님 그리며 다시 찾아와  
그날에 부르지 못한 기쁨의 노래를  
내 눈물에 젖이 목메여 부르노라!

## 조국을 부르는 첫 기슭

홍현양

압록강의 유유했던 물결을 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향가소리  
이 가슴에 젖어와라

귀기울이면  
다정한 발자욱소리 들려오는듯  
아름다운 노을속에 어리어오는  
아,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  
기슭에 피어나는  
한떨기 진달래꽃에도  
어머님의 불같은 사랑이 어려있는  
도천리의 산발들

못잊어  
꿈결에도 차마 못잊어  
사향가에 담아  
어머님께서 불러보시던  
그 물소리, 그 향기속에  
나는 안겨있구나

장군님 뜻을 꽃피우시는

충성의 해발이 되시여  
어머님께서 걸으신  
거리와 마을  
조국을 목메여 부르시며 바라보시던  
이 땅 이 하늘가에  
봄빛은 가득차 흐르누나

자지빛 저고리에 수수한 검정치마  
소박한 그 차림새로  
새벽 이슬을 밟으시며  
광복의 해발을 수놓으신 그 걸음  
압록강의 거센물결 넘나드시며  
마을마다 집집마다에  
투쟁의 등불을 밝혀주신 그 손길

귀기울이면  
압록강의 물소리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  
어머님의 숨결이 아직도 뜨거운  
지하공작의 이 거리, 이 강기슭  
걸을수록 목메이는 이 가슴에  
혁명의 뜻을 깊이 새기나니

아, 신갈파나루터여

설음과 피눈물에 젖어  
사람들 조국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던  
이 기슭

장군님을 받드시여  
충성의 해발을 안고오신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려  
오늘은 사람들 모두가  
조국을 부르는 첫 기슭으로 되었구나

아, 력사의 그날  
이 기슭에 첫 자욱을 찍으시며  
어머님께서 목이 메여 불러보신  
조국!  
뜨거운 그 숨결이  
행복한 땅을 밟는  
나의 머리위에  
가없이 푸른 하늘로 펼쳐져있구나

## 영원한 웃음

-김정숙어머님 동상앞에서-

오상홍

동해천리 물결 넘어 왔다고  
그리워 그리던 조국 찾아  
먼길 왔다고  
자애로운 웃음으로  
우릴 안아주십니까

어쩌면  
이처럼 따사로이  
흘러간 그 어린시절  
풀뿌리를 캐시던  
그 언덕위에 서시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맞아주십니까

있을리 있겠습니까  
초가집의 결방살이  
두만강을 건느는  
겨레들의 구슬픈 노래만을 들으시며  
웃음없이 보내신 그 시절을

정든 고향산천을 바라보시며  
어머님께서 망양나루를 건느실 때  
우리도 현해탄에  
망국노의 눈물을 뿌렸던 그 시절을  
잊을수 없어  
웃으시며 안아주시는 어머님앞에서  
그저 뜨거운것이 불을 적십니다.

항일혈전에서  
일제를 죽치시던  
영웅한 모습을 언제나 그려보던 우리의 마음  
오늘도 변함없는 어머님의 그 영상 우러러

눈시울 적십니다.

어머님의 그 미소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모시고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그 기쁨이십니까  
그토록 동지들을 사랑하시며 웃으신  
바다같은 자애의 미소이십니까  
조국해방의 환희의 그 웃음이십니까

주체의 락원으로 활짝 꽃핀 조국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인민들의 웃음속에 높이 받들리어  
오늘도 웃음을 지으시는 어머님

인민의 행복만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어머님이시기에  
통일된 조국에서  
온 겨레가 다 노래할  
앞날을 내다보시며  
영원한 웃음을 지으십니까

그리워  
동해천리 물결건너  
조국을 찾아 먼길을 왔다고  
이처럼 따사로이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어머님

어머님의 웃음은  
우리 인민의 웃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어머님의 웃음은  
온 세계 인민들이 다 따라 웃을

영원한 웃음입니다.

## 지상토론

#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빛나는 예술적화폭

김용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역사로 장식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력사를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풍부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전통의 초석을 이루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수록된 빛나는 역사적사실은 수정할수도 가공할수도 없다.

문학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실재한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에 대한 복사나 실재한 사실에 대한 기록주의적인 전달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역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총서 《불멸의 역사》 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실재한 역사 문헌적기록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그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선 훌륭한 예술적화폭을 창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이룩한 성과는 첫째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빛나는 혁명력사를 사실에 기초하여 충실하게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이라고 하여 생활에 없는것을 아무렇게나 꾸며내서는 안되며 역사적사실을 제멋대로 가공하여 외곡반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가장 빛나고 가장 격동적인 역사적사건들로 가득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역사적사건 하나하나가 문학작품의 감동적인 생활소재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사실자료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응당한 창작적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한해동안에 거둔 중요한 성과는 또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군사정치 활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봄부터 시작하여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믿음직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창설된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에는 혁명조직들이 있고 혁명정권이 있으며 우리 유격대를 성심성의 지원하는 인민들이 있으며 유격대를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수리소, 병원과 같은 후방기지들이 있습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역사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엄혹한 시련과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비범한 령도력과 강철의 의지로 극복타개하시면서 그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숭고한 모습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1933년봄부터 그 이듬해 봄에 이르는 1년간 소왕청근거지인민들의 격동적인 생활을 그리면서 그때에 있었던 거대한 역사적사변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반일연합전선형성을 위한 투쟁, 그리고 역사적인 왕재산회의와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 등 실재한 역사적사변들이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소설의 거의 많은 등장인물들도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실재한 역사적인물들이다.

국제당 파견원 류현민, 온성조직책임자 박수호, 아동단학교 교원 현옥심, 진소명 이들 등장인물들 모두는 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한 실재한 역사적인물들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이처럼 실재한 역사적사건들에 기초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하고 이러한 실재한 인물들로 인간관계를 맺어놓음으로써 혁명소설창작에서 역사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근로자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이룩한 성과는 둘

째로 실재한 역사적사건에 기초하면서도 생활을 풍부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한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풀며 사상을 밝히는것은 예술의 고유한 본성이다. 생활을 담고있지 못한 작품은 역사적서술이나 정치론설보다 못하며 생활을 폭넓게 그려줄 대신에 역사적사건만 라렬하면 기록주의적요유를 면할수 없으며 작품에 생경한 론리만 남게 되어 아무런 예술적감흥도 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폭넓고 풍부하게 그리는것이 언제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역사적사건과 생활은 밀착되어있다.

역사적사건이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지키려는 인간들의 거대한 사회정치투쟁이며 그들의 생활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변은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인민대중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다.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떠난 역사적사건이란 있을수 없다.

역사적사건과 인간들의 생활은 언제나 밀접한 련관속에 있으며 뗄수 없이 밀착되어있다.

이것이 또한 생활을 풍부하게 그려야 할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그러면 실재한 사회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당중앙에서는 문제는 영화에 담은 역사적사건의 의의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며 력사발전의 진리를 얼마나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내는가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였다.

실재한 사회력사적사건에 기초하여 생활을 풍부하게 보여주려면 우선 생활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력사적사건의 담당자이며 창조자인 인간들의 생활세계를 다방면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드는것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 보이고있다.

근거지의 생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생활도 있고 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준엄한 군사생활도 있으며 곡절많은 가정생활도 있고 분여받은 자기 땅에서 결혼식을 차리는 정서적이며 세태적인 생활도 있다.

작품은 이러한 생활을 다면적으로 펼쳐보이면서도 하나의 력사적사건에 력점을 찍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은 밝혀냄으로써 사상적내용의 깊이도 보장하고있다.

근거지내에서 실시된 민주주의적시책은 여러가지였다. 토지개혁도 있었으며 8시간로동제 실시, 남녀평등권법령발포,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실시도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토지개혁에 력점을 찍고 이 하나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실현된 민주개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일반화하여 립증하였다.

실재한 력사적사건을 생활적으로 잘 그리자면 깊은 감명을 주도록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력사의 자욱자욱은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동지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수놓아진 빛나는 자욱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혈전만리도 죽음의 사선도 웃으며 헤쳐온 항일의 혁명전사들이 남긴 이야기 또한 얼마나 충성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차 있는가.

참으로 우리의 혁명문학이 대상으로 하고있는 실재한 력사자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생활소재이다.

그러므로 혁명소설창작에서는 감동적인 생활자료를 취사선택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간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빛나는 사적들을 깊이 파고들어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대정치지도원인 최진동의 희생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애인인 림성실을 달래시는 눈물겨운 장면, 김진세로인과 그의 머느리 윤보금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장면 등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 나오는 모든 감동적인 장면들은 그 좋은 실례들로 된다.

이처럼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생활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자면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감명있게 그려야 한다.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자면 대담한 창조적환상과 예술적허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중앙에서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허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가르치였다.

창조적환상과 예술적허구 이것은 문학작품창작의 일반적인 요구일뿐아니라 력사적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씌여지는 작품인 경우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창조적환상이나 예술적허구가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생활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인 경우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기록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생활을 전형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창조적환상과 예술적허구는 력사적사건의 의의를 강조하고 사회력사적현실에 대한 폭넓은 일반화를 실현한다.



력사서적에는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밝혀진 역사적사건들은 있으나 구체적이며 생동한 생활은 화폭적으로 그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창조적환상과 예술적허구의 도움으로 사회적본질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와 인물들을 형상하게 되며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있는 역사적사건들을 구수하고 감명깊은 생활적인 이야기로, 하나의 산 화폭으로 재현한다.

소설에 나오는 서산동지하조직책임자 박수호에게는 원래 면장을 하는 사촌형이 없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박수호의 사촌형을 면장으로 설정하고 면장 박수호의 운명선을 생활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위대성과 그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역사적인물의 개성적인 성격도 그의 기질적인 측면도 알려주지 않으며 역사책의 폐지우에는 그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진면모가 기록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문학은 산인간을 창조하여야 하며 산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을 독자들앞에 펼쳐놓아야 한다.

이 소설에 나오는 국제당파견원도 오사령도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작품은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뚜렷한 지향을 가진 환상과 허구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구체적인 성격을 부여해주어 산인간으로 형상하였다.

또한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역사적사실을 정연한 예술적구성속에서 집중화, 집약화하여 형상의 밀도를 보장하여준다.

역사적사실들은 일정한 인간관계속에서 호상 밀접히 련관되어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 현상들속에서 혼잡을 이루고있기도 한다.

역사적사건은 작가의 의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산인간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에 맞게 역사적사건을 필연적이며 본질적인것으로 엮어가자면 작가의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

문학작품창작에서는 여러 인물들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들을 한 인간에게 체현시켜 예술적전형을 창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때 환상과 허구는 역사적사실의 본질을 뚜렷이 밝히기 위하여 리용된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는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마종삼로인에게, 조혼문제를 김창억에게 체현시켜 형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근거지안에서의 초기 그

릇된 좌경모험주의적로선, 극좌적인 《쏘베트로선》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동시에 역사적사건이라고 하여 시공간적인 개념도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혁명력사의 본질을 더욱 뚜렷이 살려낼수만 있다면 시공간적인 비약과 예술적가공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소설에는 국내의 반유격구인 온성지구 인민들이 모두가 떨쳐나서 소왕청유격근거지 인민들에게 막대한 원호물자를 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묘사되고있다. 이것은 근거지창설이후시기에 있었던 전형적인 생활의 한 실례이다.

따라서 이 사실이 있는 구체적인 날자와 시간이 역사기록과 어느정도 차이나더라도 해당시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있는것이다.

문제는 항일무장투쟁초시기부터 계속된 국내인민들의 원호사업 그자체를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있다.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인상깊고 의의있는 생활세부를 창조한다.

사회력사적본질에 립각한 생활세부의 창조야말로 창작가의 전적인 예술적권한에 속한다.

만약 역사적사건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만 서술해간다면 그러한 작품을 읽는것처럼 따분한 일은 없을것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림성실의 담배쌈지세부를 비롯한 수많은 전형적이며 표현력이 강한 생활세부들을 탐구선택하여 인상깊게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풍부성과 함께 예술적진실성을 훌륭하게 보장하였다.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리용하여 역사적사실을 풍부하고 감명깊게 그려내는데서 중요한것은 예술적감명을 둔군다고 하면서 역사적사건의 본질을 외곡하여서도 안되며 역사적사건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예술적허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서도 안된다는것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이 두가지 편향을 다 같이 극복하면서 예술적허구리용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풍부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린 특출한 성과작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작가들에게는 혁명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제반미확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창조경험을 주고있다.

## 백암니탄

김덕철

봉주는 군소조책임자방에 혼자 앉아있었다. 남색다후다직숨옷을 입고 노란 나일론 머리수건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있는 그의 균형 잡힌 탐탁한 몸매와 해별에 보기 좋게 그윽은 살갗은 늘 벌에 사는 농장원처녀를 방불케 했다.

봉주는 책상위의 전화기며 벽에 걸려있는 군농장배치도를 바라보다가는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곤했다. 소조책임자가 오지 않나해서였다.

봉주는 풍정리에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사업하다가 열흘전에 재현리로 조동되어갔다. 군소조지휘부에서 재현리를 추켜세우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했던것이다.

봉주는 오늘 읍에 있는 전동기공장에 왔던 길에 군소조책임자에게 요즘 자기 사업정형을 보고하려고 들렀다.

종합지도원이 봉주에게 책임자가 어데 잠시 나갔는데 인차 돌아오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래서 봉주는 지금 책임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때 문밖에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봉주가 열결에 《예》하고 대답하자 문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한 처녀가 들어왔다. 경애였다. 경애는 열흘전에 풍정리에서 봉주의 사업을 인계받은 새로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 온 처녀였다.

《경애 어떻게 왔어?》

봉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애의 두손을 반갑게 마주잡고 흔들었다.

《저...》

경애는 숨이 차서 할딱거렸다.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다.

무슨 일때문일까?

빨갳게 상기된 그의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쳐있었다.

봉주는 경애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아래턱이 동실한 경애의 얼굴에 그 어떤 흥분과 걱정이 무겁게 실려있는것 같았다.

《책임자동문 어데 갔어요?》

경애는 몹시 초조해하는 기색이었다.

《이제 인차 와,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언니 우리 기사장이 또 백암니탄을 가지러 떠

났어요.》

《뭐?! ...기사장이 또 백암니탄을 가지러 갔다구?》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였다. 봉주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슴속에서 주먹같은것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정말이야?》

경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러나 봉주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경애의 말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기사장동문 언니가 떠나자 올해는 관리위원장도 병원에 입원하고 벌려놓은 일도 많아서 전반적인 로력사정이 긴장한데 그걸 풀자면 백암니탄을 꼭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팽상모판에 부을 침엽수부식으로 강냉이영양단지를 찍게 하고 내가 새땅찾기를 하는 곡구산등성이에 가있는 사이에 백암으로 떠났어요.》

경애는 이렇게 말하고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봉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하지만 속은 불을 지핀 솔처럼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영도기사장이 백암으로 니탄을 가지러 가다니. 어쩌면 그럴수 있단말인가? 그 기사장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던말인가? 이 소식을 들으면 병을 치료하는 관리위원장이 얼마나 조급해하겠는가?)

봉주의 눈앞엔 금년도 농사준비를 근심하여 몇번이나 떠나는 구급차에서 억지로 내려서며 입원하지 않겠하던 관리위원장의 열기띤 얼굴이 떠올랐다.

봉주의 가슴속에서는 욱되고 야속스러운 감정이 밀물처럼 세차게 거슬러올랐다. 하지만 그 마음을 경애에게 내보이지 않으려고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였다. 그러자니 여간만 피롭지 않았다.

《기사장동문 언제 떠났어?》

《나보다 한시간 먼저 떠났어요. 아마 12시 차를 탈것 같아요.》

봉주는 재빨리 자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1시 40분이였다. 그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아직도 출발시간까지는 20분이 남아있었다.

《내 역에 가서 동무를 못떠나게 할테니 경애는 빨리 농장에 돌아가서 침엽수부식으로 강냉이영양단지를 더 찍지 못하게 해야겠어.》

봉주는 머리수건을 손에 쥔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잠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던 경애도 휘파라 나쳤다.

아침까지만 하여도 제법 봄이 온듯 따뜻한 햇빛이 대지를 포근히 어루만지더니 갑자기 바람이 터졌다. 여우도 눈물을 짖는 왜바람이었다.

찬기운이 살품으로 파고들었으나 역전을 향해 달려가고있는 봉주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탄내가 나면서 숨이 차졌다. 윤택이 도는 봉주의 까만 머리카락이 귀밑에서 세차게 나뭇거리고 이마와 뺨으로는 어느새 땀이 흘러내리었다.

(기사장이 정말 그런 사람일가? 그렇지만 경애가 잘못 볼수야 없지 않은가?)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지난 2년동안 풍정리에 서 있었던 일들이 선히 떠올랐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봉주가 풍정리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 온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허영도기사장이 자기네 농장 특산물인 마늘을 한자동차 싣고 백암니탄을 가지러 떠났다. 봉주는 기사장이 굳이 만류하는것을 마다하고 함께 떠났었다. 백암니탄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해하는 관리위원장이 주는 과업을 받고 떠나는 기사장을 조금 이라도 돕고싶어서였다.

풍정리에서는 백암니탄이 없으면 령상모를 부을수 없었다. 석회석지대인 풍정땅은 령상모를 부으면 벼종자가 싹트지 않고 그대로 썩어버리는가 하면 싹이 튼다고 해도 벼모가 세잎을 넘기지 못해서 모두 노랑게 말라 죽어버렸다. 그러나 백암니탄을 가져다 모판에 펴고 령상모를 부으면 토양을 중화시키는바람에 벼모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자랐다. 그래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꾼들은 새해 농사차비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백암니탄을 빨리 가져와야겠는데...》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곤했다. 봉주는 풍정리에 온지 며칠되지 않는 사이에 벌써 그런 일을 여러번 목격했었다.

《소조원동무, 백암니탄을 가져다 쓰기전에 우리 농장은 백리가 넘는 송흥리에 가서 령상모를 붓고 모내기를 했소. 령상모를 붓기 위해 종곡과 거름을 실어가고 또 벼모를 운반해다 모내기를 하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소. 그러나 이젠 얼마나 험해졌는지 모르오. 그야말로 거저 먹는셈이오.》

허영도는 기분이 좋았다. 일부러 운전칸에 앉지않고 적재함우에 올라탔다. 새로 온 소조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던것이다.

자동차는 들추며 산골길을 달렸다. 그것도 제맛이었다. 진동은 오히려 이야기에 흥을 돋구어 주는것 같았다. 허영도의 말은 끝이 없었다.

《우리 농장은 이 몇해 어간에 백암니탄사업소

신세를 정말 많이 지고있소. 내 그래서 이번에 그 신세갚음을 좀 하자구 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하여 마늘을 가지고 떠났소. 까놓고말해서 우리 농장 특산물을 뒀다 어데다 쓰겠소? 이럴 때 좀 써야지. 가는 정이 오는 정이라고 그게 다 의리이고 도덕이 아니겠소. 소조원동무, 그렇지 않소?》

봉주는 그저 방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허영도의 그 너그러운 《성품》이 은을 냈는지 백암니탄사업소에서는 풍정리에 니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천톤이 훨씬 넘는 니탄을 백암에서 300리나 되는 풍정리까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운반했다. 기차방통으로 실어온것을 군에서 또 많은 자동차와 트랙토르를 동원하여 날라주었던것이다.

군에서는 풍정리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여 매해 백암니탄이 역에 도착하면 군적인 지원사업을 조직했다. 그바람에 풍정리사람들은 앉은자리에서 령상모를 키울수 있었다.

기사장이 백암니탄을 가져오자 농장원들은 울해 농사는 또 장훈을 불렀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봉주의 마음은 가엽지 못했다.

(우리 풍정리의 농사때문에 얼마나 나라에 부담을 주는가? 만약 풍정리에 가져오는 니탄을 다른 필요한곳에 보내주고 니탄을 실어오는 기차방통과 자동차, 트랙토르들도 다른 일을 하게 한다면... 다른것으로 백암니탄을 대용할수 없을까?)

봉주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줄곧 맴돌았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어느날 다른 일로 곡구령에 올라갔던 봉주는 백암니탄을 대용할수 있는 부식토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봉주는 그 길로 허영도기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봉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허영도는 시들하게 한마디 하고나서 봉주의 기색을 살피며 말을 계속했다.

《소조원동무, 공연한 생각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소. 우리도 할짓은 다 해보았소. 몇해전에 관리위원장이 제기하여 과학원도분원에서까지 사람이 내려왔다가 그냥 가고말았소.》

봉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인차 자기를 다잡고 말했다.

《기사장동무, 그러다 제가 성공하면 어찌겠어요?》

《내가 두귀를 잡고 소조원동무한테 절을 하겠소.》

《정말이에요?》

《정말이 아니구, 허허...》

그해봄에 봉주는 시험포전을 만들었다. 백암니

탄대신 부식토를 만들어 퍼고 령상모를 부었다. 그리고는 모관관리를 정성껏했다. 관리위원장도 짹짹히 모관으로 나와 봉주를 도와 온도와 습도를 봐주곤하였다. 봉주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시험포전에 첫순이 돌아왔다. 령상모는 한대도 죽지 않고 일매지게 푸르싱싱해졌다.

모내기를 며칠 앞둔 어느날, 봉주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허영도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을 시험포전으로 데리고 나갔다. 관리일군들은 충실하게 자라난 벼모를 보고 입을 딱 벌렸다. 풍정리의 첫 경사였다.

《소조원동무, 정말 수고했소. 우리도 이젠 소조원동무 덕분에 백암니탄 신세를 지지않게 됐소.

참, 허영도동무가 소조원동무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겠구만.》

그 말에 줄대같은 벼모를 뽑아들고 대전스레 바라보던 허영도가 정말 두귀를 잡고 봉주에게 절을 하려고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그르르 쏟아졌다. 오히려 봉주의 얼굴이 빨개졌다.

《기사장동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봉주는 기뻐서 생글생글 웃었다.

시험포전의 가을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았다...

봉주가 숨이 턱에 닿아서 역사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흠으로 나가고있었다.

줄을 선 사람들속에서 데트론숨옷을 입고 삼면자크가방을 끼고 서있는 허영도기사장을 발견한 봉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기사장동무!》

봉주는 넘어질듯 달려갔다.

허영도가 고개를 돌렸다.

그순간 허영도는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봉주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인차 낫색을 바꾸며 유연한 미소를 지었다.

《소조원동무가 어떻게?... 어데 가시려요?》

《... !!...》

봉주는 말을 못했다. 그는 해별에 타서 검스레한 기사장의 얼굴을 아리송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허영도는 뭔가 짚이는것이 있는지 눈길을 슬그머니 판데로 돌려버렸다.

《기사장동무가 또 백암으로 가신다는게 정말이예요?》

봉주는 못미더워하듯 폭 가라앉은 음성으로 침착하게 물었다. 한동안 봉주를 묵묵히 지켜보던 허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봉주는 가슴이 후두둑 떨려나면서 숨쉬기가 가빠졌다. 기사장에 대한 믿음이 삽시에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말았다.

《기사장동무, 어쩌면...어쩌면 이럴수가 있어요? 난 기사장동무가 그런 사람인줄은 정말 몰랐

어요.》

봉주는 너무 흥분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흠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의혹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돌아다보았다.

《허허 참. 소조원동무 이러지 마오. 남들이 보면 무슨 큰일이나 있는가 하겠소.》

허영도는 너그럽게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어성을 좀 낮추어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백암에 가고싶은 생각이 없소. 그러나 어찌겠소. 소조원동무도 알다싶이 지난해 백암니탄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부식토를 자체로 생산해서 령상모를 붓다가 로력사정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소. 하마트면 령상모를 제기일에 붓지 못할번하지 않았소. 그런데 올해는 새땅찾기와 다락밭건설까지 겹쳤으니 남은 로력과 트랙토르가 어데 있어서 그 일을 다해내겠소? 또 관리위원장도 계시지 않아... 헤, 지금은 내가 우리 농장의 세대주인데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야 될게 아니요. 그래서 내 생각다 못해 금년 한해만 더 백암니탄 신세를 지자고 마음먹었소.》

봉주는 허영도의 검스레한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그의 속심을 뻔히 들여다볼수 있었다.

《기사장동무, 일이 좀 어렵다고 그런식으로 예비를 찾아서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사장동무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나라의 부담을 어떻게 덜수 있겠습니까?》

봉주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심각하게 말했다. 그러나 허영도는 우선우선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소조원동무. 그렇지만 이제야 어찌겠소. 차표까지 샀는데.》 하고 손에 쥐고있던 차표를 내보였다.

《손님, 렬차가 도착했는데 빨리 개찰하라고.》

이미 개찰을 끝내고 허영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던 안내원처녀가 총알같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나갑니다.》

허영도는 개찰구밖에 한발을 내놓고 봉주쪽으로 다시 얼굴을 돌렸다.

《소조원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오. 우리 농장 농사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으니 소조원동무는 제발 마음을 놓소.》

허영도는 말을 끝내기 바쁘게 안내원한테서 차표를 짚어가지고 흠으로 창황히 달려나갔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듯이 서서 기사장의 뒤모습을 망연히 지켜보던 봉주는 그를 절대로 백암에 가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허둥지둥 뒤따라나갔다.

흠은 렬객들로 붐비였다.

흠에 들어선 렬차는 갈길을 재촉하는듯 기적소

리를 울리었다.

집보따리를 든 사람들속을 헤치며 달려가던 봉주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렬차의 어느 한 승강대로 급히 올라가는 허영도의 모습이 사람들의 머리위로 보였기때문이었다.

《뽕-》 어느새 손님들을 다 태운 렬차가 다시한번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영도의 모습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봉주는 그 렬차가 자기한테서 가장 귀중한것을 뚝 떼어 싣고 가더라도 한것처럼 가슴속이 허전해졌다.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점차 속력을 내며 달려가는 렬차를 지켜보는 봉주의 크고 검실한 두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펴 피어올랐다.

봉주는 읍에서 20리나 되는 풍정리까지 자기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로지 풍정리에 빨리 가서 경애를 도와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꼭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그는 20리 길을 숨찬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단숨에 달려왔다.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 두그루가 쌍둥이처럼 서있는 풍정리관리위원회마을어귀에 이른 봉주는 잠시 숨을 돌리느라고 걸음발을 늦추었다. 목욕탕에서 나온것처럼 빨갛게 혈색이 좋아진 봉주의 얼굴에서 땀이 줄지어 흘러내리고 봉긋한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리었다.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문지른 봉주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이때 마을쪽에서 날아온 까치 두마리가 자기둥지가 있는 백양나무우듬지에 와 앉아서 꼬리를 축삭거리며 각각 울어댔다. 마치 봉주가 와서 반갑다고 인사나 하듯이-

까치들을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는 봉주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방긋이 미소가 피어났다. 봉주는 그 까치들로 하여 잠시나마 자기 시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던것이다.

풍지를 들까불며 울어대던 까치들은 봉주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기라도 하려는듯 다시 마을쪽으로 날아갔다.

봉주의 눈길은 조금 사이를 두고 팔매돌처럼 날아가는 까치를 따라 마을쪽으로 옮겨졌다. 그 순간 방금 날아오를듯이 추녀를 공중으로 추켜든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마을쪽으로 곧추 뻗은 길을 본 봉주는 그 어떤 긍지와 자랑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봉주가 처음 이 농장마을에 왔을 때 문화주택이 저렇게 산뜻하지 못했으며 길도 지금처럼 넓고 곧지 못했다. 그런것을 봉주가 관리위원장을 도와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지금처럼 번뜻하게 만들어놓았던것이다.

봉주가 풍정리에 와서 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만드는 일도 앞장에 서서 했고 담배건조장도 큼직하게 새로 지었다.

했으나 봉주의 마음은 인차 무거워졌다. 그동안 자기가 소조원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쓰라린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고 들었기때문이었다.

자기는 풍정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했었다. 허영도기사장이 자기가 풍정리를 떠난지 열흘만에 다시 백암으로 간것도 바로 그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사람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의 심장마다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면 허영도기사장도 백암으로 가지 않았을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봉주는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바라는대로 일하지 못한 자기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으로 하여 가슴이 막 찢기는것처럼 쓰리고 아파났다.

한동안 까치가 날아간 마을쪽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에 잠겨있던 봉주는 저쪽 등성이를 넘어 온 경애가 파수원아래에 있는 1작업반 2분조 모판자리로 가는것을 보고 자기도 그리로 곧추 걸어 올라갔다.

벼짚바자를 둘러친 모판자리밖에서 김태식분조장이 자기네 분조원들과 같이 강녕이영양단지를 찍고있는 모습이 보이자 봉주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봉주가 작업장에 갔을 때 이미 농장원들은 일손을 놓고 시뻘뻘한 얼굴로 맥없이 앉아있었다. 경애가 이마살을 잔뜩 찌프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김태식분조장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있었으나 태식분조장은 어째서인지 먼산만 쳐다보았다.

《안녕들 하세요?》

봉주는 밝게 웃으며 학생때처럼 두발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봉주소조원이로구만.》

《아유 정말 우리 소조원이네. 난 이젠 영 못보느줄 알았더니 또 뵙니다레.》

농장원들이 너도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와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헤어진지 열흘밖에 안되지만 몇년이나 멀어져있다가 만나기라도한것 같았다.

《왜 못보겠어요. 멀리 간것도 아닌데.》

봉주는 이렇게 말하며 김태식분조장과 경애가 서있는쪽에 눈길을 주었다.

태식분조장은 봉주와 눈길이 마주치자 빙글썩 웃으며 뒤로 제껴쓴 모자채양을 약간 들었다 놓았다.

봉주를 보고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나타났던 경애의 얼굴에 인차 미안해하는 빛이 굵시르기 시작했다. 봉주가 어째서 혼지 왔는지 인차 깨달은 모양이었다.

봉주는 그러는 경애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김태식분조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분조장동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사장이 백암니탄을 가져다준다면서 이 부식으로 강녕이영양단지를 빨리 찍으라기에...》

김태식분조장이 변명 비슷이 말하고는 손바닥으로 뒤더수기를 어루만지었다.

봉주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믿었던 태식분조장한테서까지 그런 말을 듣는것이 섭섭하고 분해서 가슴이 더 아팠다.

김태식분조장은 성격이 좀 과격한데가 있기는 하나 정열도 있고 의협심도 있는 좋은 청년이었다.

봉주는 풍정리에 있는 기간 매일밤 강사가 되어 농장에 있는 고등농업전문학교 통신생들의 학습을 방조해주었는데 태식분조장도 그 통신생들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봉주의 도움으로 두해째나 통과시키지 못해 애를 먹던 외국어와 수학 과목을 통과 시켜서 금년초에 준기사자격증을 받았던것이다.

《난 분조장동무까지 이렇게 행동할줄은 정말 몰랐어요.》

봉주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절절하게 울리었다. 그러자 태식분조장은 억울한듯 못마땅스러운 눈길로 봉주를 흘끔 치며보았다.

《기사장이 지시를 하는데 분조장이 어찌겠소.》

《아무리 기사장의 지시라 해도 옳고 그른거야 왜 분간 못해요?》

《나도 제기했땀수다. 그런데 내말이 어디 통하오?》

《원칙적으로 투쟁하는데 왜 통하지 않겠어요.》

《소조원동무가 없으니 다우다.》

분조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사람을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우리가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나라에 부담을 적게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슨 주인공다운 태도예요?》

봉주의 조용하면서도 절절한 목소리는 예리한 비수처럼 태식분조장과 농장원들의 가슴을 찌르고 들었다.

묵묵히 앉아 애꿎은 담배만 뽕뽕 빨던 태식분조장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피우던 담배를 획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옳소, 소조원동무의 말이 옳수다.》

태식분조장은 이렇게 말하며 강녕이영양단지를 찍어놓은곳으로 썩 가더니 아직 마르지 않은 강

녕이영양단지를 발로 마구 짓몽개여 부식토더미에 떠던졌다.

봉주가 태식분조장한테로 달려가서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분조장동무 왜 이래요?》

《랭상모를 붓자면 부식토가 있어야 할게 아니요.》

《그렇다고 강녕이 영양단지를 찍어놓은건 마스면 어찌겠어요. 여기에도 농장원들의 땀이 스며있지 않아요. 분조장동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식토를 생산작업장에서 운반해오자요. 강녕이영양단지를 찍자면 아직도 부식토가 많아야겠는데 며칠동안 전투를 벌려서 그 모자라는것을 모두 확보해놓자요.》

김태식분조장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있던 분조원들이 한마디씩 했다.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인데 소조원동무의 말대로 하는것이 좋겠수다.》

《옳아요. 그렇게 하자요.》

《지난해도 백암니탄을 가져오지 않고 랭상모를 부었는데 올해라고 왜 못하겠소. 우리가 밤잠을 좀 덜자고 일을 다그치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수다. 백암니탄을 가지려 간것이 잘못이지.》

봉주는 농장원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랐다.

《잘 생각들 했어요.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모자라는것은 부식토생산작업장의 부식토를 운반하여 강녕이영양단지도 빨리 찍고 랭상모도 붓자요. 그래서 올해도 농사를 잘 지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요.》

분조원들은 뜨거운 눈길로 봉주를 바라보았다. 경애의 얼굴도 잘 닦아놓은 늦접시처럼 밝아졌다.

이른 봄의 하루해는 빨리도 저물어지고 날씨는 더욱 차졌다.

그러나 부식토를 싣고 달려가는 트랙토르의 경쾌한 동음과 함께 다락발건설장과 새땅찾기작업장에서 지칠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명량한 웃음소리로 하여 산등성은 흥성거리고 있었다.

봉주는 트랙토르에 또 부식토를 한차 듬뿍 실어보내고 나서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었다. 정든고장 정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봉주에게는 전에없이 즐겁고 흐뭇하게만 생각되었다. 봉주가 처음 생각했던것보다 일도 많이 했고 농장원들의 사기도 높았다.

낮에 경애의 발기로 새땅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에 있는 원천을 모두 찾아서 부식토생산도 있는 힘껏 다우쳤을뿐만아니라 다락발건설장에 돌을 실어나르는 트랙토르들이 짐을 부리고 돌아

갈 때 무조건 부식토를 싣고 가도록 조직사업을 했다. 새땅찾기를 하는곳과 부식토생산작업장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게 해도 자기일에 그닥 지장이 없었다.

그랬더니 프락포르와 로력을 더 들이지 않고도 벌써 많은 부식토를 생산운반했다.

(허영도기사장은 아직 젊었지만 나이에 비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는 일꾼인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고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것은 이곳 풍정리에서 일하다가 떠난 자기자신의 피로움이기도 했다.

봉주는 고개를 쳐들고 별들이 하나둘 돌아나서 빛을 뿌리기 시작한 먼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작업복깃우에 드러난 귀밑이 싸늘하였다. 봉주가 바라보고있는곳이 바로 허영도기사장이 가있는 백암쪽 하늘가일지도 몰랐다. 그곳은 풍정리보다 지대가 훨씬 높으니 마지막겨울이 용을 쓰고있을것이다.

불현듯 봉주의 눈앞에는 열차에 오르던 허영도 기사장의 추워서 파랗해졌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직도 젊은 혈기에 멋부리기를 펴 좋아하는 허영도기사장은 숨외투를 언녕 벗어던지고 얇은 데트론숨옷밑에 목을 길게 짠 흰양털내의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그것도 입은것 같지 않았다.

(날씨가 갑자기 차지는데 기사장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까?)

봉주는 부지중 갈마드는 걱정애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새땅찾기를 하고있는 작업장에서 또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아마도 경애가 우스개소리를 한것 같았다. 봉주는 자기가 오늘 풍정리로 온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전화로 군소조책임자에게 오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더니 군소조책임자도 잘했다고 하면서 재현리 일은 걱정말고 풍정리 일이 바로 잡힐 때까지 거기 남아서 경애를 잘 도와주라고 했었다.

《소조원동무, 힘들지요?》

봉주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김태식분조장이 얼굴에 내뿜친 비지땀을 수건으로 훔치며 봉주한테로 가까이 걸어오고있었다.

《난 일없어요. 그런데 분조장동무가 수고하누만요. 정말 힘들겠어요.》

봉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 나도 일없습니다.》

김태식분조장은 이렇게 말하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깊은 자책이 담긴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일을 잘하지 못해서 소조원동무가 정

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봉주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곱이 화끈해졌다. 그는 뜨거울것을 목젖밑으로 내리누르며 땀에 젖은 김태식분조장의 얼굴을 정답게 쳐다보았다.

《아니예요. 내가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소조원동무가 뭘 잘못했단말이요? 이번 일은 전적으로 기사장동무한테 잘못이 있소. 그리고 기사장동무와 투쟁하지 못한 내 잘못도 크요.》

《분조장동무, 자기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요. ... 그런데 참 분조장동문 통신대학에 입학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있어요? 공부를 좀 해요?》

《저... 좀 하기는 하는데 시원하게는 못합니다.》

《할바에야 잘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소조원동무가 없으니...》

김태식분조장이 어쭙게 웃으며 버릇처럼 손바닥으로 뒤더수기를 어루만지였다.

《내대신 경애동무한테서 방조를 받으면 되잖아요. 경애동문 대학전기간에 10점최우등을 한 동무예요. 내 가기전에 경애동무한테 부탁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태식분조장은 감사의 정이 넘치는 눈길로 봉주의 얼굴을 따듯이 바라보았다.

이때였다.

《태식분조장동무-》 하고 부르는 녀자의 쉼쉼한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의 대기를 뒤흔들며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누구요?》

태식분조장이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주 소리쳤다.

《여기 있는걸 계속 찾았네.》

잠시후 한 처녀가 그들한테로 달려왔다. 농장 회계원처녀였다.

《분조장동지, 기사장동지가 백암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마늘을 빨리 가져와야 니란이 해결될수 있다나봐요.》

《흥! 좌우간 한심하군.》

김태식분조장이 크게 코방귀를 끼고는 봉주를 쳐다보았다.

봉주는 안도의 숨을 호- 내쉬었다.

그도 그럴것이 백암에 간 허영도기사장이 니란을 인차 해결받아서 기차방통에다 실으면 어쩔가 하고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는데 이젠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때문이었다.

《빨리 나하고 같이 가자요.》

회계원처녀가 재촉했다.

《소조원동무, 내 인차 관리위원회에 갔다오겠소.》

태식분조장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뒤로 돌

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서있는 봉주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처음 풍정리에 와서 마늘을 실은 자동차를 타고 허영도기사와 같이 백암으로 가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그때 허영도기사는 봉주에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하면서 농장특산물인 마늘을 니탄사업소에 가져다주는 것을 하나의 의리이며 도덕이라고 말했었다. 봉주는 그 때 기사의 이 말을 무심히 지나쳐버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리이며 도덕이겠는가? 봉주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아니다. 그것은 일을 쉽게 해먹으려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다.

봉주는 농장특산물이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험하게 해먹으려는 허영도기사의 그 낡은 사상 찌꺼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조장동무, 잠깐만!》

태식분조장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봉주한테로 돌아섰다.

《분조장동무, 내가 가겠어요.》

《아니 일없습니다. 내가 인차 갔다오겠습니다.》

《아니예요. 내가 가야 해요. 난 관리위원회에 들렀다가 백암으로 가겠어요.》

《아니?! 소조원동무가 이제 백암으로 가겠단 말이에요?》

김태식분조장의 두눈은 삽시에 둥그레졌다. 회계원처너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그래요. 내가 마늘대신 백암으로 가겠어요.》

언제 떠올랐는지 굴쪽같은 달이 조각구름장들 사이를 누비며 빨리 헤엄쳐가고있었다.

허영도는 니탄사업소 수직실에서 마늘을 싣고 오는 자기네 농장 자동차를 기다리다 못해 밖으로 나갔다.

바깥 날씨는 차고 맵찔다.

이곳은 해발 천오백미터가 넘는 높은 지대여서 아직도 음달진곳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있었다.

니탄사업소마당을 벗어난 허영도는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져있는 등성이우로 걸어올라갔다. 그의 머리우로는 니탄을 화물역으로 실어나르는 삭도바가지들이 공중에 둥둥 매달려서 쉬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허영도가 앞이 잘 내다보이는 등성이우에 올라서니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가 쓰고있는 모자를 벗겨보려고 지긋게 성화를 부리기도 하고 옷자락을 마구 잡아흔들기도 했다.

허영도는 데트론솜옷을 입기는 했으나 바늘처럼 온몸으로 찌르고 드는 찬기운에 그만 으스스 몸을 떨었다.

그는 양털내의를 입고오지 않은것을 속으로 후

회하며 솜옷깃을 우로 세워놓았다.

그리고는 백암역쪽으로 구불구불 뻗어간 길을 멀리까지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혹시 자기네 농장 자동차가 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길에는 자동차처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허영도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그가 지금 마늘을 싣고올 자동차를 이처럼 안타깝게 기다리고있는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허영도는 어제 니탄사업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판매과장을 만났다.

《풍정리기사가 어떻게 왔소? 난 이젠 우리를 영 잊어버렸는가 했더니 잊어버리진 않았구만.》

갱긋한 얼굴에 두눈이 팽이처럼 돌아가는 판매과장이 허영도의 손목을 반갑게 잡아서 흔들어서며 기뻐했다.

《과장동무 내가 왜 잊어버리겠소. 난 여기를 우리 큰집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यो.》

허영도는 시람 좋게 웃어보였다.

《큰집?... 하하... 전에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야 작은집만치라도 생각하겠소?》

《아하, 무슨 말씀올...》

허영도는 판매과장이 당치않은 말을 한다는듯 미간까지 찌프려보였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소? 어데 가다 들렸소? 아니면 여기 무슨 다른 불일이 있어서 왔소?》

판매과장이 인차 화제를 돌렸다.

《나야 과장동무를 만나러 왔지 무슨 다른 일이 있겠소.》

《나한테 불일이 있어서 왔단말ियो? 나하고는 회계가 미진된게 없겠는데...》

판매과장이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과장동무, 뭘 회계하자고 온게 아니라 니탄을 가지러 왔소.》

《니탄을요?!》

판매과장이 놀라움에 찬 눈길로 허영도를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허영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보이며 씨물씨물 웃었다.

《아니 작년엔 우리 니탄이 아니고도 뺑상모를 붓지 않았소?》

《붓기야 했지.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오? 지난해에 백암니탄을 가져가지 않고 뺑상모를 붓다가 우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소. 그래서 내 올해에 또 과장동무를 이렇게 찾아왔소.》

그러자 판매과장이 정색했다.

《영도기사장동무가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니탄은 줄수 없습니다. 근년에 우리 니탄이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바람에 여러 공장에서 가져가다니니 계획에 물리지 않은것은 한톤도 주지 못합니다.》



허영도는 가슴이 덜컥했다. 니란을 문제없이 가져갈것으로 예견하고 평상모를 벗자던 침엽수 부식으로 강녕이영양단지를 찍으라고 지시하고 왔는데 니란을 가져가지 못하면 무엇으로 올해 평상모를 벗는단말인가? 것처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안심 못하고 떠나는 관리위원장에서 금년 농사는 내가 책임지고 풍작을 거둘것이니 근심을 말라고 장담해나선 그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니란을 가져 가야 했다.

《과장동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큰 니란 사업소에 그래 우리 농장에 줄 니란이 없겠소? 그거야 과장동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달렸지.

그렇지 않소? 과장동무!》

허영도가 선웃음을 웃으며 너스레를 피웠으나 판매과장은 면도칼처럼 썩 잘라버렸다.

《암만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지난해처럼 자체예비를 찾는것이 좋겠습니다.》

허영도는 담배를 꺼내어 판매과장에게 권하기도 않고 자기 혼자 피워물었다. 그리고는 서너모금 련속 들이빨았다.

판매과장은 그러는 허영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

《과장동무 너무 그러지 마요! 이건 영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구만.》

허영도는 자못 섭섭한 어조로 말하고는 판매과장을 야속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러자 판매과장도 글쓰던것을 멈추고 허영도를 마주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내 이 말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겠소. 난 요즘 우리 사업소에 찾아와서 니란을 부식으로 쓰겠다고 달라는 사람들에게 풍정리 이야기를 해주면서 국가적립장에 서서 주인답게 일하는 풍정리관리위원회 동무들을 칭찬했소. 그런데 이제와서 풍정리에 다시 니란을 주면 어떻게 되겠소? 니란도 없긴 하지만...》

허영도는 그 말까지 듣고나니 숨이 다 막히는 것 같았다. 일은 정말 난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물러설수는 없었다. 자기가 니란을 가지고 못가면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허영도였다. 하기에 그는 구차스러운대로 다시 사정하는수밖에 없었다.

《과장동무, 제발 한번만 내 사정을 봐주요. 내 그 값은 후하게 갚겠소.》

했으나 판매과장은 그 말을 못듣기라도 한것처럼 머리를 수긋하고 앉아서 자기 일만 계속했다.

허영도의 속은 기름가마처럼 빠질빠질 타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진땀이 내배였다. 허영도는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주근주근 닦아냈다.

이때 책상위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야단스레 종을 울렸다. 판매과장이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차 가겠습니다.》

판매과장이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허영도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참모회의에 빨리 오라누만.》

그리고는 책상우를 대충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동무!》

허영도는 판매과장이 니란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갈가봐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정 이러겠소?》

《나도 영도기사업장동무의 사정을 들어주고싶지만 니란이 없는거야 어찌겠소. 어서 나갑시다. 회의에 늦겠소.》

판매과장은 몸으로 허영도를 밀며 문쪽으로 걸어갔다. 허영도는 하는수없이 문밖으로 밀려나오 고말았다.

판매과장이 문에 주먹만한 자물쇠를 절걱 채웠다.

《기사업장동무,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되었수다. 그럼 난 바빠서...》

판매과장은 허영도에게 히죽이 웃어보이고 급히 걸어갔다.

허영도는 그 어떤 분함과 모욕감으로 하여 속이 끓어번졌으나 어찌는수가 없었다. 자기로 하여 빚어진 일이니 누구를 탓할수도, 원망할수도 없었다.

어둠에 싸인 니란사업소앞마당에 맥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허영도의 모습은 자못 처량해보이기 까지 했다.

(이젠 어찌면 종단말인가? 이대로 그냥 돌아갈수야 없지 않은가? 아, 그래 니란을 가져갈 방도는 정녕 없단말인가?)

그 순간 허영도의 머리속에는 마늘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농장에서 마늘을 빨리 가져다 《사업》만 잘하면 아직도 니란을 가져갈수 있을것 같았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짚오레기를 붙잡는 격이었다.

허영도는 그 즉시 농장에 전화를 걸어서 마늘을 빨리 실어보내라고 지시했다.

책임성 높은 회계과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것만큼 자동차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는 약속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안올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자동차를 떠나보내지 못했을까? 아니면 오다가 자동차에 고장이 생긴거나 아닌지?...)

이런 뒤숭숭한 생각에 잠겨서 앞을 바라보던 허영도의 얼굴이 금시 환해졌다. 거기서 자동차 한대가 오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 자동차가 마늘을 싣고오는 자기네 농장 자동차라고 단정한 허영도는 너무 좋아서 병글병글거리며 아이들처럼 어쩔바를 몰라했다.

(올려면 좀 빨리 올것이지 사람의 속을 이렇게 태우는 법이 어데 있담? 그런데 속도가 왜 저렇게 뜰가?)

허영도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동차를 맞받아 걸어갔다. 자동차만 보며 걷다가 돌부리를 차고 하마트면 넘어 질뻔했다.

그러나 자기앞으로 가까이 온 자동차를 본 허영도는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그리고는 낮익은 사람처럼 자동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기네 농장 자동차가 아니었다.

자동차는 허영도에게 뽀얀 먼지를 들썩워주고는 고개길로 숨가쁘게 치달아오르고있었다.

허영도는 온몸에서 맥살이 탁 풀리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싶었다.

날씨마저 더 추워졌는지 몸이 우들우들 떨리기 시작했다.

허영도의 입술은 얼어서 퍼래보였다.

이때였다.

허영도는 누가 《기사장동무!》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남색 다후다직삼옷을 입고 손에 보따리를 든 처녀가 구슬듯이 달려오고있었다.

(아니?!)

그 처녀를 알아보는 순간 허영도는 두눈이 하등잔만해졌다.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달려오는 처녀가 바로 봉주였기때문이었다. 허영도는 자기가 혹시 빗보지 않았는가 해서 두눈을 슴뻑거리며 그를 보고 또 보았다. 틀림없는 봉주였다.

《소조원동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허영도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봉주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놀라움에 찬 어조로 말했다.

《기사장동무가 마늘을 기다릴것 같아서...》

봉주는 숨이 차서 뒤말을 채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니 그럼 소조원동무가 마늘 대신에 여기로 왔단말이요?》

봉주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순간 허영도는 저도 모르게 두눈을 감아버렸다. 눈앞이 아찔했던것이다. 이제 니탄도 가져갈수 없고 금년 랑상모도 붓지 못하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사로잡아서 그랬는지 몰랐다.

하나 다음순간 허영도는 일을 이처럼 꼬이게 만든 봉주에 대한 분격으로 하여 속에서 굴뚝같은것이 치밀어올랐다. 생각같아서는 봉주에게 분풀이라도 하고싶었지만 그동안 자기네 농장을 위

해 것처럼 아글타글 애써온 그에게 차마 그럴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혼자 그 분격을 속으로 묵새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허영도는 얼어서 퍼런 아래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지그시 깨물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기사장동무, 어서 농장으로 돌아가자요. 지금 농장에 기사장동무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봉주는 허영도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허영도는 그 말에 또다시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한마리 내뱉었다.

《내가 가면 금년농사는 어떻게 하겠소?》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백암니란이 없어도 금년농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허영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뭘로 한단말인가?

봉주가 기사장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인차 말을 계속했다.

《기사장동무, 부식으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침엽수부식으로 강냉이영양단지를 찍는것을 인차 중지시켜 모판에 깔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경애동무의 발기로 새땅찾기하는 작업장에서 부식토생산을 같이 하게 하여 다락발건설장에 돌을 실어나르는 트랙토르들이 짐을 부리고 갈 때 그 부식토를 실어와 강냉이영양단지를 찍도록 조직사업을 했어요. 지금 태식분조장동무랑 얼마나 열성적으로 부식토생산을 하는지 몰라요.》

허영도는 놀람과 의혹이 한데 뒤섞인 눈길로 봉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인차 봉주의 말을 믿었다. 허영도는 3대혁명소조원 봉주가 어떤 처녀라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허영도는 그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목이 콕 메왔다.

《기사장동무, 날씨가 추운데 이걸 입고 빨리 돌아가자요.》

봉주가 손에 들고온 보따리를 허영도에게 내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정답고 살뜰했다.

허영도는 고개를 들고 봉주가 내주는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보따리의 한쪽구석으로 자기가 늘 입고 다니던 흰 양털내의가 들여다보였다. 그결보는 순간 허영도는 그만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코마루가 짙 울리였다. 벌써 그 양털내의를 입은것보다 몸이 더 훈훈해지는듯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3대혁명소조원인 봉주는 얼마나 미덥고 사랑스러운 처녀인가!

허영도는 봉주가 600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온것이 결코 니탄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니탄보다도 자기 허영도를 위해서라

생각했다.

그러자 허영도는 일을 쉽게 해먹자고 봉주의 말도 듣지 않고 백암으로 온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소조원동무, 내가 잘못했소. 날 용서해주오.》

허영도는 봉주에게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이렇게 빌고싶었으나 목이 꼭 잠겨오는바람에 도저히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대신 봉주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고마움이 또다시 흥벽을 치며 세차게 끓어올랐다.

허영도의 울땀이 움썹거렸다.

며칠 후,

풍정리관리위원회마을을 떠난 두 처녀가 벌쪽으로 곧추 뻗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있었다.

날씨는 또다시 나무가지에서 잠자는 꽃눈들을 활짝 꽃피울것처럼 따뜻해졌다.

서로 자기 생각에 잠겨서 발걸음을 옮겨놓고있던 봉주와 경애는 두그루의 백양나무가 쌍둥이처럼 서있는곳에 와서 멈춰섰다.

《언니, 어제 언니가 백암에 가신후 관리위원장 동무가 금년농사준비정형을 전화로 물어보았어요. 언니가 여기에 와서 제기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알려주었더니 관리위원장동문 한시름 덜었다면서 오늘부터 발편잠을 자게되어 병이 다 나아질것 같대요. 호호... 언니 정말 이번에 와서 수고가 많았어요.》

경애가 먼저 진심으로 말했다.

《경애, 그런 말은 하지 말어. 오히려 난 관리위원장을 보기 미안하고 경애를 보기가 부끄러워. 난 정말 풍정리에서 소조원사업을 잘하지 못했

어.》

《언니,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아니야, 난 이번에 정말 귀중한것을 깨달았어.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심장마다에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해. 그래야 이번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고 3대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어.》

봉주의 이 말은 경애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언니, 알겠어요. 군에 가시면 병원에 들리어 관리위원장을 꼭 찾아보세요. 언니가 꼭 보고싶다고 했는데...》

《그럼 잘있어. 꼭 들려볼게. 너의 안부도 전해 주마.》

봉주는 손에 힘을 주어 경애의 손목을 꼭 잡아주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봉주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던 경애가 아직 채하지 못한 말이라도 있는지 《언니-》 하고 부르며 그의 뒤를 쫓아갔다. 봉주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언니, 재현리에 돌아가면 오늘밤은 좀 폭 자라요.》

봉주는 저절로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뽕얇게 흐려왔다. 그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아래턱이 동실한 경애의 귀여운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애는 자기를 자주 돌아다보며 걸어가는 봉주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손을 흔들어주고있었다.

해빛도 밝고 대기는 신선했다.

## 가사

# 회령의 진달래 붉게 피었네

김봉운

아름다운 이 강산에 봄빛을 안고

송이송이 붉게 핀 회령의 진달래

광복의 새봄 위해 눈보라 헤쳐오신

김정숙어머님의 마음담아 피었네

백두밀영 사령부의 밝은 창가에

붉게붉게 피어나던 조국의 진달래

장군님 우리러 한마음 바쳐오신

김정숙어머님의 충성담아 피었네

봄빛넘친 조국의 그 모습으로

이 강산에 만발한 회령의 진달래

공산주의 밝은 태양 안아키워오신

김정숙어머님의 념원 담아 피었네

## 떠나는 길에서

김봉식

고원의 자그마한 산간역은 차를 기다리는 청년 돌격대원들로 흥성거렸다.

20만정보의 새땅찾기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에 달려와 동틀을 개간하고 돌아가는것이다.

역구내며 정거장앞마당 그리고 그 주변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공사를 한해 앞당긴 자부심과 긍지로 서성거리는 청년들, 손뽕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처녀들의 맑은 노래소리, 여기저기 물켜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바래우려 나온 이 고장사람들로 끓었다.

돌격대원 김혜선은 아까부터 정거장앞 둔덕우에서 산밑에 자리잡고있는 마을을 굽어보며 농장관리위원회에 들린 중대장 홍일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차시간이 다가오는데 홍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기다리려고 평퍼짐한 돌우에 앉았다. 그리고는 가없이 펼쳐진 거룩한 대지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틀풀이 무성하던 불모의 벌은 자기들 청년돌격대원들이 일군 불임땅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황량했던 이 벌을 일구기 위해 올해 정초 이곳으로 달려오던 일이며 황마령밑에서 홍일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일들이 두서없이 펼쳐졌다.

그날 황마령밑에서 잉크라인차에 옮겨갔으려고 협궤열차에서 내렸을 때였다. 배낭을 메고 자그마한 잉크라인차에 가니 벌써 사람들이 뺨곡이서서 발을 들여놓을 틈새도 없었다.

혜선은 하는수없이 다음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초행길에 혼자 갈것을 생각하니 여간만 난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가 없으니 다른 수는 없었다.

이때였다. 안에서 누군가 다소 석잡한 소리로 《조금만 조임시다. 아직 밖에 사람이 있습니다.》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그 소리를 목살하듯 《바늘 세울 자리도 없소.》 하는 칼칼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못은 자리가 있어 들어잡니까. 조임시다. 같이 떠난 걸음인데 함께 가는것이 도리지요. 동무, 사양 말고 오르시오.》

석잡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다. 갓 제대한듯 모표며 령장을 댄 자리가 생생한 군복차림에 도끼와 톱을 넣은 물바랜 배낭을 메고 한손에 기타를 든 청년이었다.

그의 뜻밖의 호의가 여간만 고맙지 않았다. 혜선은 그에게 사의를 드리며 차에 올랐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오면서 푸냇을 익혔다. 홍일은 제대되어 집에 온 이튿날 이곳으로 달려온 동무였다.

혜선은 대렬편성할 때 그가 중대장으로 대오앞에 나선것을 보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고 그에게 품은 호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그것은 대렬편성에서부터였다. 대렬편성은 개간 공사장에서 용수벌개간청년돌격대결성모임끝에 중대별로 했다.

대원들은 중대장이 자기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하고 기운차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대대렬에 들어섰다.

김혜선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웬일인지 소대편성이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성 쌓고 남은 돌처럼 혜선이 혼자 그자리에 서있었다. 자기 이름을 빠뜨린게 아닌가 하고 의아쩍게 생각하며 혜선은 중대장의 벌에 탄 등실한 얼굴을 보았다.

그때 리홍일중대장은 《중대 기자채 창고원 김혜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 일순 혜선은 그 어떤 모욕을 당한것처럼 얼굴이 화끈했다.

(창고일을 보다니?! ) 자기는 새땅을 일구러 왔지 창고일을 보자고 온것은 아니였다.

바람 거칠은 고원의 이 들판으로 달려온 혜선의 포부는 자못 컸다.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서 혜선이가 보낸 생활은 행복속에서 조용히 보낸 단조로운것이였다.

축산반에 배치된 그날부터 혜선은 자기의 정력과 지혜와 힘을 고스란히 맡겨진 일에 바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달이 가고 해를 번지면서 혜선은 은연중 자신에 대해 그 어떤 모멸을 느끼었다. 너무나 보람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그것은 자기 사업에 대한 권태감에서가 아니었다.

남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길에서 하나의 새 씨앗을 얻기 위해 청춘도 사랑도 행복도 다 바치며 불타는 투쟁을 벌리는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키워온 꿈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였다. 그런데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는 의리마저 잊고 세월을 허송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대자연개조방침을 받들고 황마령 등판의 습지대 개간공사가 벌어졌다.

(조국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새땅찾기에서 충성의 땀을 바치리라!)

그리하여 달려온 혜선이였다. 그런데 거창한 투쟁의 소용돌이속으로가 아니라 그 번두리에 자기를 세우는것이 아닌가. 더더욱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포부를 안고 달려왔는가를 잘 아는 중대장이 그렇게 한데서 더하였다.

민음을 저버린것처럼 섭섭하고, 허전하였다. 다음 순간 그것은 그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불만으로 번졌다. 불이 잔뜩 부은 혜선은 뽀로통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중대장은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속이 뒤뜰어진 혜선은 《대답하지 않을테다!》하고 속으로 더욱 엷서며 고집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모두들 그의 오돌진 행동에 놀라 혜선이를 주시했다. 못시선을 받은 혜선은 얼굴이 더더욱 새빨개졌다. 사람들앞에서 무안을 당하는것이 분하여 금시 울음이 쏟아질것만 같았다.

중대장은 그를 똑바로 보면서 세번째로 불렀다. 그 소리는 혜선에게 있어서 칼끝이 폐부에 박히듯 아팠다. 매정스러웠다.

혜선은 물기오른 눈으로 그를 원망스레 보았다. 굵은 눈썹밑에서 끝날처럼 번쩍이는 눈길은 날카로웠고 표표한 얼굴의 기상은 준절하였다. 그가 개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직의 권위로 요구하고있음을, 따라서 그앞에서 엉너리를 부릴수 없음을 깨달은 혜선은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혜선은 《네.》 하고 모기 우는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며 얼굴을 푹 떨구었다. 그 서슬에 이슬방울이 파란 편리화복등에 떨어졌다.

대렬이 헤치자 혜선은 중대사관장이 내준 기자재대장을 들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대부에 반달음쳐갔다. 울분과 수치감을 도저히 삭일수 없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까지...

중대부에 가니 중대장은 없었다. 대렬편성과 소속배치, 비품접수로 바빠 돌아치는 그를 좀처럼

만날수 없었다.

저녁무렵에 혜선은 중대부로 다시 갔다. 방안엔 여러 사람이 있는듯 웅성웅성했다.

《중대장동무, 기타나 타오.》

누군가 조르는 소리가 났다. 음색을 고르는듯 금선을 타는 소리가 났다. 홍일은 기타를 타려는 모양이다.

(사람들앞에서 것처럼 무안을 주고서도 속이 편안해서 기타를 타려 하다니)

더욱 서슬푸르르해서 찬바람을 일구며 안으로 들어간 혜선은 상우에 기자재대장을 뺑개치고는 도로 돌아섰다.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러나 속으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면 맞받아 내쏘려고 독을 잔뜩 피여올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중대장은 눈길을 피뚝 던졌을뿐 여전히 생각에 잠긴 얼굴로 타던 곡을 그냥 타면서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늑한 보금자리 바라지 않네

화려한 꽃다발도 바라지 않네

우리가 하는 일 누가 몰라도

가슴속엔 크나큰 영예가 있네

사람을 앞에 놓고 우롱하는것 같아 얼굴이 파리해진 혜선은 그만 부르라고 소리라도 치고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방안을 가득 채운 무엇인가 절절하게 호소하듯 흥벽을 두드리는 부드러운면서 의미심장한 그 선율에서인지, 아니면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되살아온 리성에서인지...

그 조용하고 은근히 울리는 노래는 혜선의 가슴속에 그 무엇인가 깊은 의미를 안고 흘러들었다. 그것은 마치 꽃다발을 바라서 이곳으로 온것은 아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새땅을 찾기 위한것이다. 그러니 그 공지를 가슴에 안고 일하면 되는데 왜 일타발을 하는가라고 타이르는 듯싶었다.

노래소리가 가슴속에 파고들수록 혜선은 할말이 없어지면서 잉결볼을 들썩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조직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창고일을 보자. 몇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못하겠는가!)

혜선은 창문쪽에서 돌아왔은 중대장을 눈시울을 치며 훑쳐보고는 슬며시 기자재대장을 들고 중대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술한 사람들앞에서 기어이 대답할것을 요구한 중대장의 물인정에 대한 반감은 명치끝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음달의 얼음장처럼 가슴 한구석을 차갑게 차지했

다.

방안에서 기타소리는 여전히 흘러나왔다. 혜선은 그 소리에 쫓기우듯 창고로 달려갔다.

대렬편성에 뒤이어 합숙건설이 벌어졌다.

언땅을 곡괭이로 쪼아서 낸 돌덩이같은 흙을 설설 뚫는 물로 녹여서 풀이지게 이긴 혜선은 그것을 소랭이에 퍼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눈덮인 바깥이 환히 내다보이는 귀틀벽 틈새를 손으로 깐깐히 메웠다.

손가락은 인차 얼어들었다. 혜선은 김이 문문나는 더운물에 손을 담그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이런 강추위에도 막무가내로 집을 짓자고 한 중대장이 원망스러웠다.

(참 이럴줄 알았으면 아예 제대되어 《ㅎ》공장 건설장으로 배치된 춘호동무를 따라갔을걸, 괜히 부끄럼을 탔었지…)

혜선의 눈앞엔 언제나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은 춘호의 둥그레한 얼굴이 떠올랐다.

《아유.》

느닷없는 생각에 잠겼던 혜선은 얼어드는 발을 녹일듯이 냉큼 일어나 제자리에서 동당거렸다. 체마르지 않은 벽틈새로 시퍼렇게 날이 선 하늘이 한눈에 안겨왔다.

살을 에이는듯한 칼바람속에서 곡괭이로 구들돌을 캐고있을 홍일기도 지금 여간만 피롭지 않을것이다. 그것이 동정이 가면서도 고생을 사서한다고 혜선은 나무리였다. 이고장은 습지대여서 구들돌이 여간만 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40리밖에 있는 채석장으로 갔다.

돌격대원이 천여명이나 갑자기 들이닥치다보니 집이 있을리 없었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은 부득불 공사장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농장의 집집에 립시로 나누어 들었다. 그러니 불편한것이 한두가지 아니였다.

합숙을 지어야 했다. 하나 한길 잘되게 언땅을 녹이자면 아직은 한달이 있어야 했다. 나무 한대 못 한개 마련되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해동할 때까지 우에서 주기로 된 건설자재를 다 받아두었다가 땅이 풀리면 인차 합숙을 짓기로 했었다.

그런데 중대장은 도리를 저으며 대원들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우에서 자재를 대줘도 좋고 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손으로 합숙을 짓잔 말이요. 도끼와 톱은 우리에게 있고 나무는 검칙한 나무가 뒤산에 많소. 귀틀집을 짓지요. 그러면 땅은 얼어있어도 무방하며 못은 없어도 되오. 구들돌은 내가 책임지겠소. 닻새후엔 집들이를 해야하오.》

홍일기의 제의로 지휘부에서는 이렇게 귀틀집

을 짓기로 다시 결정지었던것이다. 사흘째인 오늘은 벽체우에 보를 올리고 용마루에 서까래를 걸었다. 급히 지은 집이다보니 모양이 어수선했으며 방안은 다소 어둑어둑했다.

손이 녹자 혜선은 다시 흙을 주물렀다. 한참 매질하는데 프락프르소리가 났다. 벽밖으로 내다보니 중대장이 구들돌을 싣고 돌아왔다.

추위로 얼굴이 시퍼런 중대장은 차에서 내리자 바람으로 집안팎을 돌아본다. 혜선은 저도 모르게 그의 걸음을 눈여겨보았다. 맵짠 추위속으로 몰인정스레 내몬 그가 뭐라고 하려는지… 하긴 모두가 고개를 외로 저은것을 자기가 굳이 우겨서 세운 집이 이렇듯 빠르게 일어서서 흡족해하겠지만…

집을 한바퀴 돌아본 중대장은 당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원들을 귀틀집프락에 모이게 했다.

대렬앞에 나선 그의 꼴꼴이 일어난 긴 속눈섭이며 미간에 패인 주름살이며 불만스레 꼭 닫은 입을 본 혜선은 가슴이 심쩍했다.

(무엇이 마음에 찌지 않아 저러나?)

혜선은 고원의 찬바람에 거칠어진 그의 얼굴을 불만스레 보았다. 중대장은 앞에 선 대원에게 집 모양이 어떤가고 물었다.

《좀 엉성합니다.》

《그러니 보기 어떻소?》

《홍할사 합니다.》

《할사가 뭐요.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지!》

중대장이 이번에는 그 옆동무에게 《창문이 쥐굴 보다 크오, 작소?》 하고 물었다.

《조금 큼니다.》

《별이 들어가봐 이렇게 냈소?》

얼굴이 빨개서 대답을 못하는 그 대원을 본 혜선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나오는 웃음을 가가스로 참았다. 산이 클수록 그들이 크듯 창문이 큰 집에 바람 많다고 그 동무가 곧장 우겨서 작게 낸 창문이였다.

중대장은 다시 혜선의 옆사람에게 집이 어느 방향으로 앉았느냐고 물었다.

《서북쪽으로 앉았습니다.》

《바람은 어느켠에서 불어오오?》

《서북쪽입니다.》

《바람고승이에 선 집이 더울것 같소, 추울것 같소?》

그제야 무엇때문에 그가 그것을 물었는가를 깨달은 그 대원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했다. 혜선은 부지중 심중해졌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렵פות이 짐작이 갔던것이다.

《혜선동무, 그러니 얼어지는 결론은 뭐요?》

중대장은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혜선은 그만 당황했다. 그 물음에 대답할수가 없었

기때문이다.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귀틀집을 허물고 고쳐지어야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할수 없었다. 칼바람속에서 웅근 사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얼어든 손끝을 입김으로 녹이며 세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다니... 더더욱 이 집은 얼마밖에 쓰지 않을 집이었다. 그러니 어지간한 불편은 참으면 되겠는데 공연히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것이였다.

혜선은 눈시울을 떨구었다. 대답하기 난처한 물음을 던져 자기를 사람들앞에서 난감하게 만드는 그가 민망스러웠다.

《중소, 그럼 내가 대답하겠소.》

중대장은 대원들을 집귀통이에 한줄로 세웠다. 그러더니 자기 구렁에 맞추어 벽체를 일제히 들어서 돌리라고 하면서 구렁을 주었다.

아연실색한 혜선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기연가미연가해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불꽃이 튀는듯한 까만 눈동자, 꼭 다문 입엔 추호의 드림도 없었다.

또다시 구렁이 내렸다. 단호한 그 어조에서 그가 기어이 집방향을 돌려놓으려 함을 본 혜선은 속으로 《벽창호!》하고 원망하며 벽체를 들었다...

남향으로 돌려놓은 귀틀집 네귀에다 하늘을 태을듯이 우등불을 피우고는 처마를 높이고 창문을 크게 냈다. 혜선은 언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처음부터 다시 틈새를 메워나갔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얼어든 몸을 더운밥과 동태국으로 녹인후 중대장은 프락에 화단을 만들고 박우물에 고깔지붕을 아담하게 씌웠으며 울타리를 산뜻하게 세웠다.

혜선은 얼마밖에 쓰지 않을 집을 마치 당대로 쓸것처럼 극성스레 꾸리는 중대장의 속을 도무지 대충할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못내 불만스러웠다.

들끓는 청춘들의 열기를 받아서인지 이른봄의 추위도 슬며시 갈길을 재촉하고 대지엔 봄빛이 확산해왔다. 따스한 별에 눈도 살며시 녹아버리고 넓은 별의 여기저기엔 눈적임물이 피여 늪을 이뤘다.

중대는 동틀풀이 한벌 덮인 용수벌에 고인 물을 빼는 배수도공사에 달라붙었다.

혜선이네 청년돌격대가 개간하려는 이 고원의 습지대는 아득한 태고적에 형성된것이였다. 지진학적으로 신생대말 중생대 초엽에 부전령산줄기가 내리쨌친 이 일대에서 경동운동이 일어나 심한 지각변동이 생겼다 한다.

그때 황마령 이북은 서서히 솟아오르면서 지금처럼 밋밋한 고원을 이루고 그 남쪽은 급히 가라

앉으면서 평지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다쪽으로 나가면서 더욱 심했다.

고원의 등판에 니란과 갈매화토가 깔려있어 눈적임물이며 비물은 밑으로 스며지 못하고 땅결면에 고이게 되였으며 수중식물인 동틀풀이 여기에 서식했다.

그러니 이 진펄을 부침땅으로 일구기 위해선 고인물을 빼고 동틀풀을 갈아엎고 흙갈이를 해야 했다.

하나 그 공사는 막대한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어 고원의 재물이 탐나 해발 천이백의 등판에 협궤열차의 철길까지 놓은 일제놈들도 이 진펄엔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런걸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고원이 생겨 억년의 돌기를 헤아리는 이 땅에 개간의 첫삽이 박히게 된것이다.

오늘도 자기 일을 마치고 작업장에 나온 혜선은 한군에서 온 정금이와 같이 중앙배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지간배수로를 봤다. ...혜선은 창고일만으로는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았다. 무엇인가 더 하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애써 타내어 현장에서 보냈다. 자기 일을 다 하면서 현장에 나와 일하는데야 까박군인 홍일중대장도 가타부타 못할것이였다.

또한 이것은 창고일에 자기를 돌린 그에 대한 일종의 반감에서 나온것이기도 했다.

한데 쉬는 참을 동무들속에 섭쓸려보내고 돌아와보면 누가 했는지 창고에 있는 삽자루들에 일어난 거스름이 매끈하게 다듬어져있고 토막토막이든 가래줄이 새것으로 바뀌어져있었다. 그것은 홍일이 한 일임을 뒤늦게 안 혜선은 어느날 그에게 칭하지도 않은 일을 그만두라고 증을 내서 말했다. 홍일은 아무런 대꾸도 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했다.

걸음마다 자기의 뒤그늘을 밟는것 같아 화가동한 혜선은 몇번 눈총으로 내쏘았으나 소귀에 경읽기였다.

그래서 혜선은 그때부터 창고의 로동도구들을 저도 몰래 더 세심히 살펴보게 되였다. 그의 섬세한 손끝에서 모든 공구들이 어찌나 깨끗이 손질되었던지 그것을 들고 일터에 나갈 때마다 동무들은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홍일이만은 빙그레 웃을뿐이였다...

바지가랭이를 무릎우까지 걸어올리고 시누런 물에 들어선 혜선은 한껏데기 벗긴 흙밀의 니란을 걸싸게 파올렸다.

삽을 박을 때마다 튀여오른 시꺼먼 감탕물에 얼굴을 게바르며 파내려가니 어느덧 니란층은 끝나고 갈매화토가 나졌다. 삽날에 찰떡처럼 달라붙는 흙을 공중 갑자르며 파는데 난데없이 진대 나무가 나졌다. 수백년동안 물 한방울 스며지 않

은 고북토속에 파묻힌 진대나무는 갓 넘어진듯이 생생하였다.

한아름도 넘는 진대나무통을 들어내자면 하루 품을 놓아야 했다. 혜선은 정금이와 의논 끝에 소대장을 찾아 어떻게 하라느냐고 물었다. 이마에 주름을 파며 나무길을 가는데 보던 소대장은 나무를 건드리지 말고 물길을 약간 에돌아서 내라고 하였다.

혜선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독을 약간 들렸다. 도량은 다소 험사했다.

어느덧 서컨하늘에 감빛노을이 곱게 피었다. 정금이는 먼저 저녁을 지으러 돌아갔다. 혜선은 홀가분해서 나직이 노래를 부르며 가지고나온 공구들을 깨끗이 씻고 잔잔히 닦았다.

《누가 여길 봤소?》

느닷없이 등뒤에서 약간 거센소리가 났다. 열결에 뒤돌아보니 어느사이에 왔는지 홍일중대장이 자기가 관 도량우에 서있었다. 산에서 진펄로 흘러드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굽돌이배수로로 짜는 공사장에서 돌아온듯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리였으며 손엔 삽을 들었다.

《제가 봤어요.》

혜선은 무심히 대답하며 그를 보았다. 까닭없이 또 무엇을 까박붙이려나 하는 조바심이 들면서 부지중 긴장해졌다.

《동무가...》 하며 마뜩지 않은 얼굴로 힐끔 혜선을 본 홍일은 《고쳐 파오!》하고 칼로 썩뜩 찢르듯이 말했다.

《아니 왜요?》

《몰라서 묻소?》

홍일은 도량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힐책하듯 반문했다. 높아진 그의 음성이며 차거운 눈길에서 혜선은 주먹같은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공연한 트집이다. 약간 휘었다고 하여 물이 흐르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장 무슨 변이라도 날듯이 고쳐하라고 으르는가!

《그것이 조금 휘었다고 흐르던 물이 꺼꾸로 흐르진 않아요!》

혜선은 발끈해서 가시돋친 소리로 대꾸했다.

《뭘라구?》 홍일은 그에게로 뺨 돌아섰다. 혜선을 쏘아보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다.

얼굴이 파랗해진 혜선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 보았다. 분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면서 가슴속 깊은곳에 묻혀있던 불만과 울분이 솟구쳐올랐다.

(자기가 맡은 사업외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일터에 나온 사람을 칭찬해줄 대신 무엇때문에 벌치않은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만 하는가!)

홍일은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귀살을 실룩거렸다. 그러다 어깨를 떨며 다치면 부서질듯이 굳어져있는, 새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고는 돌아섰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홍일은 가슴을 쥐어짜서 하트 한마디 했다.

《동문 후날 이것으로 하여 자신이 후대들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리라는것을 생각했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것이요!》

뜻밖에도 누그러진 소리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절절한 그 무엇이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아... 래일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새 왔는지 등뒤에서 소대장의 웅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수선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소대장이 다가와 어두워지는데 빨리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라고 떠밀었다.

혜선은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합숙에 돌아와 공구를 정리하면서도 혜선은 어수선한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귀전에서 홍일이의 말이 지긋게 맴돌았다.

그는 천정 한구석에 눈길을 박은채 생각을 굴리고 또 굴리었다. 문득 장마철에 그 배수로에 팔팔 흘러들 거칠은 물살이 휘어진 그 물굽에서 흙을 झा아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량은 미세한것일것이다. 하지만 개미구멍이 방뚝을 허문다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마침내 그 벽을 고쳐 쌓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럼 그때 땅속에 묻혀 있는 진대나무를 보고 어찌하여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어 두벌 손질을 하게 하느냐고 사람들은 물을것이 아닌가.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우리가 그 하나의 진대나무때문에 물길을 휘게 했다고 꾸중한다면 나는 무어라고 대답할것인가.

홍일이가 무엇을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며 자기를 꾸짖었는가를 그제야 깨달은 혜선은 재불을 들쓴것처럼 얼굴이 뜨거웠다.

(물도량을 곧게 파야 한다.)

소스라치듯 일어나 도끼와 삽을 들고 밖으로 나온 혜선은 걸음을 재우쳤다.

설피게 덮인 구름속으로 쟁반달이 헤엄쳐나와 사위는 대낮처럼 환하였다. 가문비나무에 앉아 구성지게 우는 접동새의 소리를 들으며 이슬이 내린 동쪽을 걷는데 경경 어디선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날아왔다. 낮에 자기가 일한 수로쪽이었다.

《한밤중에 누가?》



혜선은 의아쩍게 생각하며 총총히 가보았다. 달빛이 부서진 도랑물에 허벅다리를 잠근채 도끼를 휘둘러 진대나무를 꺾고있는 사람들의 분광이 뚜렷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뜻밖에도 중대장과 소대장이었다. 혜선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자책과 송구한것이 가슴속에서 도가니마냥 끓어올랐다.

그들은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먼 후날 자신이 한 일을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무를 찍고있는 것이었다. 만약 자기가 낮에 자신이 흘리게 될 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수로의 래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생각했더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했노라고 당돌하게 었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하였는가. 홍일이가 자기의 일자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본것은 그 어떤 값싼 동정이나 친절에서가 아니라 이런 범상한 일로 하여 후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려는 응심깊은 동지적 의리에서였다. 그것을 고깝게 여기고 쌀쌀하게 대했으니... 얼굴이 뜨거웠다.

도끼소리는 쉬임없이 울렸다. 더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혜선은 얼굴이 뜨거운대로 물에 들어섰다. 그 소리에 홍일은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아 환한 그의 길쭉한 얼굴에 일순간 희색이 피어올랐다. 밝게 빛나는 눈엔 꼭 나을줄 알았다는 신뢰가 어려있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제야 허리를 편 소대장도 쑥스러운 웃음을 띠운채 물기 젖은 손으로 뒤통수를 긁적었다.

혜선은 도끼를 들어 힘껏 내리쳤다. 도끼날끝에서 튀어오른 도끼밥이 사방에 휘날렸다. 그것을 지켜보던 홍일은 빙그레 웃었다. 혜선이라도 어쭙게 웃었다. 한밤중에 나온 자기의 심정을 리해해주는 그 부드러운 미소는 여직 그에게 품었던 고까운 생각을 소리없이 풀어주었다.

점심밥이 든 늪버치를 이고 혜선은 바위돌을 까내는 작업장으로 향하였다.

산에서 굴러내리운 집채같은 바위돌이 산중턱의 나무그루터기에 우연히 걸려 작업이 중지되었다는 말을 들은 혜선이는 총총히 걸음을 다그쳤다.

개간구역내에 속한 연연한 산등성이에는 수천년 풍화에 주름잡힌 기괴한 늙은 돌바위들이 삐죽삐죽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처음엔 까낸 돌들을 하나 하나 끌어서 내렸었다. 그러다보니 여간만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여서 홍일이의 제안으로 이 돌들을 경사도가 심한 비탈로 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아침나절에 굴린 삐죽이 귀를 내민 바위돌 하나가 산중턱에 턱 버티고서서 좁처럼 굴러내려가지 않았다. 그 뒤로 굴러내린

크고작은 돌들을 척 업고 끄떡 않고 선 바위돌은 마치 제 힘을 뿜내는 미옥한 장수와도 같았다. 이로 하여 바위돌을 까서 굴리는 작업은 중지되었고 또 언제 이 돌사태가 무너져내릴지 몰라 휴식시간마다 오가던 산아래의 일체교통도 차단되었다.

로동현장에 이른 혜선이는 그자리에 우뚝 서버리었다. 까다 만 바위우에 퍼더버리고 앉은 건설자들은 풀이 죽어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우의 돌부터 하나하나 다시 끌어내리자면 품이 많이 들고 일이 지체될것은 물론이고 건설자들의 안전에도 매우 큰 위험이 들이닥칠게 예견되고있었다. 한초가 새로운 때에 발목을 잡히웠으니... 혜선은 안타까왔다.

《이틀품은 놓아야겠군.》

하고 누군가 침울하게 말했다. 모두들 그의 말을 수긍하듯 아무말도 안했다.

도끼날을 손톱눈으로 밀어보고있던 고수머리청년이 《이틀! 안되오. 이깁나무뿌리를 찍어버려야 하오.》 하며 물기오른 시뻘건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편포작이 되고싶소.》하고 누군가 낮으나 날카롭게 말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앉히었다. 홍일이였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일어서려던 고수머리청년은 홍일이의 엄한 눈길에 부딪치자 기가 꺾이운듯 무엇인가 꿈꿉거려였다. 모두들 그의 경망한 행동을 나무리며 언짢게 본다.

건설자들의 지친듯한 어두운 얼굴들을 불만스레 둘러보던 홍일은 혜선이가 이고온 늪버치를 보자 생각난듯 《엎어진진에 쉬고간다구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밥이나 먹지요.》 하고 말했다.

혜선은 풀밭에 밥을 차려놓았다. 모두들 내키지 않은 얼굴로 뜨직뜨직 밥술을 놀렸다. 이럴때 의례히 있군하는 익살도 웃음도 없었다. 모두 갑자기 병어리가 된듯 입을 다물었다.

식사를 마치자 홍일은 늘 하던대로 나무에 걸어 놓은 기타를 벗겨들고 타면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대원들의 흐린 얼굴을 보았다.

혜선은 미관을 모았다. 모두들 일이 꼬이여 기분이 무겁게 잠겨있는데 기타를 타다니... 그러나 그의 눈길을 본 혜선은 지금 그가 착잡하게 엮혀진 일을 풀기 위하여 생각에 잠겨있음을 알았다. 그의 얼굴은 전에없이 심각하였다.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것일까...

이윽고 기타를 나무에 걸어놓은 그는 도끼를 들고 산밭을 타고내렸다. 산허리를 에돌아 흐르는 키낮은 수양버들속에 싸인 산개울가 바위돌우에 쭈그리고앉아 솟돌에다 도끼날을 세우는 홍일의 모습이 저만치 보였다.

마침내 다 간듯 해빛에 도끼날을 비쳐보던 홍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무들이 앉아있는쪽을 흘끔 보았다. 그러더니 도랑을 건너 마주보이는 산등성이쪽으로 가는것이였다.

무심히 그의 뒤를 눈으로 쫓던 혜선은 수림속에 사라졌던 홍일이의 흰적삼이 칼로 벤듯 날카로운 앞산 낭떠러지우의 늙은 소나무옆에서 언뜻하는것을 보고 와뜰 놀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눈여겨보았다. 언제 가져갔는지 홍일이의 허리춤엔 안전바줄이 꼭 끼워져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홍일은 분명 그 낭떠러지를 리용하여 허리에 저 안전띠를 띠고 몸을 날려내려가 나무뿌리를 찍으려는것이 아닌가!

(그러다 떨어지는 날이면... 바위에...)

얼굴이 해쓷해진 혜선은 《중대장동지!》 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그 소리에 홍일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한달음에 달려간 혜선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안돼요, 위험해요!》 하고 웨쳤다. 그의 당돌한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홍일은 눈을 홑뜨며 혜선이를 보았다. 그러다 공포와 불안에 젖은 혜선의 눈을 보고 홍일이는 미간을 모았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있는지 동문 모르오?》

《알고있어요. 하지만 하루이틀 품을 놓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무모하게 모험을 해선 안돼요.》

《무모한 모험이라구?》

홍일은 낯색을 바꾸며 혜선이를 쏘아보았다. 잔잔하던 눈에서 불씨가 튀었다.

《동문 돌을 굴러내리는데서 허실하게 되는 시간만 보았지 그것으로 하여 난관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려는 동무들의 나약한 마음은 보지 못했소. 난관은 걸음마다 앞을 막아나설거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수 있겠소. 오늘 한걸음 물러서면 래일을 두걸음 물러서게 되오.》

《그렇다면 왜 아까는 그 나무뿌리를 찍으려고 나선 동무를 못나가게 했어요?》

《난 중대장이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동무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맡기고 뒤에 나앉아있으면 내가 무슨 지휘관이요. 어려울 때 지휘관은 앞에 서야하오.》

혜선은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에서, 열화같은 그 말에서 자기의 그 어떤 말도 그의 걸음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그리고 그 걸음을 막아서서는 안됨을 알았다.

혜선은 떠밀리우듯 한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홍일이의 눈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말없이 허리에 안전띠를 띠고 그 한끝은 바위돌에 깊

이 뿌리를 박은 늙은 소나무의 허리통에 비끼려 매였다.

췌, 바람소리와 함께 홍일이는 내리뛰였다. 뒤전에서 달리는 옷자락은 광풍을 맞받아나가는 갈매기의 흰 날개마냥 바람에 펼쳐졌다.

얼어붙은듯 그 자리에 서서 홍일이를 바라던 혜선은 부지중 두눈을 꼭 감고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이제나저제나 하고 속이 한줌만해서 도끼소리를 기다렸다.

이윽고 켑-하는 나무찍는 소리가 대지를 타고 날아왔다. 혜선은 흠칫 어깨를 떨었다. 그는 두손을 다시 가슴우에 모아쥐었다. 또다시 도끼소리가 울려왔다.

우지끈! 팡, 짹르르...

돌이 흐르는 아츠러운 소리가 났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드는것 같았다. 그는 공포와 불안에 젖은 눈으로 흘러내리는 돌사태를 보았다.

한초, 두초...

손목시계의 은빛초침은 더디게도 흘렀다.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참지 못해 혜선은 목청껏 웨쳤다.

《혜선이, 동무들!》

실로 기적적인 일이였다. 수림속으로 홍일이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허리의 안전띠를 풀어 두손에 거머쥔 홍일이를 본 혜선의 놀란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나왔다.

나무아지에 활쫓은듯 왼볼에 흐르는 실오리같은 피자욱을 흠치며 궁지와 희열에 차서 달려오는 홍일이를 본 혜선은 자기가 그의 정신적높이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었음을 통감하였다.

자기가 극상 생각한것은 그의 신변이 안전이였다. 그러나 홍일이가 생각한것은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이였다. 그가 위험속으로 혼연히 들어간것도 바로 시대앞에 지닌 자각이였다.

혜선은 자신의 정신적공백에 대하여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원의 여름은 별을 앞세우고 공사장에 찾아왔다. 신록이 풍만하게 무르익은 숲속에 장평의 구성진 소리와 뼈구기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러더니 겨울이 그렇게 얼구듯이 여름도 모질게 찌물쿠었다.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창고정리를 깨끗이 마친 혜선은 홍일이가 부탁한 윤활유와 저녁밥을 가지고 합숙을 나섰다.

《80년대속도》창조로 부르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청년돌격대원들은 명년말까지 끝마치기로 한 개간공사를 한해 앞당겨 완수하기로 했다. 그러자면 불도젤의 가동률을 2배로 높여야 하는데 교대운전수가 모자랐다.

군대에서 탕크운전수였던 홍일은 우에서 교대운전수를 보내주면 좋고 안보내주면 우리 힘으로 키우자고 했다. 그는 돌격대원들속에서 트랙트르, 자동차를 다루어본 10여명의 청년들에게 보름동안 불도젤운전에 대한 강습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도젤에 붙여 책임운전수의 지도하에 열흘동안 실습을 하게한후 교대작업을 조직했다.

낮작업을 마친 홍일은 밤에는 어린 교대운전수 곁에 붙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넙마조각같은 구름이 드문드문 널려있는 하늘에 걸린 초생달이 던지는 희뿌연 달빛아래서 흙깔이하는 트랙트르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있었다. 고촉광불빛에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가 먼발치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산기슭에서 밀차가 썽썽 달리고있다. 그것에서 시대의 거센 숨결을 가슴썩듯이 느낀 혜선은 방그레 웃으며 홍일이네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거두었다. 작업장이 쥐죽은듯이 조용하기때문이었다. 전조등 불빛도 없다. 현장에 이르니 불도젤은 큰삽을 땅에 박은채 서있었다. 기관실은 헤쳐져있었으며 땅위에 널려있는 부속품이며 공구는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혜선은 차머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는 교대운전수에게 어데 고장났느냐고 물었다.

《주동륜이 부러졌소.》

혜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간단한 고장이 아님을 알아차린 그는 홍일이를 찾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중대장동문 어데 있어요?》

《이동수리차에 갔소.》

마사진 바퀴를 둘러메고 5리밖에 있는 이동수리차에 간지 퍼그나 되었다고 하니 조만간 돌아올것이였다. 혜선은 교대운전수에게 밥을 차려주고 홍일이를 기다리였다.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홍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리하느라고 시간을 끄는것 같았다. 그가 아직 저녁전이라는것에 생각이 미친 혜선은 그에게 밥을 가져갈겸 수리정형도 알아보고싶어 보자기에 밥그릇을 싸들고 자리를 떴다.

이슬이 함함이 내린 동쪽길을 따라 밤작업을 하고있는 제재소에 간 혜선은 그곳에 나와있는 이동수리차를 찾아보았다. 없었다. 홍일기도 보이지 않았다.

혜선은 기계톱으로 통나무를 켜고있는 제재공 청년에게 물어보았다. 홍일은 이웃 공사장으로 간 이동수리차를 전화로 찾아 예비부속품 유무를 알아보고는 자기가 요구되는것이 없자 그길로 읍에 있는 농기계작업소에 갔다는것이였다.

무거운 쇠바퀴를 둘러메고 40리를 달려간 그의

심정을 알수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구슬땀을 뿌리며 밤길을 걷는 홍일의 모습이 사물거렸다. 그는 그길이 아무리 멀다 하여도 이 밤중으로 불도젤을 기어이 움직이기 위해서 걸어갔을것이다.

그처럼 신고하는 그를 도와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였다.

불쑥 이제 그가 것처럼 힘들게 갔어도 농기계작업소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들어설것이니 그때엔 그곳 사람들이 다 퇴근하여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가 간다는것을 그곳에 알려주어 미리 준비시켜놓으면 다문 얼마라도 시간을 덜 허실할게 아닌가.

혜선은 전화로 농기계작업소를 찾았다. 잠시후 수화기에서 《지배인 전화받수다.》하는 웅글은 소리가 나왔다. 지배인이라는 말에 혜선은 두눈을 빛내며 《지배인동무, 주동륜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하고 웨치듯 말했다.

《주동륜을 준비해놓으랴구? 동문 누구요? 어디서 전화를 거요?》

지배인은 아닌밤중 흥두께 내밀듯하는 말에 놀란듯 되물었다. 그제야 자기가 흥분해있음을 깨달은 혜선은 얼굴을 붉히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지배인동무, 우린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이 개간공사를 한해 앞당기려고 했어요. 그러자면 높이 세운 그날 계획을 한치도 드리어선 안돼요.》

혜선은 마치 그가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손세를 써가며 안타까이 말했다.

《그러니 주동륜을 제때에 보장 못하면 그 걸음을 내가 지체시킨단말이지...》

수화기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더니 이어 지배인은 《좀전에 동무네 중대장이 그곳에서 전화를 걸어왔소. 그래서 수리차를 띄웠는데 도중에서 그 동무를 태워가지고 갔을거요.》 하고 말했다.

수화기를 놓은 혜선은 자기가 경망하게 전화를 걸었음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홍일이가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곳에 전화를 걸었으리라고 생각 못했다. 덤벙덤벙하고 일손이 거칠어보이는 그가 이렇게 간지고 섬세한 사람임을 그는 일찍 알지 못했다.

이것은 성격이나 습성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서 오는것이리라...

이젠 홍일이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그가 언제 돌아오려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혼자 돌아가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길변에 앉은 그는 읍으로 통한 신작로를 바라보며 홍일이를 기다리였

다.

자정을 넘어서면서 고원의 대기는 선풍선풍하였다. 그는 어깨를 가늘게 떨었다. 호젓한 밤길에 홀로 앉은 혜선이의 머리속엔 이번 공사장에 떠나오기 전날밤 지새우며 거닐던 눈덮인 고향길이 떠올랐다.

《혜선이 이번 새땅찾기공사가 끝나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날까지 우리 서로 다른 공사장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해봅시다. 그래, 다시 상봉하는 그날엔 우리가 해놓은 일을 놓고 충성의 높이를 서로 재여보자구 응...》

쌀랑한 밤추위에 웅송그린 혜선이의 동실한 어깨에 온몸의 열기를 담은 덧저고리를 정답게 씌워 주며 하던 춘호의 말이다.

(그 동무는 지금 뭘하는지...?)

새 성과를 거두기전에는 서로 편지를 하지 말라고 약속하였기에 아직까지 편지 한장도 띄우지 못한 혜선이였다. 방긋 웃음짓는 혜선이의 온몸은 훈훈해나는것 같았다.

(그래, 성과가 없는것은 아니야. 얼마나 많은것을 배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혜선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듯 동실한 두눈을 크게 뜨고 멀리 뻗은 희스희스한 밤길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혜선이는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웠다. 자기가 이럴진대 중대장동무는 얼마나 등달아하랴.

불, 불이다.

이때 멀리 어둠속으로 신비로운 두점의 불빛이 이곳을 향하여 재빨리 움직이고있었다. 혜선이의 조급한 마음을 알아주듯 환히 불을 켜 자동차가 드디어 손살같이 달려왔다. 혜선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다가오는 차를 바라보았다.

휘발유내를 들쑤우며 앞을 지나간 자동차는 저만큼 앞에서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급히 멎었다. 이동수리차였다.

뒤문을 열고 누군가 《혜선이!》하고 불렀다. 홍일이였다.

혜선은 밥보자기를 들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혜선동무, 고맙소.》

자리를 잡고 숨을 돌리는 혜선이의 귀전에는 홍일이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울려왔다.

이것은 홍일이에게서 듣는 처음으로 되는 칭찬이였다. 그러나 수십리 밤길을 헤쳐온 홍일이에게서 듣는 이 칭찬은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다. 무엇인가 다하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때렸다.

(자기가 한 일이란 실체상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일이는 혁명의 임무를 놓고 조금이나마 걱정하고 안타까와하며 무엇인가 보람을 주려는 그 심정을 헤아려보고 이렇듯 나를

칭찬하는것이 아닌가?...)

혜선이의 뇌리에는 언젠나 칭찬을 해줄 대신 나무라기만 한다고 홍일이를 원망하던 일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이처럼 자기를 잊고 사업하는 홍일이에게 얼마나 많은 시름을 끼쳐주었던가?

자동차의 절주있는 소음속에서 혜선이의 생각은 깊어만갔다. 혜선이는 홍일이라는 거울앞에서 자신을 비쳐본다. 언제나 보람있는 사업이 차례지지 않는다고 원망은 해왔어도 자기생활은 보람있게 조직할줄을 몰랐었다. 때문에 축산반에서도 또 이 들끓는 공사장에서도 홍일이처럼 살지 못했었다.

혜선이는 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삶의 보람은 오직 당과 혁명은 위하여 자기를 잊고 사업하면서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의지와 창조정신을 지닌 사람, 영원히 앞으로만 달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인 홍일이에 비하여 자기는 얼마나 먼 거리에서 살고있는것인가... 그러나 값없이 허무하게 보낸 지나간 생활을 후회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생활은 앞에 있으며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멀다... 혜선이의 앞에는 바로 그 길이 흰히 펼쳐 처지는것만 같았다.

주동륜을 갈아맞춘후 다시 조종간을 잡은 홍일은 그동안 허실한 시간을 벌충하려고 부리나케 차를 몰았다.

어느덧 삼태성도 기울고 려명전의 어둠이 대지를 휩쌌다. 그러나 혜선은 조금도 졸음이 오지 않았으며 피로하지 않았다. 합숙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발머리에서 억척같이 땅을 갈아번지고있는 홍일이의 작업모습을 끝린듯이 지켜보았다.

날이 희뵈히 밝을무렵에 땅을 다 갈아번지였다. 홍일은 차를 정비하려고 황철나무결에 불도젤을 세웠다. 혜선은 발머리에 놓여있는 이슬을 들 쓴 밥보자기를 보자 홍일이가 저녁을 설친것이 생각났다. 그는 국을 덥히려고 삭정이를 모아 불을 피웠다.

불이 달리자 혜선은 그우에 국그릇을 올려놓았다.

차점검을 마친 홍일은 기타를 들고 나무밑둥이에 기대앉아 타면서 저음으로 노래를 조용히 불렀다. 혜선은 그 노래에 취한듯 앉아 눈앞에 펼쳐진 벌판을 멀리 바라보았다.

동틀풀과 잡관목으로 뒤덮였던 황량한 벌판을 커다란 보습으로 갈아번진 거뭇거뭇한 땅은 눈길이 모자라게 펼쳐졌다. 비록 그것이 자기들이 한 일이지만 그 전변에 혜선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태고의 잠에서 깬 이 땅에 이제 씨를 묻게 되었으니말이다. 그러자 혜선이의 눈앞에는 초여

름이면 흰색, 보라색 감자꽃으로 바다를 이룰 무연한 별판이, 가을이면 수확기로 그것을 캐내어 자동차로 실어들이는 거창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그레 웃은 혜선은 맡겨진 일을 다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젠 땅을 가꾸면 되겠지요?》 하고 말했다.

《그렇소, 그런데 누가 가꾸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소?》

기타를 타던 손을 멈추며 홍일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누가 가꾸다니. 그거야 농장에서 인제받아 가꾸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가?)

혜선은 의아한 얼굴로 흰자위에 피로가 얼기설기 서린 그를 보았다.

《요즘 농장에선 그 문제를 놓고 심중히 토의하고있소. 우리가 일군 새땅을 가꾸자면 수많은 로력이 있어야 하오. 그런데 그 로력이 당장 어데있소. 농장에서는 지금의 땅도 불이기 바빠하오. 그러니 우리가 이곳 농장에 그 땅을 넘겨주어도 로력이 팔려 땅을 묵이지 않을수 없소. 그러면 우리가 땅을 흘리어 새땅을 일군 보람이 있는가.

당은 지금 30만정보의 간석지와 20만정보의 새땅찾기에로 우리들을 부르고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 인민은 어김없이 수행할것ियो. 그런데 모두 새땅을 일구어만놓고 뿔뿔이 가버리면 누가 그 땅을 가꾸겠소.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길에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나는 보지 않소.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일군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가꾸어낸 낱알이며 인민들의 푸짐한 식탁ियो. 항일혁명투쟁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 김혁, 차광수동지들이 목숨으로 수령님의 뜻을 받든것처럼 당의 품속에서 자란 80년대의 우리들은 충성의 땀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말을 마친 홍일은 다시 기타를 타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높은산 험한 령이 우리는 좋아  
사나운 비바람이 우리는 좋아  
수령님 바라시는 그길이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우리 가리라

노래에 심취한 홍일은 노을이 피어오른 동녘하늘을 물끄러미 보다가 생각난듯 《참 춘호동무에게서 편지가 왔더군.》 하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혜선에게 주었다.

(그래 무슨 새 성과를 거둔 모양이지.)

편지를 받아든 혜선은 숨막힐듯한 기쁨과 함께 부끄러움에 일순 얼굴을 붉혔다. 홍일의 일

굴에도 만족스러운 웃음이 피어올랐다.

혜선은 얼마전야야 춘호와 홍일은 한부대에 있었음을, 그리고 자기들의 관계를 이미전부터 그가 알고있었음을 알았다...

그의 회상은 멀리에서 울려오는 기차의 기적소리에 잤다. 열결에 자리에서 일어난 혜선은 산굽이를 돌아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당황한 얼굴로 큰길을 내다보았다.

때마침 홍일이가 오고있었다. 기적소리를 들은듯 반달음쳐온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를 본 혜선은 눈귀를 치켰다. 빈몸으로 달려오고있기때문이다. 기타도 없었다.

(아니 길떠날 사람이 짐을 두고오다니,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 다음차로 가려는가?)

의혹에 잠겨 지켜보는데 홍일은 약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다가왔다.

《배낭을 어떻게 했어요?》

《두고왔소.》

《그럼 다음차로 가겠어요?》

혼자 가게 되었다는 허전한 생각으로 혜선은 섭섭해서 물었다.

《아니 난 여기에 눌러있겠소.》

천만뜻밖의 말해 혜선은 놀랐다. 얼마전 당의 새로운 부름을 받들고 일궈놓은 기름진 땅을 가꾸가려는 결심을 품은 홍일리와 돌격대동무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여기에 남을것을 지원하였었다. 홍일리와 혜선이라도 물론 선참 지원했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늙으신 어머니를 고려하여 홍일리는 돌아가게 되었고 혜선이라도 축산반에서 돌아오라는 재촉을 받아 이렇게 떠났던것이다. 그런데 홍일리는...

《뭐라구요?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여기에 모셔오겠소.》

별에 탄 길습한 홍일리의 얼굴엔 심중한 그 무엇이 어려있었다. 혜선의 귀전에는 노을비긴 동녘하늘을 멀리 바라보며 말머리에서 무심히 부르던 홍일리의 웅글진 노래소리가 방불히 들려오는듯하였다.

수령님 바라시는 그 길이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우리 가리라

혜선의 가슴은 격동으로 벽차올랐다. 그는 이렇게 살고있다. 시대의 높이에 서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굳센 뿌리를 내리우고, 남이 보견말건 오직 한순간이라도, 충성의 그 길로 달리고있다. 이들이 바로 전호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당의 전사들이였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생활은 얼마나 보람찬가? 당이 부른다면 나는 또 선뜻 찾아오리라!

혜선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잔치날 잊지 말고 편지하오. 축하의 술잔을 함께 들어야지 응? 하하.》

어두워진 혜선이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홍일이는 익살스럽게 말하였다.

혜선이는 활짝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었다. 그리더니 자랑스러운 미소를 함뱌 머금고 재빨리 속삭이었다.

《저희들은 결혼날자를 미루기로 했어요, 이처럼 들끓는 시대에 더 많은 일을 해야지요. 전번 편지에서 춘호동무가 제기했더군요. 저도 꼭 자기 일터로 돌아가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힘차게 일해보겠어요.》

무엇인가 마음속깊이 묻어두었던것을 자랑한것같은 감을 새삼스럽게 느낀 혜선이의 얼굴은 잘 익은 능금처럼 빨갱게 물들었다.

뽕-

성급한 렬차의 경적은 그들을 불렀다.

《차가 들어왔소.》하며 홍일은 혜선이의 배낭을 들고 역으로 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차에 올랐다.

배낭을 선반우에 올려놓은 혜선은 구내에서 병글 병글 웃으며 동무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있는 홍일이를 보았다. 그가 전에없이 돋우보였다.

이윽고 기차는 길게 기적소리를 울리며 자리를 떴다. 혜선은 차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홍일이의 손을 잡았다.

홍일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잘 가오. 보람찬 일터에서의 새소식을 기다리겠소.》

혜선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기차는 점차 속도를 놓았다. 장내신평기며 역사는 뒤로 멀어져갔다. 그러나 역명안내판결에 서서 손을 찻고있는 홍일이의 모습은 더더욱 크게 눈앞으로 날아왔다.

《나는 그 어느곳에 가있어도 홍일이처럼 시대앞에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땀땀이 서있을수 있도록 생활의 길을 굳게 걸으리라!》

하고 혜선은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였다.

## 소조원이 걷는 길

윤두만

해뜰무렵 이슬내린 두렁길에서  
나는 물었네, 소조원을 못보았느냐고  
그러면 물관리공아바이 손을 들어 가리키며-  
방금 아지치는 벼포기를 돌아보고  
2분조 논으로 소조원이 갔다고

종다리 우짖는 한낮 말머리에서  
나는 찾았네, 소조원이 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젊은 운전수총각 모자를 흔들며-  
방금 후치날을 더 깊이 박으라고 일깨워주며  
수리분조쪽으로 소조원이 갔다고

마을앞 들꽃이 핀 동쪽길에서  
문득 만난 아이들도 다 알고있었네  
소조원이 가있는곳  
그가 걷는 길을

아 누구나 다 알고있었네  
어데서는 한 농장원의 설친 일손을 두고  
자신의 책임으로 깊이 뉘우치며  
오래도록 논물에 발을 잠근채  
자리를 뜨지 못하더라고

또 어데서는 흥겨운 설참  
당의 목소리로 힘있게 울리는 소조원의 그

목소리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불꽃을 지피며  
청춘의 열정을 부어 주더라고

봄이면 이삭패는 여름날에  
여름이면 금나락 실레는 가을날에  
언제나 그 언제나 마음을 두고  
드림없이 주체농법 꽃피워가는  
투쟁의 기수,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

날마다 온 농장의  
밝은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보람찬 삶의 자욱 대지우에 찍어가며  
들에 넘치는 만풍의 설레임  
온 나라의 기쁨을 마련해가는  
소조원의 길

어데서  
그 누구를 만나도  
다 알고있었네  
당의 뜻 걸음마다 새기며  
소조원이 가는곳  
그가 걷는 길

아 그 길이 다름아닌

온 농장이 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이 다름아닌  
온 마을사람들이 걸어가는

3대혁명의 시대  
농촌의 새길이기에!

-화성협동농장에서-

## 검덕의 목소리

### 차영도

당이어  
드놀줄 모르는 광부의 가슴이  
그대의 결정을 받아안았노라  
바위처럼 거머쥔 광부의 주먹이  
검덕의 결심을 부르짖었노라

착암기를 틀어잡은 손과 손,  
광차를 몰아가는 가슴과 가슴  
그 누구의 어깨우엔들  
유색금속 150만톤의 무게가  
실리우지 않았으랴

찬란한 우리의 앞날과  
주체조국의 강대한 존엄을  
유색금속의 메부리로 더 높이 빛내시려는  
아버이수령님의 뜻

당이어, 그대는  
함흥전원회의결정을  
그대의 붉은 기폭우에 엄숙히 새겨  
우리의 머리우에 나뭇겨주었나니

당의 부름안고 나아가는 우리  
땀젖은 이마우에, 이마우에  
계급의 마치가 빛나는 그대의 기폭이  
불길처럼 펄럭이노라

당이 우리에게 안겨준 믿음  
당이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  
그것은 우리의  
단 하나의 삶의 목적!

그때문이리  
저 갯장의 불밝은 간데라  
당결정을 받아안은 그날부터  
벌써 며칠째  
막장에서 꺼질줄 모름은

그때문이리  
한발과 더 하지 못한 아쉬움을 두고  
당세포회의에서

그리도 아프게 가슴을 두드리는  
저 나뭇은 발과공의 깨끗한 마음은

그렇더라  
우리는  
쇠돌로 당을 받드는 광부  
쇠돌로 계급의 신념을 빛내는 전사!

어찌 불타지 않으랴  
보화를 캐여내는 우리의 손과 손이  
조국을 더 높이 받들어올린다는  
이 하나의 숭고한 자각으로 뿔뿔이는  
광부의 심장!

당이어  
으스스하게 착암기를 틀어잡은  
우리의 이 손은  
그대가 못잇을 그날에 허물없이 잡아준  
그 뜨거운 눈물에 젖던  
광부의 손이노라

쏟아지는 석수를 맞받아나아가는  
우리의 이 땀젖은 어깨는  
그대 그날에 정겨이 쓸어준  
그 흐느낌 뉘던  
광부의 어깨노라

오, 그 사랑  
가슴을 치고  
지켜야 할 전사의 의리  
심장을 끓이누나!

정녕, 그대 검덕의 광부 위해  
천길지하막장에 놓아준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에  
얼마만한 쇠돌을 우리 실어야  
그 믿음 천분의 하나에 보답하랴

사랑의 인차를 보내준  
수십리 굴길을  
그대 따르는 천만리에

어디까지 우리 이어가야  
그 은정 만분의 하나에 보답하라

오, 당이여  
사랑으로 검덕을 안아주고  
믿음으로 검덕을 불러주는  
한없이 귀중한 우리 당이여  
검덕은 산악같이 일어섰나니  
조국과 혁명 앞에  
영예로운 광부  
이 하나의 값높은 이름으로  
뿔뿔이 나선 우리

맹세하노라  
3대혁명의 장엄한 불길이 타번지는  
《80년대속도》의 도도한 질풍속에  
유색금속의 아아한 메부리를  
시대의 찬란한 기념비로  
높이 쌓아갈 검덕의 신념!

오, 우리의 이 신념을  
저 억만톤의 쇠돌을 안은 마천령이  
엄엄히 받들어 솟았노라  
시대앞에!  
력사앞에!

## 가을밤의 들길

리광선

밤이슬 소리없이 내리는 들길을  
나는 걷는다  
설레는 별을 안고  
설레는 마음 안고

들에 취해  
난알향기에 취해  
별에 깃든 끝없는 그 사랑에 젖어  
마음마저 노을빛 바다되어  
설레는 밤길  
이 한밤이 다 가도록  
걷고만싶은 마음이어

이랑마다 무겁게 실려서  
포전마다 한껏 무르익어서  
하늘과 땅이 온통 맞붙어서  
금빛이 되어 설레는구나

설레이는구나  
어깨우에 눈을 맞으시며 눈을 맞으시며  
찬바람속에서도 봄을 불러 싹을 틔우시고  
비바람속에서도 만풍년의 봄을 가꾸어  
꽃피우시며  
새벽길을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 못잊어선가

침식마저 잊으시고  
천리 들길을 다 돌아보시며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그리도 포전마다에  
가슴가슴에  
만풍의 가을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많은 현지도의 길  
낮과 밤을 못잊어선가

맑은 한낮에도 사랑의 단비가 내리어  
왕가물이 들어도 가물을 모르고  
찬바람이 불어도 찬바람을 모르며  
땅이 꺼지게  
하늘이 놀라게  
만풍년의 황금나락 물결쳐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땅이 노래한다  
하늘이 노래한다

설레이라 가을이여  
노래하라 가을이여  
노래해도 노래해도 못다 노래할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안고  
설레는 가을이여 노래하는 가을이여

아, 나는 걷노라  
그 사랑, 그 은혜가  
땅을 덮고 하늘을 덮은 이 들길  
끝없이 이 별과 속삭이며 이야기하며  
아아 온밤 끝없이-



수령님 사랑이 파도쳐설레는 소리를 들으며

끝없는 행복에 젖어

불타는 충성안고 나는 걸노라

뜨거운 눈물에 젖어

## 영예의 《6월 4일문학상》 첫 수상자들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문학통신원들에게 《6월 4일문학상》을 수여하였다.

영예의 첫 수상자들은 아래와 같다.

**김근영** 영화문학 《더 높은 곳으로》

제31화학공장건설사업소 문화회관 관장

**송병준** 중편소설 《첫교원》

황해남도 강령군 교원양성소 소장

**주옥양**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천리마통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리희룡** 아동소설 《필갑소리》

함경남도 신흥군 창서협동농장 농장원

**리성원** 단막희곡 《두번째 소대장》

황해북도 사리원방직공장 로동자

## 금지

리병철

모래바람 불테면 불라고 하라

눈까비도 날릴테면 날리라 하라

바다를 가르며 쭉 뻗어간

눈길도 모자라는 동독 맨 한끝에

찌렁찌렁 말뚝 박고 바줄을 걸어

우리는 이렇게 초막을 쳤다.

나라에 큰일 있을 때마다

어린것 높이 안아 입맞춰주고

어머님 아버지께 허리굽혀 절하고

자진하여 집떠나는데 습관된 우리

만만치 않은 결심품고 오늘은 여기로 왔다.

저 간석지로 우리 땅을 넓힐것을

벌써 항일의 그날에 수령님 말씀하실 때

무릎우에 두주먹을 얹고

투사들 가슴을 울렁인것도

바람에 펄럭이는 이런 천막 밑 아니였던가

아, 백두밀림에 펄럭이던 그날의 그 천막

오늘 우리는

파도 칠석이는 이 기슭에 옮겨왔다.

동서 남북 사방에서 모여 온

서로 다른 고향내기들을 한품에 안아

그때는 나라 찾는 영광의 길에 내세워주셨고

오늘은 저 바다밑 30만정보

땅을 건져올리는 싸움 맡겨주셨거니

아, 아버지 세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그 믿음 안고

펄럭이는 천막밑에서 자고깨는

청춘들의 랑만이어!

금지여!

이 랑만

이 금지 없이

대담성과 용감성이

그 무슨 우리의 기질로 되랴

이 랑만

단편소설

# 곽령감

구경서

## 1

오늘도 황해남도 어느 한 바다가에서 해맑은 날에 서해바다를 끝추 바라보면 저멀리에 거만한 외진섬이 하나 어렴풋이 바라보인다. 주변사람들은 한때 이 섬에 등대가 있었다고 하여 지금도 등대섬이라고들 부르고있다.

어느 집의 딸애가 빗값에 인천방직공장으로 몸 팔려갔고 어느 집 아버지가 미국놈의 발동선이 들이 받은 쪽배에 탔다가 원한 많은 이 세상을 하직한것을 유언처럼 두고두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궁벽한 섬마을이었다.

이 섬에는 지리산숫구이로 통하는 곽령감이라고 하는 사공이 있었다. 그는 성미가 어찌나 피딱하고 사나운지 아이들이 울면 의례히 아낙네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 울음을 그치게 하곤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리심이 아주 강해서 남의 일이라면 옷소매부터 부르건고 나서는 그러한 령감이였다....

1950년 9월 섬에서 쫓겨났던 미국놈들이 다시 기여들었다.

아침이었다.

곽령감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것처럼 사랑하던 개 누렁이를 시퍼런 낫으로 찍어 죽이려했던것이다. 그 리유인즉 누렁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집 검정닭을 훔쳐가는 삶을 뒤쫓지 않은것으로 해서 주인을 배반한것이였다.

《너는 사자가 아니라 시라소니야, 시라소니! 뭐 삶이 네 삼촌이라도 되는줄 알았니. 이놈, 너희네 개죽속이면 다 형제지간인줄 아니? 아니다. 아니란말이다. 벗과 원쑤도 못갈라보다니?! 천하의 맹물단지같으니 너는 의리를 저버렸단말이야 배반! 알았어?!》

곽령감은 터발의 울짙에 누렁이를 퐁퐁 비끄러매며 혼자말로 씹얼거리고있었다. 이때에 손주녀석이 가재미 한마리를 누렁이에게 던져주려고 정충정충 뛰어오는것을 보자 그는 삭정이를 집어들며 성난소리로 웨쳤다.

《씩 못갈텐고.》

금시 집어삼들듯 무섭게 노려보는 곽령감의 서리 찬 눈길에 손주녀석은 그만 어깨가 축 처져서 삼

작문을 열고 어데론가 비실비실 가버렸다.

곽령감은 구뭇한 허리를 쭉 펴고나서 이마의 땀을 옷소매로 문지르더니 혼연히 집을 나섰다. 누렁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지 땅에서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왔으나 자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있는 울짙은 끄떡도 하지 않고 발을 버틴채 서있었다. 그래서 누렁이는 송진내 그옥한 울짙에 코를 박고 흑-흑- 냄새를 맡아보고는 가엾게 울부짖었다. 마치도 사정이나 하는것처럼...

이윽해서 곱방대를 입에 문 주인이 바줄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대통에서는 퍼런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누렁이는 주인의 낫익은 냄새가 좋은 듯 자꾸 발에 감기였다.

곽령감은 바줄로 누렁이의 몸뚱이를 칭칭 휘감았다. 그리고는 퐁무니에 찻던 시퍼런 낫을 뽑아들었다.

주인의 동정을 살피며 퐁지를 조심스레 흔들던 누렁이는 갑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절망에 찬 슬픈소리를 내질렀다.

곽령감은 석심한 소리로 무섭게 소리쳤다.

《썬썬말야. 나한테는 동정이 있을수 없어. 우리 섬사람들의 성품대로말이야!》

하늘높이 처든 장알진 팔뚝이 불끈하는 순간 시퍼런 낫날이 해빛에 번쩍 빛났다.

바로 이때였다. 누군가 힘껏 내리치는 그의 팔목을 짹 틀어쥐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섬의 리위원장 방인성이였다. 방인성은 무슨 급한 일때문에 뛰어가던 참이라 아직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로인장, 지금이 어느땐데 개를 죽이고 말고 야단이오 참...》

곽령감은 무릎을 꿇고앉아 자기를 쳐다보는 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나는 우리 퐁습대로 했을뿐이요. 배반자를 처단하는 우리 섬사람들의 관례대로...》

그는 솔뚜껑같은 큰 손으로 낫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방인성은 쓸데없는 일에 흥분해있는 곽령감이 어이없는지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날 그는 노상 성난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눈을 부라리였다. 그러나 누렁이

를 측은해하는것 같았다. 누렁이는 성미가 사납고 용맹스런 개였는데 왜 그런 못난짓을 했을까? 그것도 삶한테 쫓기우다니?! 내가 저런놈을 길들였던가... 그는 울짙에 비끄러맨 누렁이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곽령감은 토벽에 걸린 다 낡은 패종이 아홉점을 치자 꿈무늬에 곰방대를 찢어넣고 그물과 노를 한 어깨에 가볍게 둘러맨채 여느때처럼 바다가로 스적스적 걸어나갔다.

...어느덧 해도 수평선너머로 뉘엿뉘엿 질무렵이었다.

곽령감은 모래불에 퍼놓은 그물들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검푸른 수림속에서 키가 흰칠한 웬 젊은이와 키꼴이 장대하고 어깨가 짝 버그러져 보기만 해도 힘꼴이나 쓸 오돌석이가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곽령감을 보는 순간 사뭇 반가와하며 술뚜껑같은 그의 손을 꼭 그르쳐였다.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말 없이 곽령감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곽령감은 얼굴이며 몸통이가 온통 해월에 타서 시꺼맸다. 그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는 그물코를 짚지게 살펴보는 그의 눈은 늘썩 보아오는 그러한 서글픈 빛이 가득 비껴있었고 참대바늘로 터진 그물코를 잡아매는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며 바다물에 터서 금이 짝짝 간 손등은 잠시도 쉼새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고있었다.

이윽고 오돌석이 말쑥지를 떼었다.

《로인장, 배 좀 태워주슈.》

곽령감은 바다물소리에 그의 말을 못듣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 잠겨 남의 말은 들리지가 않는지 여전히 철문같이 무거운 입을 꼭 다문채 그물코만 부지런히 꿰매고있었다.

이번에는 오돌석이 좀 더 큰 목청으로 소리쳤다.

《로인장, 뭘 좀 실자구요.》

그제야 곽령감은 돌석이를 흘끔 가로보더니 석션한 목소리로 툭 내쏘았다.

《그게 뭘데.》

《...》

웬일이었던지 오돌석은 대답하기를 주저하며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원래 곽령감은 오돌석이와 각근한 사이가 아니었다. 어찌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도 서로 못본체 하며 지나들갔다. 피대줄을 곤두세우고 욕지거리를 퍼붓거나 손찌검을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적이 진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해 봄철 그해따라 가물이 심해서 섬사람들은 뽕창모도 변변히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남편이 태백산인지 지리산인지 몸을 피해 들어갔다는 순천댁의 썸골자드락발이 제일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을좌상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마을앞 개천물을 논벌들에 대고 썸골물만은 양이 많지도 않으니 우선 순천댁발과 그 아근의 발들에 대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다음날 순천댁이 곽령감을 찾아 숨이 턱에 닿아 허겁지겁 달려온것이였다. 썸골물을 오돌석이 죄다 독차지했다는것이였다.

곽령감은 우악스런 성미 그대로 사연은 묻지도 않고 돌석이를 다짜고짜로 삽자루로 무섭게 두들겨댔다. 어찌나 호되게 때려놓았는지 그만 열흘 동안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언제나 한자리에 같이 앉는법이 없었다.

곽령감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가의 말뚝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나루배의 바줄을 풀기 시작하였다.

락타혹같이 떡살이 올라붙은 양어깨우에 바줄을 메고 배를 기슭으로 끌어내기 시작하였다. 오돌석이기도 그의 뒤를 따라 스적스적 걸어갔다. 그리고는 바줄을 함께 당기기 시작하였다. 바줄은 얼마나 튼하고 무겁던지 어깨를 막 파고드는것 같고 얼굴에서는 비지땀이 푹뚝 떨어졌다.

돌석은 목줄기로 줄줄이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훔쳐내며 또다시 사정하였다.

《중상당한 동무들이 있어 그러우다. 리위원장도 이제 올거우다. 좀 태워주슈.》

그제서야 곽령감의 이마살도 좀 퍼지는것 같았다. 아마도 리위원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는 모양이였다. 그는 리위원장의 대바른 성미와 자기 속심을 잘 알아주는것같은 신통한 일처신에 언제나 탄복해오는 터였다.

바로 이때 두 마을젊은이들을 담가에 각각 실은 사람들이 숨가쁘게 선창가로 뛰어오고있었다. 그 뒤로는 등대발동기를 바줄로 동여서 목고를 멘 목도군들이 《어기영 치기영》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선창가로 올라왔다.

발동기가 아주 무거운모양 목도군들의 목고채는 좌우로 왔다갔다했을뿐 앞으로 잘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선창의 발판을 딛는 그들의 발은 화들화들 떨렸다.

곽령감은 나루배를 선창으로 갖다대다말고 입안의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서 실소. 시간이 없소.》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오돌석의 표표한 얼굴은 금시 환해지고 오물었던 입귀에서는 넓은 미소가 흘렀다.

《등대발동기부터 제격 실소. 어서!》

오돌석이 결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건 왜 이래...》

박령감은 오돌석이가 배주인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는듯 무엇으로 틀어막은것 같은 나무배의 밑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였다.

《로인장, 이건 꼭 소개해야 해요.》

키가 흰칠한 젊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울렸으나 박령감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도군들은 고까운 눈길로 쏘아보았다.

《발동기를 실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타고?...》

그러나 박령감은 피워물었던 곰방대를 털어버리고는 먼저 선창으로 걸어갔다.

## 2

다음날 아침이었다. 이 섬에 기여오른 미제침략군놈들이 박령감을 붙잡아갔다. 그가 끌려온것은 이전 인민학교 교장실이었다. 인민군대가 섬마을을 해방한후 그는 이 방을 처음으로 발길해보았다. 무엇보다도 박령감의 추억에 생생한것은 더벅머리 손주녀석을 학교에 붙이려고 찾아왔던때의 일이다. 그때까지 손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할아버지를 따라 바다가에 나와서는 해종일 누렁이와 뛰여놀거나 색깔고운 밥조개들을 줍고 때로는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와주곤하였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노근해진 몸을 가까스로 이끌며 집으로 타박타박 걸어왔다. 어린것이 철들기전부터 잔뼈가 휘도록 이런 고역을 치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박령감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는 이것을 풀수 없는 생활의 수수께끼로만 생각하였다.

대대로 가난한 사람은 등허리 펴사이없이 모질게 일하여도 죽 세끼 변변히 얻어먹기 어렵고 밥술이나 처먹는놈들은 온 한해 흥청거리면서도 제가 체노라고 우쭐렁거리는것이 세상살이의 리치라고만 믿어왔었다.

그런데 인민군대들이 마을에 들어온다음에는 새 세상이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이 차레졌고 선거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운다고 누구나 다 선거를 하게 했다.

정말 좋은 세상이었다.

귀천이 따로 없고 모두가 평등하니 말이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무》라고 부르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었다.

하루는 랑태머리를 한 귀염성스러운 처녀선생이 손주와 함께 나무배의 바줄을 힘겹게 끌어당기고 있는 박령감을 찾아왔다. 처녀선생은 박령감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온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내용인즉 마음이 해방되었으니 손자에게 글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녀선생은 떠나면서 교장선생을 찾아보라고 몇번이고 당부하였다. 교장선생이 박령감을 만나보고싶어한다고...

그래서 이튿날 교장선생을 만나보려고 이 방을 찾아왔던것이다.

교장선생은 박령감을 반갑게 맞아주며 손수 앞걸상까지 내여주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지만 교장선생은 그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님, 한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손자를 공부시키며 맘껏 살아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천대받고 고생만 하던 가난한 자식들부터 먼저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손자도...》

어쩐지 교장선생은 갈린 목청이었다. 그리고도 수놓은 안경때문인지 아니면 속눈썹이 자꾸 젖어와선지 눈을 슴뻑거리곤하였다. 그때 박령감은 난생처음 기쁨이라고 할가 행복이라고 할가 하는것이 그 무슨 쇠뭉치처럼 가슴을 쿵 찌르고 눈굽에서는 일순 뜨거운것이 확 피여오르는것을 느꼈다.

여느날처럼 상학시간이 거의 되자 박령감은 손주의 손목을 잡고 학교마당에 들어섰다.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했던듯이 뒤미처 수업종이 길게 울리고 아이들은 교실문으로 와- 소리치며 달려들어갔다. 박령감이 교문앞에 나타나자 교원은 버릇처럼 의례히 교과서며 교수안들을 찾아들고는 교원실을 나서는 것이었다.

손주가 교실로 들어가자 박령감은 교실창문밑에 웅크리고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그 모진 세월속에서도 자신의 일생을 의탁하며 살아온 귀여운 손주녀석! 그 녀석의 말소리하나, 노래소리하나 듣는것이 그에게는 최대의 락이요 행복이었다.

이윽고 교실에서는 노래공부가 시작되었다.

보란듯이 활짝 열려진 창문으로는 풍금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다. 꽃같은 처녀선생이 풍금앞에서 건반을 누르고있었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였지...

선생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리고 까까머리들의 또랑또랑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박령감은 그속에서도 분명 손주의 목소리를 가려들었다.

(손주녀석의 앞길에도 해와 별이 빛날테지...)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지며 목안이 콧 메어오는것을 느꼈다.

팍령감의 반쯤 내리뜯은 두눈에서는 소리없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새로 부여받은 제논에서 논김을 매다말고 중낮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팍령감은 손주가 오이랭국에 보리밥 한사발을 내올동안 선자리에서 대통 한대를 빼금빼금 피우고나자 뒤뜨락 감자밭의 김을 극성스레 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물가에 나갔던 손주가 달려들어오며 조잘대었다.

《할아버지, 밭동기가 온대요. 우리 집에도 전기불이 들어온대요.》

뒤미처 오돌석이가 마을젊은이들을 휘동하여 가지고 들이닥쳤다.

《로인장 밭동기 부리러 선창으로 나오시라구요. 전기불을 보고싶거든말이웨다.》

《...》

팍령감은 몽드라진 호미가락으로 밭을 부지런히 푸지기만 했다.

그는 전기불이라는 희한한 소식을 바로 오돌석이가 전해주는것이 맞았지 않았고 더우기는 이 귀중한 밭을 잠시도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오돌석은 허를 가볍게 끌끌 찼다.

《고집쟁이 령감같으니라구요야... 남 위하는게 제위하는 일이라는걸 아직 모른다니까.》

《뭐라구?!...》

팍령감의 맘이 불편한 이마살은 사납게 찡그러졌다.

며칠후 팍령감의 집에도 전기불이 들어왔다.

손주녀석은 손벽을 치며 너무 좋아 야단이였다. 이제 밤에도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러나 팍령감은 불못보는 소경처럼 덤덤히 앉아있었다. 다만 굼실굼실한 텃석부리밑에서 《으-흠》하는 신음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그의 범꼬리같은 시꺼먼 눈썹은 한번 쯤긋 했을뿐이였다. ...

이윽고 손주녀석이 방앗목으로 올라가 꺾꽂에서 책을 하나 꺼내더니 환한 불빛아래서 신이 나게 글을 읽어나갔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잘사는 인민의 나라》

팍령감은 손주의 책읽는 품이 신기롭기만 했다.

고조할아버지때부터 대대로 글읽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까막눈의 집안이였다. 마누라도 글자를 몰라 지장을 한번 잘못 누른탓에 땅마지기를 빼앗기고 마침내는 화병을 얻어 저세상으로 떠나갔다.

자기는 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 집세간을 다 버리고 아들며느리 데리고 지리산속에 들어가

산주인 몰래 숲을 굽다가 끝내 아들며느리를 잃고 혈불이라고는 손주만 하나 덩실하니 남기지 않았는가.

팍령감은 한동안 불빛이 시려서인지 손주녀석의 책읽는 모습이 대견스러워서인지 물기오른 눈만 껌뻑거리며 앉아있었다.

그런 섬마을에 미국놈들이 다시 기여올라 학교는 병영으로 되고말았다.

교장실에는 머리칼이 노랑고 눈알이 새파란 꼭암고양이같은 미국장교놈이 하나 앉아있었다. 팍령감을 보자 위엄을 보이려는듯 일어나 키낮은 걸상을 내주었다. 그러나 팍령감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놈들은 군사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일대를 장악하려고 먼저 척후대를 이 섬에 파견했던것이다. 놈들은 이 섬의 등대를 손에 넣어야만 섬이 많고 굴곡이 심한 서해바다의 복잡한 해안선을 용케 돌파할수 있는것이였다.

이 미군장교놈은 섬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어 물어보았다. 이번이 팍령감의 차례였다.

《...령감, 등대밭동기를 모르겠소?》

팍령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대꾸도 없다. 다만 어째서인지 그의 목대줄이 한번 꿈틀하고 움직이였을뿐이였다.

《좋다. 말 안하겠단말이지...》

그놈은 끌어내라는 손시늉을 하였다.

학교마당에 끌려나갔을 때는 벌써 술한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줄레줄레 서있었다.

맨앞에는 키가 흰칠한 젊은이가 섰고 그 뒤에는 키풀이 장대한 돌석이가 서있었다.

이윽고 미국장교놈이 나타났다.

《밭동기를 어데 감쳐어? 말못하겠는가?!》

《...》

《좋다. 5분 여유를 준다.》

그래도 섬사람들은 귀먹은 병어리들마냥 좀처럼 응답이 없다.

《밭동기를 내놓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오늘 중으로 찾아내라는 상부의 지시다.》

《모른단말이지... 누구도 나서지 않는단말이지!》

미국장교놈이 장갑을 낀 하얀손을 가볍게 쳐들자 격발기를 당기는 소리들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미군장교놈은 젊은이의 앞에 다가섰다. 그는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뿐 말이 없다. 그다음 돌석이에게 다가갔으나 그도 외로 고개를 돌렸을뿐이였다.

오돌석을 찬찬히 살펴보면 팍령감은 (그래도 사내긴 사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모른다고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외마디로 모른다고 했고 어떤 늙은이들은 귀가 먹었다는듯 손을 흔들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꾸밈을 늘어놓았다...

곽령감은 꺼꺼부정해서 엉거주춤 서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리두리한 눈만은 돈있만한 검은구름 한점이 엷게 떠도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이윽고 미군장교놈이 그앞에 다가섰다.

이때 곽령감은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폭풍이 불려나?... ) 그리고는 그 누가 제 입속말을 듣기나한듯 아주 당황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발동기는 여기 없소. 물에 있소.》

미국장교놈은 마을사람들에게 물어지라고 하였다.

하건만 섬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군놈들이 총탁판으로 사람들을 몰아댔다.

미군장교놈의 표독스럽고도 야멸찬 얼굴에는 간사스러운 미소가 피곳 어렸다 사라졌다.

마을사람들은 흩어져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벼락맞을놈의 령감태기!》

《사지를 찢어죽일 숫구이놈!》

《어데 두고보자! 우릴 배반해?!》

### 3

곽령감은 무거운 바줄을 배우에 던져 실자 노대를 가볍게 둘러메고 배고물에 올라섰다. 어느새 뒤쫓아왔는지 누렁이가 냉큼 배전으로 뛰어올랐다. 하건만 곽령감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미국놈들이 탄 나루배는 서서히 룡지로 미끄러져갔다.

곽령감은 섬사람들이 고기배를 애타게 기다리며 수없이 쓸어봤을,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선창가의 키낮은 울바자며 웅기종기 들어앉은 나지막 한 붓지붕의 오막살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다기슭에 말없이 주련이 늘어선 섬사람들, 그 무슨 간절한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손주녀석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여왔다...

곽령감은 결코 손주의 그 눈길만은 언제까지나 잊을수 없었다.

바로 어제 꽃같은 처녀선생이 미국놈의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손주는 선생님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고 또 울었던가. 욕하다 달래다못해 때리다 싫이해서야 일으켜세우지 않았던가.

그때 손주는 바로 저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

보았었다.

곽령감은 그순간 자기도 그 어떤 꿈속에서 헤매고있는것 같았다.

인물 곁고 마음씨 착한 저런 선생을... 천사같은 처녀선생을 죽이다니...

그래서 저도 몰래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이발을 으스러지게 앙다물었었다.

바다는 한껏 고요하였다. 바람이 좀 셀뿐이고 바다물은 온통 담청색의 푸른 빛을 띠고있었다. 하늘에서는 눈부신 해가 등어리를 따갑게 내리지졌다. 바다가운데의 거묵한 섬들은 그 무슨 기선들인양 동동 떠가는것 같고 어슴푸레 보이는 검푸른 룡지가가이에서는 흰물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것이 바라보였다.

잔잔한 바다물결은 희롱이나 하듯 나루배의 배전에 와서 처절씩 부딪쳤다.

다만 바위섬이 우산처럼 펼쳐준 해묵은 로송의 푸른가지 우듬지들에만 두어점의 매지구름들이 걸렸을뿐이었다.

배를 탄 미군놈들은 그 매지구름을 불안스런 눈으로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미국장교놈은 매일 눈이 되어 물어보았다.

《령감,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오?》

《배는 제갈길을 가고있소...》

곽령감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나서 멀어져가는 섬마을만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을은 점점 작아졌다.

지금 그는 방인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알았다. 그네들은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방인성인들이 왜 발동기를 감추었을까? 그것도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일것이다. 곽령감은 그 모든 진속을 다는 몰라도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고있었다. 악귀같은 미국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다는것이 다.

곽령감은 검푸른 물결을 거슬러올라가는 배머리를 흘끔 돌아보았다. 이윽고 무슨 결심을 내렸는지 비장한 얼굴이 되어 마른손에 침을 툇툇 뱉었다. 그리고는 키를 힘껏 잡아챘다.

그는 갑자기 자기발밑에서 무엇이 자꾸 감겨드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그순간 눈이 둥그래지고 말았다.

어제 아침 집에서 내쫓은 누렁이가 마치 용서라도 빌듯 조심스레 꼬리를 살래살래 내젓고있지 않는가?!...

곱슬곱슬한 누런털이 푸근히 자라고 두귀는 복스럽게 축쳐져있었다. 그리고 몽툰한 주둥아리의 코잔등에는 동전만한 하얀점이 보기좋게 찍혀있었다.

누렁이는 기쁠 때마다 류달리 어리광을 부리기가 좋아하였다.

이번에도 누렁이는 주인을 보자 반가운지 토실 토실한 흰앞발을 쳐들고 몸을 일으켜세운채 제법 춤을 추는 시늉을 해보였다.

《에익 몸쓸놈의 개새끼! 따라오긴...》

그는 노기어린 목청으로 투덜댔으나 북두갈구리 같은 다섯손가락은 어느새 폭신한 털속에 파묻혀 있었다.

박령감은 거북잔등같은 손으로 개를 슬슬 어루만져주었다.

그는 개를 용서라도 해주련듯 자꾸자꾸 쓸어주었다.

바다물은 배고물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미군놈들은 큰장에 갇히운 오리새끼들마냥 작은 배에 웅기종기 앉아서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툭툭 거렸다.

키가 정중한 미국놈 하나는 덕판우에 올라서서 박자도 제대로 맞지 않는 음으로 발장단을 쳐가면서 회파람을 불어댔다.

그러자 앉아있던놈들은 가슴속의 불안과 공포감을 애써 능쳐보려는듯 짹짹그르 박수를 치며 조야한 회파람소리들을 내었다. 그리고는 야생적인 목청으로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다.

박령감은 노랑머리들이 노는 꼴엔 흥이 안간다는듯 키를 젓다말고 바다물이 번지르르한 선창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투박한 손으로 담배주머니에서 엽초를 한웅큼 쥐여다가 대통에 무뚝히 담고 엄지손가락으로 꺾꺾 눌러댔다. 그다음 곰팡대를 입에 물고 두볼이 훌쩍해지도록 들이빨았다가 진한 연기를 내뿜어올렸다.

한껏 고요한 바다우에는 심상치 않은 무거운 습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바위섬의 푸른 로송은 한층 더 검푸르고 우중충해보였다. 그리고 그우에 드리운 어두워진 하늘은 한결 더 낮추 내려앉은것 같았다. 언제 생겨 났는지 시꺼먼 연판같은 검은 구름떼들이 무섭게 룽지쪽으로 쏜살같이 날아나고 바람은 드세차게 불어대기 시작했다.

박령감의 배는 언제나 바다물에 노끈줄을 띄우고서 가듯이 목적지로 곧바로 대군하였건만 오늘따라 술취한 사람마냥 비틀거리며 수면에 뜬 가랑잎처럼 오락가락하였다.

갑자기 온 바다가 떠나갈듯 요란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는 눈부신 시퍼런 섬광이 번쩍하고 일어났다. 드디어 커다란 비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삽시에 모든것이 비속에 잠겨버리고 바다는 광란하는 야수와도 같이 펄펄 날뛰면서 무서운 격랑을 일으켰다. 번개가 번쩍하자 바다

는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깊은 심연속에 빠져들어가더라도 하듯 캄캄해졌다.

바람이 불고 우뢰가 울었다...

미군놈들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박령감한테 달려 들었다.

미군장교놈은 권총을 빼어들고 승냥이처럼 이발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령감, 배를 세웁, 셋!》

박령감은 여전히 선창에 앉아있었다.

(남의 집 문전에 왜 와서 기웃거리... 망할놈들 갈으니!)

우뢰가 울고 번개가 번쩍이자 누렁이는 겁이 났던지 꼬리를 사리며 가없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자꾸 박령감의 사타구니로 기여들었다.

《누렁아, 어째 넌 물에 남지 않고 따라왔니. 내미쳐 몰랐고나...》

이렇게 말하며 그는 복실복실한 누렁이를 꼭 품에 안았다.

누렁이는 무척 좋은 모양이었다. 짧은 꼬리를 휘휘 저으며 킁킁거렸다.

정겨운 눈빛으로 주인을 올려보다말고 빨간혀로 자꾸 박령감의 볼을 핥아주었다.

이윽고 박령감은 수염속으로 독살스러운 웃음을 웃으면서 말했다.

《안심하오, 내 한번 조선의 임당수를 구경시켜 주자고 끌고왔소... 왓 핫핫...》

그리고는 꺾쇠같은 투박한 손가락으로 나루배 밑창에 틀어막은 마포를 기발처럼 높이 쳐들어올렸다. 물은 팔팔 솟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바로 이때 밤중처럼 캄캄하던 하늘에서는 다시금 검은구름이 짙 갈라지며 시퍼런 화염들이 독사의 혀바닥마냥 날름거리며 활활 타올랐다. 그리고 천지를 들었다놓는 요란한 천동소리와 함께 온 바다는 환히 밝아졌다.

순간 번들거리는 바다물우에는 배고물에 버티고 선 박령감의 자태가 언뜻 비끼었다. 그는 험클어진 머리털과 검은 수염발을 날리며 누렁이를 품에 안고 서있었다.

그순간 박령감의 눈앞에는 방인성, 오돌석... 섬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손주녀석의 애원하는듯한 눈길의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처녀선생의 해맑은 웃는 얼굴이 보이며 귀전에서 멀리서 가늘고도 은근한 풍금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아!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해별에 탄 그의 볼에는 두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있었다.

...바다는 예나없이 무섭게 울부짖었다.

##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 부르조아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

박종원

지금 남조선에서는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 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강화와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반동적인 문예정책으로 말미암아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의 발전이 극도로 억제되어있는 반면에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조아문학이 판을 치고있다.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새 전쟁 도발과 인민탄압 책동의 사상적도구로 복무하고있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 문학은 온갖 허위적이며 반동적인 사상과 말세기적인 생활풍조를 퍼뜨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쪼먹고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는 해독적작용을 하고있다. 특히 《고독》, 《허무》, 《죽음》을 주제로 한 반동작품들은 실존주의와 종교사상에 기초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설교하고 고취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리상을 버리고 주어진 조건에 잘 순응하며 매 순간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는것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설교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청년들을 타락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각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주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 오늘의 비참한 남조선 사회현실에 순응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도취되도록 하는데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고 그들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 미제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실존주의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남조선에서 실

존주의를 퍼뜨리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이 해독적인 반동사상이 남조선인민들을 부패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취제로 되기때문이다.

실존주의는 멸망에 직면하여 극도의 불안과 절망속에서 허덕이면서 말세기적인 광증을 부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의 사상감정과 기분상태를 반영하고있는 극악한 부르조아반동철학이다.

극단한 주관관념론에 기초하고있는 실존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퍼뜨림으로써 인간의 《무력성》과 생의 《무의미》를 설교하여 사람들을 황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인간에 대한 멸시와 증오,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설교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는데 있다. 실존주의를 《불안의 철학》 《죽음의 철학》이라고 부르는것도 바로 이러한 반동적본질과 관련되어있다.

실존주의철학은 실존주의문학의 사상리론적기초를 이루며 실존주의문학은 실존주의철학사상을 표현하고 선전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짜르프르의 《구토》나 카뮈의 《이방인》을 비롯한 실존주의문학작품들이 실존주의의 반동적이며 허황한 철학사상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어왔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준다.

실존주의문학은 8. 15해방후 특히 전후시기에 남조선에서 《전후파》라고 불리우는 젊은 세대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에 의하여 널리 퍼졌으며 오늘날도 창작분야에서 의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존주의문학은 모든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생활력량을 거부하고 《부조리》(조리가 없다는 뜻)와 허무주의를 설교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존적자아》를 추구하는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있다.



오늘 남조선반동문학에서 끊임없이 조작되어 살인, 강도, 죽음, 자학, 정신착란 등 온갖 반동사상과 말세기적기분을 퍼뜨리는 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실존주의사상에 뿌리박고있다.

《고독》과 《절망》, 삶의 무의미, 인간에 대한 멸시와 증오,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질없는 질투와 인민대중에 대한 적대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상비방, 자살, 근친살상, 무정부주의적반항 등으로 엮어진 단편소설들인 《혈서》, 《5분간》, 《요한시집》, 《서울, 1964년 겨울》, 중편소설들인 《현대의 야》, 《비인탄생》, 장편소설 《광장》 등은 독성을 풍기는 실존주의 반동작품들의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현대인》, 《실존적인간》들의 불행과 정신적고통, 죽음을 통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반동작품들은 한편으로는 《반공》과 인간증오사상을 퍼뜨려 남북대결과 새 전쟁도발 책동을 부추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을 무기력하고 부화타락하게 만들어 그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더 잘 순종하도록 하는 작용을 놓고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어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간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온갖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철학사상과 문예조류를, 특히 실존주의철학과 실존주의문학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아직 남조선에서 자취를 감추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쑸도당의 비호밑에 계속 선전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 특히 철학과 문예분야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있다.

그것은 최근시기에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 시인들이 창작한 일련의 소설 및 시 작품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

남조선실존주의문학의 반동적본질은 우선 《고독》과 《불안》, 《절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하여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설교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실존주의의 사상적독소에 깊이 물젖은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불안》, 《고독》, 《절망》에 관한 주제이며 이것이 또한 이 작품들의 주인공 《실존적인간》들의 주요한 성격적특질을 이루고있다.

실존주의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은 사람의 생활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죽음으로의 길》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의식과 공포심을 고취하고있다. 이러한 《실존적인간》들의 형상에서 우리는 자기밖에는 그 누구도 믿을수 없으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해칠수 밖에 없다는 부르조아지들의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에 대한 불신임과 적대적감정, 바로 그것으로 하여 《고독》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실존적인간》의 썩고 병든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다.

《고독한 생활》을 숭상하며 《고독》, 《허무》, 《절망》에서 심오한 철학세계를 탐색하는 《실존적인간》의 가련한 물결은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의 주인공에게서 찾아볼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흰 까마귀》- 《나》는 월남한 로법관으로서 공화국북반부에서나 남조선에서나 따돌림을 받은 《고독》한 존재이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만큼 사회에 무관심하며 화장터에서 동생의 시체가 타는것을 보고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는 냉담한 그는 어느 비오는 날 식어가는 파이프를 입에 문채 고독과 울적한 기분에 싸여 60년간의 인생행로를 《총화》하다가 탈가해버린다.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이 설교하는 사상은 《고독한 생활》을 숭상하고 《인생의 허무》를 개탄하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이다. 그것은 평생 《고독》과 《불만감》을 씹으며 쓸쓸하게 지내온 《흰 까마귀》의 인생행로, 비오는 날의 서글픈 정경, 이렇다 할 목적이 없는 탈가 등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극도의 불안과 고독, 허무와 절망으로 특징적인 실존주의의 사상적독소에 중독된 이러한 부르조아소설작품들은 《고독한 존재》, 《실존적인간》으로서의 피박한 성격과 병적인 정신세계, 《기구한 운명》을 통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고취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주의문학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고독》과 《불안》 《절망》이 현대에 사

는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으면 안될 《아픔》이며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설교되고있는 점이다.

중장편소설 《현대의 야》의 주인공은 지난 전  
쟁시기 《강제로동》에 동원도 되고 포로수용소생  
활도 하다가 부당한 결혼과 잘못된 재판때문에  
10년징역을 선포받고 감옥생활을 하던 중 원인모  
르게 죽고 마는데 그의 허무맹랑한 죽음을 두고  
작가는 이렇게 쓰고있다.

《그 아픔은 비단 그만이 겪고 당하고 느낀 아  
픔은 아니었다. 현대의 생이 주어진 모든 인간이  
겪거나 알거나 당하고있는 수모요 상처요 아픔이  
였다.》

이처럼 이 반동작품은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며 누구도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고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남조  
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미제  
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와 전두환군사파쑸도당의  
반동적이고 살인적인 정책의 본질과 죄악성을 가  
리우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  
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고독》과 《불안》, 《절망》을 주제로 하여 허  
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해독적인 작품들  
은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에서도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실존주의  
와 서유럽 퇴폐주의시문학의 영향밑에 인생의 허  
무를 개탄하기도 하고 세계는 《광장》이니 《황  
무지》니 인생은 《락엽》이니 《야간렬차》니 하  
면서 비애와 절망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  
고있다.

시 《늙은 마부》에서는 죽음을 고향으로 가는  
길에 비유하면서 그 길로 하루빨리 돌아갈것을  
유혹하고있다. 시에서는 이제 다정한 친구들도  
가고 모두다 가버렸다고 하면서 뿔뿔이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오고 헤어진 친지들도 다시 만나는  
고향, 누구나 언젠가는 한번은 가야 할 길을 재  
촉하고 있다.

시의 서정적주인공 《늙은 마부》에게는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삶의 의욕도 없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운 고향,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을  
뿐이며 그곳으로 빨리 가려는 생각뿐이다.

앞길이 막힌 절망의 세계, 허무주의와 비판주  
의는 시 《어둠속 궤도를 달리는 야간렬차》에서  
도 고취되고있다.

이 시에서는 캄캄한 차창밖에 비치는 자기 얼  
굴을 주시하고 돌아오지 않는 과거와 흘러간 역  
들을 추억하며 인생행로를 어둠속을 달리는 야간  
렬차에 비기면서 삶의 무의미와 허무함을 력설하

고있다.

너는 밤새도록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도

사람들은 너를

죽었다고 하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이처럼 시는 인생행로를 죽음으로 달리는 렬차  
에 비기고있을뿐아니라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  
할수 없는 렬차안에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애와  
허무를 개탄하고있다.

비애와 절망은 죽어가는 계급에게만 고유한 정  
신상태이다. 그것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과 유리되고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며 투쟁할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 고유한것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이 허무와 절망,  
비애의 감정을 자기 시에 즐겨 담고있는것은 그  
들이 바로 인민의 편에 서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력사에 의하여 그 멸망이  
선고된 반동적착취계급의 립장에 서서 시대의 흐  
름에 역행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학의 가치와 의의는 결국 그것이 인간과 그  
의 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가에 의  
하여, 그리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어떻게 이바지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오늘 남조선문학이 진정한 인민의 문학으로 되  
려면 미제강점하의 암흑세계에서 신음하며 몸부  
림치는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을  
광명한 미래,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 고무하는 그러한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미제와  
그앞잡이 반동적착취계급에 복무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본성으로부터 인간성격과 현실생활  
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반대하고 허무주의와 염  
세주의, 패덕과 패륜, 종교와 미신 등을 설교함으  
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을 쪼먹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는 작용  
을 놓고있다.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고취하는 남  
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에 대하여 말할 때 실존  
주의와 함께 불교를 비롯한 종교사상의 해독적인  
영향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미신은 오래전부터 부르

조아반동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오늘날도 남조선의 반동문단에서는 미신과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창작되어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정신 생활을 쪼먹는 해독적작용을 놓고있다.

남조선반동문학에서 미신이나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 있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우민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근로자들속에서 종교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지 못함때로부터 전대미문의 도탄속에서 무서운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면서도 거기로부터의 옳은 출로를 찾지 못하고 미신이나 종교에 의탁하여 기적을 바라거나 《래세》의 《행복》을 빌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미개하고 우매한 의식상태에 편승하여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은 미신이나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들어 허무주의와 무저항주의, 패배주의를 퍼뜨림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더욱 철저히 짓밟고 그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만 보아도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미신들은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로 되어왔으며 그것은 《인생과》를 통하여 하나의 문학적흐름을 이루게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인생과》는 벌써 1936년에 퇴폐적인 반봉건적부르조아시문학잡지 《시인부락》이 발간된 때로부터 나타난 반동적시문학 류파의 하나로서 미신과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하여 원시적신비주의를 선전하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삼고있다.)

이 류파의 대표적시인의 하나인 한 반동시인은 《인생과》의 중요한 경향성을 인간과 자연을 노래하고 《옛날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며 《영원만 가진자로서》의 《향수》, 《원시생명체의 회구》등이라고 떠벌이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이른바 《일생의 고뇌》란 현실적인 모든것을 《초월》한 그 어떤 《절대적가치》에로의 지향이며 《영원한 생명》이란 초자연적, 초현실적인 《가치의식》, 《권한의식》 즉 《원시생명》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생과》시문학은 현존하는 모든것을 부인하는 허무주의와 종교신앙주의에 기초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인생과》시인들과 그 아류들

의 시는 더욱더 철저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들어가 《귀신의 사상》을 선전하고 종교와 미신을 설교하는데 몰두하고있다.

그들의 시를 보면 인간은 《텅 빈 항아리》이거나 《한날 보잘것 없는 벌레》이며 세계는 《창연한 고성》, 《하나의 모래알》이며 온통 《허무로 도벽해놓》은 《무》의 세계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것은 《무》로 통하며 존재와 허무가 같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이 현실세계에 대한 그들의 표상이다.

이처럼 그들의 《인생의 고뇌》의 밑바닥에는 현실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체념과 원시적인 태고의 《신비경》이 놓여있다.

그들에 의하면 이 넓은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존재하는것은 《신》뿐이다.

몽매한 《인생과》시인들은 우주의 모든것은 《절대자(신)》의 《의지》의 발현이며 땅의 모든 변화발전은 다 《신》의 조화이며 《신》을 위한것이라고 설교하고있다.

세계를 지배하고 그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며 사람이야말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고 변혁시키는 세계의 유일한 개조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신의 사상》, 미신과 종교를 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는 허황한 시들을 써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설교하려고 헛되이 애쓰고있다.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시 《적멸》을 들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엉키여 이루어진 《하나의 모래알》을 통하여 우주의 무한대와 《하느님》의 《절대성》을 설교하고있다.

시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모든것은 끝없이 아름답고 숭엄하고 절대적인것이며 반면에 땅위의 세계, 인간사회는 속되고 보잘것없는것으로 차있으며 일시적인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절대자》(《하느님》), 《절대적 권능》이 《신비화》되어있는 반면에 사람은 벌레와도 같이 무력하고 미세한 존재로 왜소화되어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신》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숭배하고 무조건 순종하도록 체념과 비관과 패배,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인생의 덧없음과 비애》를 추구하는데 모든 의의를 부여하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허무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경향은 잡지 《금조비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어느 고

도에서 찾아낸 황금의 새(유물)를 소재로 하여 쓰여진 이 시에서 설교되고있는 기본사상은 황금의 새의 신비로움과 《영원한 생명력》에 비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 대한 개탄이다.

시에서는 유구한 세월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깊은 사색과 침묵속에 잠들고있는 황금의 새의 《승업한 모습》을 시화하고 《황망히 살다가는…행인》과도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개탄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복을 바라지 말고 오늘의 처지에 만족할것을 설교하고있다.

시는 시, 공간적으로 무한대한 자연에 비해 《너무나 짧고 보잘것 없는》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동시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고 현실에 순응할것을 설교하고있다.

이처럼 실존주의와 종교사상에 바탕을 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무저항주의와 패배주의 사상을 설교하고 고취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군사파쑈도당으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더욱 철저히 짓밟고 그들을 더욱 악착하게 착취하며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설교하는 남조선 부르조아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 ※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 부르조아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죽음》을 설교하고 찬미하는데서 극악하게 나타나고있다.

《죽음》을 찬미하고 절대화하는것은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실존주의철학의 《창시자》인 케르케골은 《죽음은 실존의 거울》이라고 하였으며 실존주의철학과 실존주의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까뮈는 《죽는다는것은 바로 이 죽음에 알맞는 생명의 가장 높은 표현인지도 모른다》고 떠벌이면서 《죽음》을 설교하고 찬미하였다.

실존주의의 사상적독소에 깊이 물젖은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은 《고독》과 《불안》을 고취하는것과 함께 《죽음》을 찬미하는것을 중요한 주제적과업으로 삼고있으며 불안과 공포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죽어가고있는 인간들의 운명과 성격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있다.

단편소설 《생자의 장》은 제목과는 달리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아버지의 뉘레사날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나》가 여행도중 기차안에서 한 녀인과 알게 되고 그리고 시골 고향의 한 려관에서 그 녀인과 다시 만나 하루밤 같이 자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취급하고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의 내용, 주인공의 행동선이고 그 사이사이에 살아있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 특히 병으로 신음하다가 세상을 뜨게 되는 과정이 회상적으로 삽입되어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하여 작품이 강조하는 사상은 삶은 한 순간이고 죽음은 영원한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향락을 다 누려야 한다는것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인간의 삶이란 《내가 생겨나기 이전의 어둠과 내가 없어지고난 후의 어둠》사이에 잠깐 존재하는 순간이며 《죽음》은 모든 존재하는것과 살아있는것의 실제적인 일치이고 《죽음》이야말로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주인공의 이 잠꼬대같은 말은 삶은 순간적이며 가상적이고 《죽음》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것이라고 떠벌인 실존주의철학자들의 허황한 설교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을 찬미하고 절대화하는 실존주의의 악독한 영향으로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작품들에는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군상이 펼쳐지고있다.

단편소설 《이상한 겨울》에서는 동료가 갑자기 뇌출혈로 죽은 사실과 한 처녀가 감원(축소)에 걸려 퇴직당하는 사실을 통하여 사무원들을 수인, 죽음으로 어쩔수 없이 줄달음쳐가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불안과 허무, 공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단편소설 《어느 하루》는 택시운전사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한 손님이 놓고간 큰 돈봉치를 얻은 횡재로 정신착란이 생겨 차사고를 일으키고 비참하게 죽는 사건을 취급하고있으며 단편소설 《가을 찬바람》에서는 새벽 일찍이 어머니와 아들이 어린 아기의 주검을 파묻는 장면(어린것을 묻으려 산길을 찾아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다 묻는것으로 끝난다.)을 《비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생의 비애와 허무》를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반동문학의 주인공들은 굶어죽고 병들어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강도와 깡패에 의하여 죽고 가정싸움으로 죽고 자식의 칼에 찔려죽고 심지어 살기가 싫증나서 자살하는 등 그들은 참으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허덕이다가 차례로 죽어가는 《죽음》의 군상들이다.

그런데 《죽음》을 주제로 한 남조선의 부르조

아 반동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인공의 죽음을 우연적인 계기와 결부시키고 그 사회적원인을 밝히는것을 회피하면서 《죽음》은 필연이고 불가항력적이라는것을 설교하고있는것이다.

시 《끝나버린 술래잡기》에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쫓기우는 《나는 언젠가는 막다른 단애위에 와서 상처입은 짐승처럼 바다로 뛰어들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낮은 얼굴을 하고 지나가다 잠시 들린 친한 벗처럼》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병든 정신상태를 《시화》하고있다.

일생을 《필사의 도망자》마냥 보이지 않는 손길에 쫓기여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어느때가 한번은 죽어야 하는 서정적주인공에게는 피할길 없는 운명, 죽음에로의 길만이 남아있다. 시는 《끝나버린 술래잡기》, 보이지 않는 손길에 잡히고만 《부유의 죽음》같은 《생애》를 통하여 허무주의와 비판주의를 고취하며 《죽음》을 찬미하고있다.

우에서 든 몇개 작품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실존주의의 사상적독소에 물젖은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은 비애와 절망, 통곡으로 차있으며 주검과 백골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작품에서는 《죽음》을 《가장 편안히 쉬는것》으로, 《무덤》이나 《공동묘지》를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거처》로 레찬하면서 허무주의와 비판주의, 염세주의를 고취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는 인간중오사상과 결부됨으로써 그 반동성과 해독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다.

극악한 실존주의문학작품인 중편소설 《현대의 야》에서는 주인공이 《강제로동》에 동원되어 폭격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하는 장면이 설정되어있는데 산더미같이 쌓인 여러 종류의 시체에 대한 묘사는 인간에 대한 혐오와 멸시, 증오로 일관되어있다. 여기서 작가는 파괴와 허무의 재더미속에 사람들의 시체가 수없이 쌓여있는 가상적인 정황(《극한상황》)을 설정하고 시체들을 기증기로 집어들어서 차에 싣는 과정을 마치도 건설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과 비슷하게 묘사하고있다.

여기서도 보는바와 같이 실존주의에 중독된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실존적인간》의 삶만이 참답고 영원한 삶이며 《일상적인간》의 삶은 가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아무런 의의도 없는 삶이라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황당

한 반동적견해로부터 그들은 인간을 것처럼 천시하고 모독하며 반면에 《죽음》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것이라고 찬미하고있는것이다.

사람에 대한 혐오와 멸시, 증오의 감정을 형상하는데서 그 어떤 《철학적깊이》나 《예술적묘미》를 찾으려는 남조선반동작가들의 변태적이며 병적인 취미도 실존주의에 그 사상적바탕을 두고있다.

단편소설 《잘 가꾼 장글》에서는 쓰레기통에 내려진 해장국찌꺼기를 먹기 위해 거지아이와 개가 다투는 장면을 그리고있는가 하면 (거지아이가 개보다 더 악착스럽게 먹이에 달라붙는다고 모독하고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석달전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썩은 시체가 발견된 끔찍한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강변을 산보하던 젊은 남녀가 시체를 발견하고 사공에게 알렸으나 사공은 그런 물건이 이따금 떠내려오는것인데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밤거리에서 인질극을 벌린 범인이 경찰에 의하여 사냥에 걸린 짐승꼴이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한대목을 비쳐보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사람이 동물이나 물건과 같은 존재로, 심지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멸시, 증오의 사상을 고취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가장 힘있고 슬기롭고 귀중한 사회적존재이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사람에 의하여 개조변혁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 참다운 의의를 갖는다.

참으로 사람이야말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위대한 존재이다.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문학이 사람과 그들의 보람찬 생활과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기때문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과는 배치되게 사람을 무력하고 추악한 존재로 모독하고있을뿐아니라 인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멸시와 증오의 사상을 퍼뜨리는 데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반공》과 인간중오사상으로 무장시켜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새 전쟁도발과 야수적인 인민탄압에로 부추기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비참한 현실에 순응하고 식민지노예로 순종하도록 하려는데 그 흉악한 반인민적이며 배주적인 목적이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부터 부르조아반동작가들은 《고독》과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인간을 가장 추악하게, 참혹하게 보여주는데 모든 의의를 부여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사회적인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내는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것이 마치도 인간의 《본성》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인것처럼 외곡 날조하고있는것이다.

인간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사상을 고취하는 남조선반동문학의 해독성은 근친살상을 취급, 묘사하는데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근친살상》이란 미제의 사상문화침투로 남조선에 흘러들어와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말세기적인 패륜패덕이다.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근친살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수많은 만들어냄으로써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 《미국식생활양식》 특히 근친을 살상하는것과 같은 극악한 말세기적 풍조를 퍼뜨리는데 한몫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이는 단편소설 《나는 효자로소이다》와 주인공 《나》, 문기등을 뽑아 안해를 때려죽이는 단편소설 《인간제대》의 주인공 《나》, 칠순이 된 미친 어머니를 차디찬 지하실에 내다버리는 단편소설 《고려장》의 주인공 등 패덕한들의 형상들만 상기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단편소설 《나는 효자로소이다》의 주인공 《나》는 아버지를 죽이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있다. 《...나는 아직 그를 인간으로 인정해온 일은 없었다. 그는 환경조사서의 호주의 공란을 메울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있었으며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 어머니의 남편이고 내게 부친이였을뿐 내게 인간으로 비쳐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몸도 운신하지 못하게 살이 찌고 정신이상인 된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인 자기를 《효자》로 자처하는것이다.

근친살상을 취급한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흔히 살상의 원인과 동기가 부모의 발광이나 극도의 흥분에 의한 자식의 실수에 있는듯이 그리고있으나 부모와 안해를 살해한 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여기서 특히 간파하지 말아야 할 엄중한 문제는 살상의 주되는 책임이 살해당한 부모에게 있고 죽인 자식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것이 자식된 도리인것처럼 설교되고

있는것이다.

그러한 실례를 단편소설 《고려장》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아들부부를 선량한 인물들로 선정하고 《미처도 더럽게 미친》 어머니의 병이 불치의것이기때문에 결국 내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아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있다.

즉 작품은 어머니가 미치게 된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력사》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늘과 같이 비극의 력사가 계속되는 한 어머니를 산체로 내버리는것과 같은 《현대적고려장》도 근절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력사적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정당화될수 있다고 설교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멸시, 증오의 사상과 온갖 세기말적인 패륜패덕을 고취하고 《죽음》을 찬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반공》 사상선전의 구실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학살하는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쑸도당의 전대미문의 야수적만행을 합리화하고 부추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실존주의와 종교사상에 기초하여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배주의를 고취하는 남조선반동문학의 퇴폐상은 미제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등 식민지피뢰도당의 야만적인 파쑸폭압과 반동적인 문예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정신이 불구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부르조아반동문학이 어떻게 더욱 반동화되고 부패타락하고있는가 하는 일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비판하는것은 그것을 부식시키고 전파하는 미제의 사상문화침투와 전두환군사파쑸도당의 반동적인 문예정책의 죄악성을 발가냄으로써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반미반파쑸투쟁,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 실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조류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의의를 갖는다.

우리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남조선에 퍼지고있는 온갖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조아 문예조류들이 우리 내부에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냄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을 건

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그의 전투 할것이다.  
적기능과 사상교양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 어머니를 고향땅에 모시려

홍순련

어머니  
저 웨침소리를 들으십니까  
《<두개 조선> 반대!》  
《조선은 하나다!》  
어머니가 잠들고계시는  
도표를 향하여  
조국통일 대행진단이 노도쳐갑니다

지난봄  
나고야에 오신 어머니와 함께  
그립던 마음, 살뜰한 정 나누던  
그 잊지 못할 쓰르마이공원에서  
이 딸도 600키로의 통일로에  
어엿이 첫 발자국을 땀습니다

사람이사 좋지만  
손재주가 없다던 사위는  
저기 맨션두에서  
전두환 퇴진의 구호판을  
높이 추켜드립니다

어머니가 별세하신지  
아직은 몇달 며칠  
슬픔이면 이보다 더한 슬픔  
또 어데 있으랴만  
눈물은 아니 흘리립니다  
우리가 걷는  
투쟁의 이 길우에서는...

살을 태우는 삼복더위 행진의 나날  
열을 토하는 아스팔트길우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도

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가고싶다던  
어머니의 그 모습, 그 목소리  
이 가슴을 자꾸만 허비니  
순간도 늦추지 못하는 길입니다

물 한모금 못마시던  
그 안타까운 병석에서도  
-내가 경상도사람인데  
어찌자고  
남의 땅에 묻히겠노  
외우고 외우시던 어머니

살아 고향땅을 쫓겨나  
평생 소원 한줄기 눈물속에 담으신채  
죽어 객지 고향된 나의 어머니  
그날을 못기다려  
이렇게 영영 가셨으니...

아, 그 마음 그 소원  
이 딸이 받아안고 걸어갑니다  
주먹을 부르짖고 목청껏 웨치며  
원썩을 어머니의 고향땅에서 몰아내는  
통일의 길, 애국의 길을 행진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유골을  
경상도 고성땅에 모셔가는 이 길  
걷다 쓰러지면 기여서라도  
기어이 가닿아야 할 이 길

폭풍도 해일도 막지 못할  
투쟁의 길을  
억세게 억세게 나아갑니다

《미제는 남녘땅에서 당장 나가라!》  
《조국의 자주통일 만세!》

## 눈은 묻어주었네

김재윤

한두차례의 전투에서만이라  
백두산골짜기 골짜기마다에서  
유격대의 불벼락에 병거지가 된  
왜놈 《토벌》대장놈

치미르는 분통에 이를 갈다갈다  
희한한 《묘책》에  
무릎까지 치며 나섰다.

-흰눈처럼 온통 위장하라  
총대에도 《일본도》에도  
흰봉대를 감으라  
빠짐없이 빠짐없이...

미리부터 《승리》를 내다보며  
호언장담한놈  
제놈부터 온통 백포로  
몸을 감고 나섰네

눈덮인 흰산밭에  
흰 《토벌》의 무리들이 덮이었네  
새벽 어스름 타고  
벼랑밑까지 다달았네

격전은 바로 그 순간에 벌어졌네  
쥐죽은듯한 바위골짜기마다에서  
터지는 불길...

불길...

맞아죽고  
터져죽고  
구울려 죽으며  
바위벼랑으로 일시에 쏟아져내리는  
흰눈, 흰 《토벌대》의 사태

벼랑밑에 떨어져내리어  
울며  
소리소리 지르며  
기고돌다  
그만이야 모두  
제 자리를 찾아 굳어진 주검들

그 우에 널려져있었네  
한번도 못쏘아본 흰 총대들...  
한번도 못빼본 흰 《일본도》들...  
한번도 못붙어본 흰 돌격나팔들...

때에 때마침  
흰눈은 퍼부었네  
빠짐없이 흰눈은 내리고 내리어  
영원히 덮어주었네  
영원히 묻어주었네